

GOVP1199916189

'98 농림부 국정감사

참 고 자 료 Na 9

338.1736

L2932

1998

'98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자료집

1998. 10

농 립 부

목 차

1. 소값 및 쇠고기 수급안정대책	3
I. 안정대책 추진실적	7
II. 공문 모음집	13
III. 홍보 및 보도자료	115
2. 우유수급안정 및 분유재고 소진 대책	153
I. 안정대책 추진실적	157
II. 공문 모음집	165
III. 홍보 및 보도자료	205
3.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283
I. 사업 추진 실적	287
II. 공문 모음집	301
III. 홍보 및 보도자료	365
4. 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 동향	375
I. 환원 추진 실적	379
II. 마사회 농림부 환원 논리	382
III. 건의서·성명서 및 보도자료	389

여 백

1. 소값 및 쇠고기 수급안정대책

여 백

목 차

I. 소값 및 쇠고기 수급안정대책 추진실적	7
1. 소값 및 쇠고기 수급동향	7
가. 한육우 사육동향	7
나. 산지소값 동향	7
다. 쇠고기 소비동향	8
2. 소값 및 쇠고기 수급안정대책 추진현황	9
3. 대책추진 효과	10
4. 사육두수 및 산지소값 전망	11
5. 향후 소값 안정대책	12
II. 공문 모음집	13
1. 쇠고기 소비자가격 인하	13
2.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	13
3. 축산물 소비촉진	13
III. 홍보 및 보도자료	115
1. 보도자료 배포	115
2. 보도내용	115

여 백

I. 소값 및 쇠고기 수급안정대책 추진실적

1. 소값 및 쇠고기 수급동향

가. 한육우 사육동향

□ 한육우 사육두수는 '97.6월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

- '98.9 기준 사육두수는 작년말보다 102천두 감소, 1.5세이상 가임암소두수는 53천두가 감소

	'95.12	'96.12	'97.6	'97.12(A)	'98.9(B)	증감(B-A)
한육우 사육두수	2,594천두	2,844	2,927	2,735	2,633	△102
가임암소	1,217	1,339	1,344	1,219	1,166	△53

나. 산지소값 동향

□ 산지소값은 '98.7월까지 계속 하락해왔으나, 8.3일을 바닥으로 급등하여 최근 195~200만원에서 안정세 유지

- '90년이후 매년 10~12%씩 증가했던 쇠고기 소비가 금년 상반기중 12% 감소한 반면 공급은 증가하여 소값이 폭락 하였으나,
 - 국내산 공급량(상반기) : ('97) 113 → ('98) 125천톤(증 10%)
 - ※ 한육우 사육두수 : ('95.12) 2,594 → ('97.6) 2,927 → ('98.9) 2,633천두
- 그동안 소 수매실시, 소비확대시책 추진, 한우군납물량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으로 7월이후 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산지소값이 큰 폭으로 상승함
 - '98. 8. 3(1,487천원) ~ 9. 8(1,991천원)까지 504천원 급등

	<u>'97.12</u>	<u>'98. 6</u>	<u>8. 3</u>	<u>10. 24</u>
· 산지수소값(500kg)	2,276	2,000	1,487	1,988천원
· 산지암소값(500kg)	2,058	1,780	1,572	1,933천원
· 소비자가격(지수)	90.2	87.4	79.9	80.0

다. 쇠고기 소비동향

□ '93~'97 쇠고기 소비동향

연 도	'93	'94	'95	'96	'97
○ 소비량	143.3	270	301	323	362
- 국내산	90.0	147	155	174	228
- 수입육	53.3	123	146	149	134
○ 자급율	62.8%	54.4	51.5	53.9	63.0
1인당소비량(kg)	3.4	6.1	6.7	7.1	7.9

- '93~'97년의 쇠고기 전체소비량은 연평균 11.6% 증가세 유지
 - 국내산 소비량은 15.1%로 수입육 6.8%에 비하여 높은 증가세 지속
 - '97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7.9kg, 국내산 자급율 63%
- '98상반기중 쇠고기 소비가 전년동기대비 11.9%나 크게 감축 되었으나, 점차 쇠고기 소비감소율이 축소되고 회복추세

	'97			'98			증감(B/A)
	1~6월	7~9월	계(A)	1~6월	7~9월	계(B)	
총 소비량	169,669	105,676	275,345	149,468	102,850	252,318	△8.4
국 내 산	106,632	65,885	172,517	120,610	76,118	196,728	14.0
수 입 육	63,037	39,791	102,828	28,858	26,732	55,590	△45.9

2. 소값 및 쇠고기 수급안정대책 추진현황

□ 소 수매실시

- '97.1.25일부터 '98.8.31까지 총 5,778억원을 투입하여 212천두의 소수매 실시
- '98실적('98.1~8.31일) 2,881억원을 투입하여 112,774두 수매
- ※ WTO 허용보조금 한도로 8.31일까지만 소 수매실시

□ 수매육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 조속한 소값 회복을 위해 7.31일 이후 수매육의 방출을 중단 하였으나, 산지소값 급등에 따라 안정적 상승세를 유도하기 위해 9.3일부터 1일 100톤 수준의 방출 재개
- 추석이후 비수기 동안 소값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10. 1일부터 수매육 방출 중단

□ 소비확대시책 적극 추진

- 산지가격 하락에 상응한 소비자가격인하 유도 추진
 - 슈퍼, 편의점, 식당의 식육판매 허용 등 쇠고기 판매처를 대폭 늘려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유도
 - 신고수리건수(10.10일까지) : 229개소(슈퍼115, 식당107, 편의점7)
 - 가격담합행위나 폭리업소에 대한 가격지도·단속 강화
 - 국세청, 공정위에 1,564개 고가격유지업소 및 21개 가격담합업소 명단 통보(8.7, 9.2)
- 축협과 한냉 주관으로 할인판촉 행사 개최(8.5~8.15, 9.21~9.27)
- 축산물 소비촉진 전국 캠페인 전개 및 직거래 활성화
 - 축산물 소비촉진기간(5.26~6.12)을 설정하고 농·소·상·정 연대로 유통협약 체결 및 축산물 브랜드전 개최
 - 주말직거래장터, 차량이동판매 등 직거래 사업확대
 - '98.1월~9.30일까지 6,275억원 판매

□ 농가자가도축 허용(7.4)과 도축세 면제

- 도축세 면제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완료(7.20)하고 조례개정
- 농가도축에 따른 위생 및 환경오염 문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축업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을 제정(8.19)

□ 한우수매육 군납물량 확대

- ('97) 280톤 → ('98) 3,522 → ('99) 4,560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 번식우 생산지 위주로 시·도별 4개소(32개 시·군) 시범 실시 (1차 : 7.16, 2차 : 10.20)

3. 대책추진 효과

□ 쇠고기 소비자가격 인하폭 확대

-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98.9월평균 전년말대비 11.4%하락하여, '97년의 6.7%하락에 비해 상당수준 하락
- ('97년) △4.3% → ('98.6) △3.1 → ('98.7) △6.2 → ('98.9) △11.4

□ 쇠고기 소비 회복 추세

- 쇠고기 소비가 '98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12.1%나 크게 감축되었으나, 점차 쇠고기 소비감소율 축소
- ('98.1~5월) △12.7% → (6월) △7.4 → (7월) △0.7 → (8월) △1.7 → (9월) △4.6

□ 산지소값 상승세로 전환

- 큰수소가격은 8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8.3일 1,487천원을 바닥으로 하여, 10.24일 현재 1,988천원까지 상승

	최저가격	9.8	10.24
· 큰수소	1,487천원(8.3일)	1,991	1,988
· 큰암소	1,556 (7.24일)	1,902	1,933
· 송아지(우)	360 (7.20일)	516	510

4. 사육두수 및 산지소값 전망

□ 사육두수 전망

- 사육두수는 '97.6월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98.9월 사육두수는 6월보다 117천두 감소
 - ('97.6) 293만두 → ('98.6) 275만두 → ('98.9) 263만두
- '98.9월현재 사육두수 대비 가임암소 비율이 44%로 '88~'96년까지의 47% 보다 낮고
 - 암소 도축율이 소값 파동으로 암소 투매현상을 보였던 '86~'88년 수준을 상회하는 30% 수준으로 추정되며
 - 또한 '98년중 송아지 생산율은 55% 수준으로 정상상황의 70~75% 수준보다 낮아 향후 사육두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 ※ '86~'88의 경우 '86.6월 2,640천두에서 '90.3월 1,486천두로 약 3년간 1,154천두가 감소
- 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말 사육두수는 240~250만두 내외로 전망되고
 - '99년 하반기중 현 사육두수가 적정사육두수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임

□ 산지소값 전망

- 아직도 사육두수가 많고 쇠고기 재고도 과잉인 상태에서,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소비확대 애로등 잠재적 수급 불안요소가 많아 수급안정기반이 취약
 - 쇠고기 재고량(10.23현재) : 수매육 15,958톤, 수입육 16,249톤
- 향후 소값은 소비촉진 및 두수 감축시책, 수매육 방출량 탄력적 조절등으로 10월중 비수기동안 조정국면을 거쳐 연말연시 수요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 '99년도의 경우는 경기가 다소 호전된다면 어느정도 수급균형이 이루어져 소값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

5. 향후 소값 안정대책

- 쇠고기 소비자가격인하를 통한 쇠고기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
 - 식육업소 및 음식점 등에 대한 가격지도·단속 강화
 - 슈퍼·편의점·음식점등에서의 쇠고기 판매확대 추진
- 축협·한냉으로 하여금 구매 확대 추진
 - 연말까지 21,000두 구매확대 유도(80억원 구매자금 지원)
- 송아지생산안정제 확대 실시
 - 시범사업 평가와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전국실시 검토
- 추석전(9.1일)부터 설까지 한시적으로 농가 자가도축 실시
- 시험수출에 그쳤던 한우 대일 수출의 본격 추진
 - '98.상 : 28.3톤 → '98.하 : 500톤
- 수매육 방출물량 조절실시
 - 산지소값동향에 따라 수매육 방출물량을 조정하여 산지소값의 하향안정세 유도

Ⅱ . 공 문 모 음 집

1. 쇠고기 소비자가격 인하
2. 농가자가소비용 도축
3. 축산물 소비촉진

여 백

축산물 산지가격하락에
상응한 소비자가격 인하대책

1998. 7.

축 산 국
축 산 물 유통 과

여 백

< 농림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보고서 대통령 지시사항 >

- 한우나 돼지 등의 산지가격이 크게 내렸는데도 소비지 쇠고기나 돼지고기가격이 별로 내리지 않은 것이 문제점임
- 국세청과 협조하여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담합행위등이 발견되면 법에서 정한대로 강력히 제재를 해야 할 것임. 이것이 중요함

1. 축산물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동향

□ 한우 산지가격은 작년말 대비 17.3% 하락하였으나,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4.9% 하락에 그침

- 산지소값(천원/500kg) : ('97.12) 2,276 → ('98.6) 1,882
- 소비자가격(원/500g) : ('97.12) 7,342 → ('98.6) 6,979

□ 돼지가격은 금년 3월대비 11.9% 하락하였으나, 소비자가격은 1.0% 하락에 그침

- 산지 돼지가격(천원/100kg) : ('98.3)201 → ('98.6) 177
- 소비자가격(원/kg) : ('98.3) 2,370 → ('98.6) 2,347

□ 판매원가에 대한 원료 품대의 비율 65% 고려시 적정 소비자 가격 하락율은 한우 12.2%, 돼지 7.7% 수준이나 실제 소비자 가격 하락은 이에 크게 미달

2. 산지 축산물가격 하락에 비하여 소비자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 산지시세변동에 연동될 수 있는 대형식육업소(백화점, 대형슈퍼, 할인점등)와 농·축협 직판매장의 유통비중이 식육전체 거래량의 30% 수준에 불과

○ 잔여 70%는 영세정육점(전국 54천개소)를 통해 유통

□ 그러나 정육점 유통구조는 영세규모 및 가격담합으로 경쟁 구조가 취약

○ 식육판매업소 설치요건이 '81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업소난립('81) : 14 → ('97) : 54천개소

○ 영세정육점의 판매원가중 임대료·인건비등 부대비용이 35%를 점유 매년 상승 추세

□ 정육점을 허가제에서 신고제 전환시 업소전입을 자유롭게 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유도를 도모코자하였으나, '91년이후 최근까지 소비자가격이 하방경직성을 띄고 있으며, 가격담합 행위가 관행화 됨

3. 축산물 소비자가격 인하대책

□ 장기적으로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추진

○ 2000년까지 현대화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10개소 건립하여 축산물 유통구조를 3단계로 축소

- 2000년부터 국내 육류유통량의 40%를 전담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가격인하 유도

- 양축농가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는 한우전문점, 육우전문점등
농가직판점을 확대
 - 한우전문점 : ('97) 548 → ('99) 700개소
 - 육우전문점 : ('97) 23 → ('99) 50개소
- 농·축협의 직판매장 설치를 확대 : ('97) 662 → (2000) 1,000개소
- 주말직거래장터 및 차량을 이용한 식육이동판매 활성화

□ 고가격유지 식육판매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가격담합행위
근절추진 계획

— < 식육판매업에 대한 가격인하 대책 추진방향 > —

- 농림부, 각 시·도 주관 식육판매점 가격실태조사
 - 가격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고가격 유지지역 및 고가격업체
명단 작성
- 고가격업체에 대한 조치
 -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소비자가격을 인하토록 지도
 - 가격인하 지도불응시에는 지방국세청 물가단속반(전국적으로
500명)과 협의 소득세 성실 신고 여부 조사
- 고가격 유지지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가격담합여부 정밀
조사 의뢰 추진

1) 그간 추진내용

□ 관련중앙부처 대책회의 실시 : '98.7.3, 14:00

- 장 소 : 축산국장실

○ 참석자

- 농림부 축산국장(회의주재), 축산물유통과장
- 재경부 생활물가과장, 국세청 조사3과장, 공정위 경쟁촉진과 담당사무관

○ 회의내용

- 축산물 소비자가격 실태조사 및 고가격 유지업체 세무조사, 가격담합행위 단속대책 협의

○ 회의결과 : 붙임 참조

□ 농림부주관으로 각 시·도(시·군)에서 업소별 축산물가격 실태조사 실시 공문발송 : '98.7.6

○ 조사기간 : '98.7.6~7.15(10일간)

□ 축산기업중앙회 회장(최맹저)에게 소비자 가격인하 촉구 ('98.7.9, 축산국장)

2) 향후 추진계획

□ 중앙합동 조사반 편성 지방실태조사 상황점검 및 실지조사

○ 조사기간 : '98.7.14~7.16

- 농림부 및 재경부, 공정위, 국세청등 중앙부처, 축협 합동조사

□ 고가격 유지업체 및 가격담합행위 업체 명단 작성 제출 : 7.16 (시·도 → 농림부)

□ 농림부에서 동 명단의 국세청 및 공정위에 통보(7.20)

□ 국세청, 공정위에서 세무조사 및 불공정행위 심사

⇒ 조사결과 세금추징, 언론보도등 조치(8월초순)

< 참고 > 축산물 소비자가격 인하대책 관계부처 회의결과 보고

1. 회의개요

- 시간 및 장소 : '98.7.3(금) 14:00~15:00, 축산국장실
- 참석자
 - 농림부 축산국장(회의주재), 축산물유통과장
 - 재경부 생활물가과장
 - 국세청 조사3과장
 - 공정위 경쟁촉진과 담당사무관
- 회의내용
 - 축산물 소비자가격 실태조사 및 고가격 유지업체 세무조사, 가격담합행위 단속대책 협의

2. 회의결과

- 가격실태조사는 농림부 주관으로 각 시·도·군이 실시
 - 고가격 유지업체 및 가격담합행위업체 명단(기초자료) 작성 (시·도·군이 작성 → 농림부 → 국세청, 공정위)
 - 가격조사시 필요한 경우 각 지방 국세청 물가단속요원 협조
- 관련부처 1명씩으로 구성된 중앙부처 합동 조사반을 7월 중순경 구성, 지방 실태조사 실시
- 언론보도는 탈세업체 적발등 실적이 나온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 추후 축산물 가격인하대책 추진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보고 (국무회의등)

국 세 청

우110-705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8-4 /전화(02)397-1444 /전송(02)722-2482
 소득세과 과장 채 승 용 서기관 김만호 담당자 김성기

문서번호 소득 46210-2092

시행일자 1998. 7. 25.

받 음 농림부장관

참 조 축산국장

선결	[Handwritten]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 · 공람		
	번호	7676			
처리과		1356	과장	[Handwritten]	
담당자	[Handwritten]		계장	[Handwritten]	

제 목 육류 및 우유 가격지도 상황 통보

1. 우리청에서는 산지소값의 하락에 연동하여 쇠고기등 소비자가격이 자율조정되도록 축산기업조합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간담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안내문을 보내는 등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2. 또한 축산물에 대한 세원관리실태 분석과 높은가격을 받는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예고등 적극적인 가격지도 후, '98. 7.20현재 우리청에서 표본적으로 파악한 육류 및 우유소비자가격 동향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식육가격 인하를 위한 조치사항 1부.
 2. 육류 및 우유소비자 가격동향 1부. 끝.

국 세 청 장

식육가격 인하를 위한 조치사항

□ 축산기업 중앙회에 식육가격 자율인하 촉구

- 축산기업 중앙회 주관 식육가격 인하를 위한 제반조치 강구
 - 육류가격 인하 결의대회를 지회별 또는 지부별로 개최
 - '98.7.16부터 쇠고기 소비자가격을 중등육 기준 평균 15% 인하하여 판매키로 의결
- 전국 16개 시·도 지회장 및 임원, 조합원 합동 가격인하 결의대회('98. 7.16~7.28)

□ 지역별 간담회 개최

- 각 지역관할 세무관서(지방국세청, 세무서)별로 간담회 개최하고 가격인하 행정지도
 - 대 상 : 축산기업조합 임원 및 조합원(129회, 3,232명)
 - 기 간 : '98. 7.10 ~ 7.16
 - 내 용
 - 산지소값의 하락에 연동하여 쇠고기등 소비자가격이 자율 조정 인하되도록 지도
 - 고가격 유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가격 담합행위 단속 등

□ 세무서장 공한 발송

- 대 상 : 각 정육점(서울 소재) 5,000여곳
- 내 용
 - 산지 소값 하락에 따른 가격인하 요청
 - 쇠고기 부위별 판매가격 인하율을 각 정육점에 게시하여 소비자가 그사실을 인지하도록 지도

□ 고가격 유지업체 세무조사

- 도축실적자료를 수집하여 한우 산지가격 등락과 관련하여 폭리를 취하는 수집상·중간도매상의 탈루세원 색출
- 정부관련부처 합동조사반 또는 관련단체로부터 고가격 유지업체가 통보될 경우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 추징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이범민

문서번호 축통51550-438
시행일자 1998. 7. 25. (3년)
(경유)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식품국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1998.		
	시간		결	
수	번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목 음식점의 쇠고기 요리 판매가격 인하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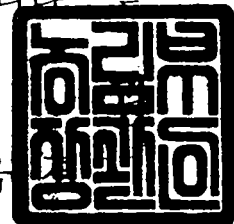
1. 최근 IMF영향으로 사료값 인상, 쇠고기 소비둔화등으로 산지소값 안정을 위해 농림부에서는 소 수매, 쇠고기 소비촉진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지소값은 계속 하락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산지소값동향(큰수소 500kg기준) : ('97.12) 2,276천원 → ('98.3) 2,120 → ('98.5) 2,097 → ('98.6) 2,000 → ('98.7) 1,537(△32.5%)

2. 또한, '98.6.29일 농림부 국정과제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소비자가격 하락은 미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축산물 가격인하에 국세청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축산물 소비자가격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어 식육업소에 대한 고가격 유지업체 조사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기업중앙회의 육류가격 15%인하 결의대회 등의 실시로 소비자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요리(스테이크, 갈비, 불고기, 등심 요리등)의 판매가격 하락이 경직성을 띠고 있어 쇠고기 소비확대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음식점등에서의 쇠고기 요리가격이 인하되어 소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음식점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립 부 장
전 결 축 산 국 장 김 옥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이범민

문서번호 축통51550-438
시행일자 1998. 7. 25. (3년)
(경유)
수 신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참 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1998.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목 음식점의 쇠고기 요리 판매가격 인하 협조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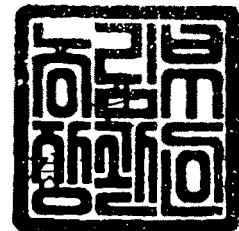
2. 최근 IMF영향으로 사료값인상, 쇠고기 소비둔화등으로 산지소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산지소값동향(큰수소 500kg기준) : ('97.12) 2,276천원 → ('98.3) 2,120
→ ('98.5) 2,097 → ('98.6) 2,000 → ('98.7) 1,537(△32.5%)

3.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쇠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쇠고기 소비촉진 운동전개, 산지소값하락에 상응하는 쇠고기 소비자가격인하를 위하여 고가격 유지업체 및 가격담합행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기업중앙회도 율류가격 15%인하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등 사회 여러부문에서 축산농가를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요리(스테이크, 갈비, 불고기, 등심 요리등) 판매가격 하락이 경직성을 띠고 있어, 귀(회)에 판매가격 인하 협조를 요청하오니 귀회소속 회원사에 널리 전파하시어, 자율인하 결의대회 등을 통한 가격인하로 쇠고기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립 부 장
전 결 축 산 국 장 김 옥



농 립 부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이범민

문서번호 축통51550-441
시행일자 1998. 7. 27. (3년)
(경유)
수 신 받는곳 참조
참 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1998. . .	결	
	시간		재	
수	번호		·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목 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한 회의 개최

1. IMF체제이후 쇠고기 소비부진등으로 산지소값이 계속 하락세에 있어 우리부에서는 쇠고기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고, 판매처를 확대하는 등의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쇠고기 판매가격은 산지소값하락에 상응하는 만큼 하락되지 않고 있어 쇠고기 소비가 확대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계자가 참석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98.7.28, 14:00

나. 장소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다. 참석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길행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지원처장(물류개선부장)

- 축협중앙회 : 조사부장, 판매부장
- (주)한냉 : 판매처장
- 축산기업중앙회 : 지도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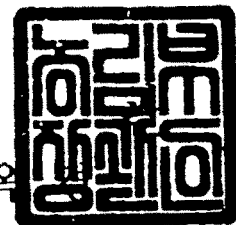
라. 회의안건

- 산지소값변동에 상응한 적정 쇠고기 판매가격 산정
 - 식육판매업 운영제비
 - 산지소값과 유통제비
 - 식육판매업 이율등
- 쇠고기 판매(소비)확대를 위한 방안

마. 준비사항

- 최근 쇠고기 판매가격(농경연제외)
- 회의안건 협의에 필요한 자료, 끝.

농 립 부 장
전 결 축 산 국 장 김 욱



받는곳 : 농병03, 04, 05, (주)한냉, 축산기업중앙회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김정빈

문서번호 축통51550-474
시행일자 1998. 8. 7. (3년)
(경유)
수 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 조 경쟁국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1998. . .	결	
	시간		재	
수	번호		·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목 축산물 소비자가격 담합행위 의심업소 명단 통보

1. 농림부 축통51550-361('98.6.30)호와 관련됩니다.

2. 농림부의 국정과제 업무보고시('98.6.29)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소비자가격 하락은 미미하다고 대통령께서 지적하시면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축산물 소비자가격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바 있습니다.

3. 이에따라 농림부에서 각 시·도를 통하여 축산물 소비자가격 실태는 조사한 결과, 고가격 유지업소 명단을 1차적으로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업소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가격담합 행위업소 명단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전 결 축 산 국 장 김 욱 경

가격담합행위 의심업소 현황

시·도	조사대상업소	가격담합행위	비 고
부 산	1,500개	12개	
강 원	1,370	9	
계	2,870	21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김정빈

문서번호 축통51550-474
시행일자 1998. 8. 7. (3년)
(경유)
수 신 국세청장
참 조 조사국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1998.	결	
	시간		재	
수	번호		·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목 축산물 소비자가격 고가격 유지업소 명단 통보

1. 농림부 축통51550-361('98.6.30)호와 관련됩니다.

2. 농림부의 국정과제 업무보고시('98.6.29)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소비자가격 하락은 미미하다고 대통령께서 지적하시면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축산물 소비자가격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바 있습니다.

3. 이에따라 농림부에서 각 시·도를 통하여 축산물 소비자가격 실태는 조사한 결과, 고가격 유지업소 명단을 1차적으로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업소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고가격 유지업소 명단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전 결 축 산 국 장 김 옥 경

고가격 유지업소 현황

시·도	조사대상업소	고가격유지업소	비 고
부 산	1,500개	48개	
인 천	1,069	53	
대 전	474	2	
경 기	940	25	
강 원	1,370	20	
충 북	441	61	
충 남	1,320	11	
전 남	344	5	
계	7,458	170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504-9436 / FAX 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김정빈

문서번호 축통 51550 -
시행일자 1998. 8. 26. (3년)
(경유)
수 신 받는곳 참조
참 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1998.	결	
	시간			
수	번호		재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 목 : 음식점의 쇠고기 요리 판매가격 인하 (재)협조

1. 관련 : 축통 51550-438('98.7.25)

2. 우리부에서는 산지소값하락에 상응한 쇠고기 소비자가격의 적절한 유지를 위하여 쇠고기 소비촉진운동, 쇠고기 판매처확대 등을 전개하여 쇠고기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으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지적하듯이 음식점의 쇠고기요리의 판매가격의 인하폭이 미미하여 쇠고기 소비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음식점등에서의 쇠고기 요리가격인하 지도를 (재)협조 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최근 쇠고기 소비자가격 관련 보도내용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전 결 축 산 국 장 김 욱 경

받는곳 : 보건복지부장관(식품국장), 재경부장관(국민생활국장),(사)한국음식업중앙회

쇠고기 값인하 축산농가 희망보인다

40%할인에 소비 5배이상 급증
축협전남도지회 '소비촉진' 효과

40%까지 할인판매가 시작돼자 소비자들이 급증. 하루1천5백kg을 사들여 하루에 무려 어른소 3마리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협 쇠고기 할인판매가

부위	가격
트스용	15,400-
안살·등살·새살	16,500(9,600)
종고기살	14,200-
우둔·심도·안다리·등살	14,950(6,000)
우거리	14,000-
안살·새살	14,020(5,100)

쇠고기 가격을 내렸을 때 소비자들과 쇠고기 소비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촉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0일 축협전남도지회에 따르면 쇠고기 값을 인하시키면서 일일 소비량이 최고 5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인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7일 첫주의 하루 쇠고기 소비량은 2백70kg으로 소 한마리도 채 소비하지 못한 실정이었으나 지난 5일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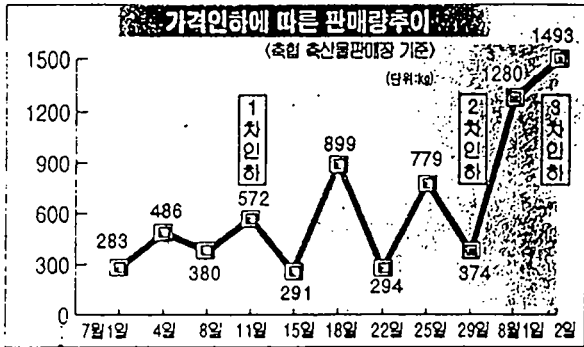
1차 인하가 시작된 지난달 11일 이후에는 하루 4백31kg이 소비됐고 2차 가격인하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에는 하루 5백28kg을 소비해 하루 한마리 이상을 소비하기 시작했다으며 40% 이상 할인한 지난 5일 이후에는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3차 할인이 시작된 주말인 8일에는 이날 하루에만 2천3백kg이 소비돼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조덕진기자

축산물 직거래 매장

매장명	전화번호
축협전남도지회 관매장	(950) 7841-3
축협전남도지회 광주북지점	(525) 4300
축협전남도지회 동읍동지점	(524) 8183-4
축협전남도지회 대인동지점	(225) 0091-4
축협 일곡동지점	(521) 8860
축협 득량동지점	(527) 5401-4
축협 순주지점	(527) 6531
축협 성안동지점	(971) 8256
축협 순흥본점	(228) 4286
- 중앙동지점	(228) 0739
- 화성동지점	(366) 1110
- 북부지점	(268) 6852
- 장동지점	(226) 7011
- 무동지점	(260) 0141
- 공산지점	(942) 5625
- 도산동지점	(942) 9111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김정빈

문서번호 축통51550-507
시행일자 1998. 9. 2. (3년)
(경유)
수 신 국세청창
참 조 조사국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1998.	결	
	시간		재	
수	번호		·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목 축산물 소비자가격 고가격 유지업소 명단 추가 통보

1. 관련 : 농림부 축통51550-361('98.6.30) 및 축통51550-474('98.8.7)호

2. 우리부에서 각 시·도를 통하여 축산물 소비자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입의 고가격 유지업소 명단을 추가로 송부하니 동 업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통계청에서 '98. 8월 조사한 전국의 쇠고기(등심)소비자가격과 우리 부에서 조사하여 고가격 유지업소로 판단되는 서울지역 주요백화점의 축산물 판매가격 현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1. 고가격 유지업소 명단 1부.

2. 전국쇠고기소비자가격 및 서울 주요백화점 축산물가격 현황 각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전 결 축 산 국 장 김 옥 경

축산물 소비자가격 조사 현황보고

(고가격유지업체및가격담합행위업체)

98.8.31 현재

시·도	조사대상업체수(개)	고가격 및 담합행위업체		비 고
		고가격	가격담합	
서울	5,883	<u>1,125</u>	-	추 가
부산	1,500	48	12	
대구	105	-	-	
인천	1,069	53	-	
광주	172	-	-	
대전	474	<u>4</u>	-	추가(2)
울산	150	-	-	
경기	940	25	-	
강원	1,370	20	9	
충북	441	61	-	
충남	1,320	11	-	
전북	40	<u>6</u>	-	추 가
전남	344	5	-	
경북	670	<u>20</u>	-	추 가
경남	184	-	-	
제주	329	186	-	추 가
계	14,991	<u>1,564</u>	21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504-9436 / FAX 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김정빈

문서번호 축통 51550 -
시행일자 1998. 9. 21. (3년)
(경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1998. . .	결	
	시간			
수	번호		재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 목 : 쇠고기 소비자가격 인하 및 추석물가안정 지도 협조 요청

1. 그동안 IMF 사태로 인한 산지소값 폭락에 따라 적극적인 쇠고기 소비자가격 인하로 쇠고기 소비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소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였으나,

2. 아직도 사육두수가 많고 쇠고기 재고도 과잉인 상태에서,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소비확대 애로등 잠재적 수급불안 요소가 많아 향후 소값전망을 낙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특히, 최근 9월들어 쇠고기 소비자가격이 전월에 비하여 약간 상승하고 있으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명절분위기에 편승하여 쇠고기 소비자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격 인상이 쇠고기 소비둔화로 이어져 소값하락을 조장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4. 공정거래가격유지 및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하여 가격인하지도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므로, 식육판매업소 및 요식업소의 한우고기 판매가격이 적정수준이내에서 유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최근 쇠고기 소비자가격 현황. 끝.

농 립 부 장 관

전 결 축 산 국 장 김 욱 경

받는곳 : 나,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시·도 농가자가소비용 의뢰도축실적

('98. 10. 17 현재, 단위: kg)

시·도명	도 축 실 적								비고	
	계		한 우		유 우		육 우			
	두수	중량	두수	중량	두수	중량	두수	중량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21	9,440	20	8,890	1	550	-	-	-	
광주	35	16,783	34	16,228	1	555	-	-	-	
대전	1	246	1	246	-	-	-	-	-	
울산	3	1,306	3	1,306	-	-	-	-	-	
경기	163	80,010	1653	80,010	-	-	-	-	-	
강원	181	78,850	155	65,650	26	13,340	-	-	-	
충북	208	99,389	185	88,713	16	7,066	7	3,610	-	
충남	230	101,070	219	95,580	8	3,930	3	1,560	-	
전북	153	63,413	116	51,673	37	11,740	-	-	-	
전남	422	120,250	403	117,180	19	3,070	-	-	-	
경북	100	41,900	94	39,240	4	1,570	2	1,090	-	
경남	1,356	172,956	273	113,526	1,065	55,530	18	3,900	-	
제주	16	7,995	4	2,255	4	2,250	8	3,490	-	
총계	2,889	793,608	3,160	680,497	1,181	99,601	38	13,650	-	

<별첨 1>

농가소비용 소도축장 설치 및 도축세 조례개정현황

(일일보고 : '98. 10. 17 기준)

보고자 : 축산위생과장 이홍길

시·도	소도축장 설치현황		조례개정 현황	
	누 계	금 일	누 계	금 일
서울	-	-	해당사항 없음	
부산	-	-	완료 : 기장	
대구	-	-	완료 : 대구	
인천	-	-	강화	
광주	-	-		
대전	-	-		
울산	울주1개소	-	완료 : 울산	
경기	여주6개소	-	안양, 파주, 시흥, 평택, 동두천, 광주, 화성, 부천, 광명, 수원, 여주, 포천, 양평(13개소)	
강원	-	-	고성, 태백, 횡성, 양구,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홍천, 평창, 정선, 철원, 인제, 양양(14개 지역)	
충북	충주1, 괴산, 단양, 영동3(6개소)	-	완결 : 11개시·군	
충남	-	-	금산, 예산, 홍성, 당진, 서산, 태안, 서천, 청양, 천안(9개 지역)	
전북	완주2, 진안17, 고창14의산2, 정읍13, 무주2, 순창5부안2(57개소)	-	장수, 김제, 진안, 고창, 익산, 정읍, 무주, 임실, 순창(9개 지역)	
전남	보성3, 담양12, 구례2, 여수2, 곡성3, 완도5(27개소)	-	영광, 목포, 순천등 3개지역외 20개 전지역 완료	
경북	의성2, 청도3, 영양6, 영덕1, 성주1(13개소)	-	경주, 김천, 성주, 칠곡, 울릉등 5개지역외 18개 시·군 완료	
경남	-	-	함양, 고성, 창녕, 마산, 거제, 진주, 거창(7개 지역)	
제주	제주3	-	완료 : 북제주	
총계	113개소	7	106개 지역	3개 지역

※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 도축실적 : 242두(울산1, 전북47, 전남106, 충북3, 경북21, 제주 64)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504-9438 / FAX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 배상호 담당자 : 김대균

문서번호 위생51507-660
시행일자 1998. 7. 4 (3년)
수신 받는곳 참조

취급	FAX	장 관
보존	3년	김 옥 정 기 3
차 관		
국 장	전결	축산물유통나방해
과 장	배상호	
기안	★ 김대균	◎ 양홍근
		협조

제목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개정공포에 따른 자가소비도축제도 운용

1.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축검사신청은 도축장영업자가 축산물검사원에게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최근 쇠고기 소비감소 및 산지 소값 하락등으로 농가에서 자가 소비도축을 원할 경우, 도축검사신청서에 도축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신청토록 하여 도축을 허용하기 바라며,
3. 다만,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판매되는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립 부 장 관

받는곳 : 나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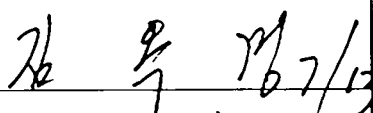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504-9438 / FAX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 배상호 담당자 : 김대균

문서번호 위생51574-626

시행일자 1998. 7.13. (3년)

수신 행정자치부장관

참조 지방세제국장

취급		장 관
보존	3년	 축산정책과장 배상호 축산위생과장 배 기안 ★김대균 ●양희구
차 관		
국 장	전결	
과 장	배상호	
기안	★김대균	
		협조

제목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세제(도축세)감면 협조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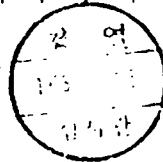
1.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일부농가에서는 도심지에 송아지를 내다버리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소값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에서 자가소비용 도축을 원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축장영업자가 도축검사신청시 농가가 도축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별첨 공문사본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3. 추석·설날등 육류소비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을 허용하기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공동도축장설치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앞으로 농가도축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축시 납부하고 있는 소 도축세를 자가소비용 농가도축에 한하여 면세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시도지사앞 공문사본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504-9438 / FAX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 배상호 담당자 : 김대균

문서번호 위생51574-662
시행일자 1998. 7.21. (3년)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농정국장

취급		장 관
보존	년	김 대 균
차 관		
국 장	전결	축산정책과장 전상호 축산물유통과장 화
과 장	배상호	
기 안	★김대균	◎양춘우



제목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

1. 관련: 위생51507-600('98.7.4)호, 행정자치부세제13400-144('98.7.20)호
2. 소값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가자가소비용도살허용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불임과 같이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를 시도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시도 축산관련부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가 조속 개정시행되어 자가소비용 소 도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과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추진하시기 바라며, 자치단체별 감면조례시행결과를 우리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농가자가소비용 도축에 대한 도축세면제를 악용한 위장도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공문사본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받는곳 : 나

“실업문제 해결하여 IMF체제 극복하자”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전화3703-5010(행)5010/전송3703-5552
세제과 과장 : 권강웅 사무관 : 차도식 담당자 : 심영택

문서번호 : 세세 13400 - 144

시행일자 : '98. 7. 20

경 유 :

수 신 : 농림부장관

참 조 : 축산위생과장

제 목 : 농가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

선 결			지 시		
접	일자	7/20	결 재 · 공 람	국장	권
수	번호			차도식	심
처 리 과	3526			주	민
담 당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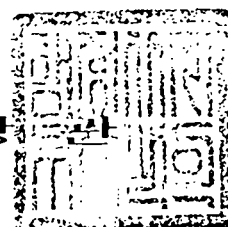
1. 관련문서 : 위생 51574-626('98.7.13)호

2. 위 관련호로 요청하신 농가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
요청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로 감면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농가 자가소비용 도축에 대한 도축세가 면제됨에 따라 농가의
자가소비를 위장한 도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오니 이에 대한 단속의 강화등
필요한 조치를 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특발·광역시(시·군)세감면소례송개성소례(인)통보공문서본 1부. 끝.

행 정 자 치 부 상 관



○○시(○○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0조(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00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2월28일까지 적용한다.

문서번호	S146515141-831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198.8.12

★●축산 위생과장	축산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
이홍건	김옥경	김두	김영태	김재 1988.8.12 장관
협조 : 공보담당관 김성중 축산정책과장 최생태 축산물유통과장 최행규				

농가자가소비용도축특례규칙공포 보고

축 산 국
축 산 위 생 과

여 백

1. 운용요령

- 명 칭 : 도축업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농림부령 제 호)
- 시행기간 : '98. 9. 1~'99. 2.28
- 설치장소 :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부설 창고, 농기구보관창고, 농산물저장창고
- 도축신청 : 농민이 도축장경영자(시장·군수 또는 개인)에 직접 신청

2. 시행상 유의사항

- 도축작업장을 읍·면단위에 최소한 1개소 이상 설치
- 도축시 반드시 수의사 입회검사
- 식육의 병원성미생물(E.coli O-157:H7등)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철저
- 도축의뢰자에게 도축검사증명서 교부
- 농가^(공동)자가소비용 도축만 허용
- 도축세감면을 악용한 정육업자의 농민명의 소도축 ~~차단~~
- 도축세경감 조례개정 조속추진 (각 시군)



3. 유관기관 협조사항

- 시·도 : 특례규칙 시행준비·홍보 철저 및 적극 시행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수거검사 등 위생관리 철저
- 축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 본 특례규칙 유의사항 등 적극 홍보

4. 대국민 홍보

- 특례규칙 시행이전에 홍보자료 작성하여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배포
- 읍·면단위 도축장 설치 현지출장독려

법 제 처

경 법 11240 89 1998.

수 신 농림부장관

제 목 도축업시설기준에대한특례규칙안

1998. 7. 24 위생51574-677로 심의를 요청한 위의 농림부령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하여 송부합니다.

추 신 이 영을 행정자치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뢰를 하실 때에 관공 규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심의필증을 잘리사 원문에 첨부하시고 동시에 원문의 사본 5부를 당처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심의안 1부. 끝.

법 제 처 장

부 령 안 심 의 필 증

No 245

제 목 : 도축업시설기준에대한특례규칙안

이 영 농림부령안은 당처의 심의를 거쳤기에 이문 증명함

1998. 8. 11

법 제 처 장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고기의 소비확대를 통하여 현재 과잉상태에 있는 소의 사육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고기의 소비자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의 성수기인 금년 추석무렵부터 내년 설무렵까지 한시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는 소를 도살·처리하는 도축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심사대상인 규제
없음

도축업시설기준에대한특례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는 소를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소고기의 소비를 늘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축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한 소만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을 다음 각호의 같이 한다.

1. 도축장에는 작업실, 검사·소독을 할 수 있는 간이설비 및 급수 시설을 갖추는 것
2. 검사·소독을 하기 위한 간이설비에는 가축 및 식육을 검사할 수 있는 간이기구와 소독약품 등을 갖추는 것. 다만, 해빙 기구와 약품 등을 검사원이 휴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시공된 것이어야 하며,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갖추는 것
4. 작업실에는 내장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이설비를 갖추는 것

5. 도축장에는 소의 도축·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도축업의 허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도축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그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도축장의 설치장소)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도축업의 작업장은 읍·민사부소,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부설되어 있는 창고나 농기구보관창고·농산물저장창고 등으로서 도축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그 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곳에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규칙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농 립 부

우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 전화(02) 500-2693 / 전송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이홍길 사무관 이길홍 담당자 김용상

문서번호 위생51574 - 038

시행일자 1998. 8. / 3. (3년)

(제 1 안)

· 받 음 내부결재

참 조

취 급		장 관
보 존	3 년	김용상
차 관		
국 장	전 결	법무담당관 이홍길
과 장	이홍길	축산정책과장 이홍길
기 안	★이길홍	축산물유통과장 최형규 축산국향

제 목 : 도축업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 공포

1. 관련 : 법제처 경법 11240-289 호.

2. 도축업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가 송부 되었기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농림부령 제 1,292호. 끝.

(제 2 안)

수신: 행정자치부 장관

제목: 관보게재 의뢰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보게재 구분 : 농림부령
2. 관보게재 건명 : 도축업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 규칙
3. 게재근거 : 관보규정 제 12조

덧붙임: 1. 농림부령 제 1,292 호
2. 부령안 심의필증 원본 1부. 끝.

우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 전화(02) 500-2693 / 전송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이홍길 사무관 이길홍 담당자 김용상

(제 3 안)

수신: 받는곳 참조

제목: 도축업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 송부

1. 관련: 경법 11240-289 호.

2. 도축업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을 관보게재 의뢰하고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덧붙임: 농림부령 1,292 호(11.1부/14.5부) 끝.

받는곳: 가(11,14)

(제 4 안)

수신: 받는곳 참조

제목: 도축업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 공포에 따른 지시.

1. 관련: 위생 51574-649('98.7.16) 호

2. 당면한 소값안정 대책 일환으로 농가 자가소비용 도축을 적극 권장 추진코자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대한 특례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는바,

3. 동규칙 공포에 따른 세부추진 사항을 다음과같이 지시하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광역시장·도지사는 도축작업장을 읍·면 단위에 시장·군수(경영자) 책임하에 1 개소이상 설치운영.

나. 동 규칙 제4조에 명시된 장소 유희시설 등을 이용하여 도축시설을 조속히 설치 활용.

- 읍·면사무소 마을회관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부설된 창고나 농기구보관창고 농산물저장창고 등.
- 장소 장비 급수 폐수처리 문제 발생치 않도록 점검 철저.

다. 도축·위생 검사실시에 철저.

-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검사원 임명 위촉 및 공수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검사원(수의사)의입회 하에 도축검사를 실시 도축축산물의 위생처리에 만전을 기할것.
- 도축 검인기를 충분히 확보하여 부정행위 예방철저.
- 내장의 위생적 처리로 병원성 대장균(O157-H7)등 오염원을 차단하여 식중독 예방철저.
-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 교부로 부정행위 차단.
- 도축신청서 목적란에 “자가소비용” 기재확인.

라. 유관기관·단체 및 주민에게 자가도축에 대한 홍보·지도감독 실시.

- 자가소비용 도축축산물의 상업적 판매행위금지 지도 감독 철저.
- 개정공포 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의뢰인(농가개인)도 도축검사신청 가능홍보.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대체기재 허용)

- 도축·해체시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안전사고 대비 홍보철저.
- 자가소비용 도축을 빙자한 기존 정육업자의 부정행위 지도 감독.
- 농가개인 또는 농가공동의 자가소비용만 도축을 허용됨을 홍보.
- 도축세가 감면됨을 이용하여 정육업자들이 농민의 명의를 빌려 소도축을 하는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우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 전화(02) 500-2693 / ~~축산위생~~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이홍길 사무관 이길홍 담당자 김용상

마. 도축세면제 조례개정 조속 추진.(위생51574-662호.'98.7.21)

-도축세감면 조례시행결과를 우리부에 보고.

덧붙임: 1.도축업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 1부. 끝.

수신처: 나.

(제 5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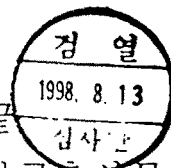
수신: 받는곳 참조

제목: 도축업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규칙 공포

1.관련: 위생 51574-649('98.7.16)호.

2.소고기의 소비확대를 통하여 현재 과잉 상태에 있는 소의 사육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소값 하락에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고기의 소비자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의 성수기인 금년 추석무렵('98.9.1)부터 내년 설무렵('99.2.28)까지 한시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는 소를 도축 사용할수있도록 동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니,

3.관내 유관기관 단체 및 주민등 에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홍보하시어 농가자가소비 도축이 적극 권장 시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도축업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 1부. 끝

받는곳: 농병04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우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 전화(02) 500-2693 / 전송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이홍길 사무관 이길홍 담당자 김용상

(제 6 안)

수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제목: 도축업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규칙 공포

1. 우리부에서는 우유 및 소고기 수급안정을 통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 특례규칙(농림부령 제1,272호)을 제정하여 불임과 같이 시행하는바,
2. 귀원에서는 법 제20조 규정에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으로서 관련업무수행 에 이를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1. 도축업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규칙 1부.

2. 시·도지사앞 시행공문 사본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504-9438 / FAX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이홍길 사무관 이길홍 담당자 김용상

문서번호 위생51574 - 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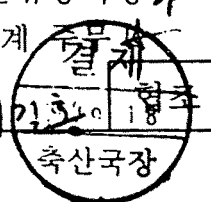
시행일자 1998. 9.19. (5년)

(제 1 안)

받 음 받는곳참조

참 조 축산(농정·축정)과장

취 급		장 관
보 존	5 년	
차 관		김용상 9/19
국 장	전 결	축산물유통과장화
과 장	이홍길	위생1계
기 안	★김용상	●이길홍 9.18



제 목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 운용철저

1. 관련 : 위생 51574-838('98.8.13)호

2. “도축업시설기준에대한특례규칙”(농림부령 제1,292호; '98. 8.19)의 시행으로 최근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 이를 이용한 소도축 증가로 소값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농가소득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언론 및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동 도축장에서 소도축시 공중위생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바,

3. 귀 시·도는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 허가시 본특례규칙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도축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본 특례규칙에 부합되게 설치된 작업장에서 수행되는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은 반드시 검사원(수의사) 입회하에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특례규칙상 시설기준 이외의 사항은 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공중위생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내 언론사, 소비자보호단체, 농가, 소비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경남도에서는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 설치허가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허가가 보류되었던 사례가 있다 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본특례규칙의 제정배경 및 목적을 유념하시어 원활한 운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곳 : 나

(제 2 안)

받 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참 조 : 위생관리과장

제 목 : 농가자가소비용 추진현황 2차 확인점검 실시

1. 관련 : 위생 51574-398('98.8.18)호

2. 위호와 관련하여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 추진현황 2차 확인점검 실시
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이 설치된 지역
에서의 확인점검시는 아래 사항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가소비용 소도축 추진현황 점검표 반드시 작성
- 관내 지역의 언론사, 소비자보호단체, 농민, 소비자 등에 「도축업시설
기준에대한특례규칙」에 의거 설치된 소도축장에서의 도축은 검사원의
철저한 위생관리하에서 수행되며 시설기준이외의 사항은 현 축산물가
공처리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점을 시·군·구에서 적극 홍보토록 요청.

붙임 :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 설치 및 도축세 조례개정 현황 1부. 끝.

(제 3 안)

받 음 : 받는곳참조

제 목 :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

1. 도축업시설기준에대한특례규칙(농림부령 제 1,292호 : '98.8.19)호와 관련
됩니다.

2. 우리부는 소고기의 소비확대를 통하여 현재 과잉상태에 있는 소의 사육
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소값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고기의 소비자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의
성수기인 금년 추석무렵부터 내년 설무렵까지 한시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소비
하는 소를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시설기준에대한특례규칙(농림부령 제 1,292호 :
'98.8.19)호를 제정·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동1번지 / 전화(02) 500-2693 / 전송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이홍길 ~~담당자~~ 김용상

3. 동 특례규칙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도축업시설기준만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시설기준이외의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으며,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은 시장·군수가 관내에 수요가 있을 경우 본특례규칙에 따른 검사소독실, 급수시설, 내장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등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시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도축작업시는 반드시 검사원(수의사)이 입회하여 위생검사실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 우리부는 그동안 본 특례규칙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도에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에 대한 위생감독에 철저를 다하도록 기지시하였고, 두차례의 확인점검계획(1차:'98.8.24~8.29, 2차 : '98.9.21~9.26)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전에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장에서 공중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특례규칙의 제정취지 및 목적을 감안하시어 우리부의 노력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임 : 도축업시설기준에대한특례규칙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받는곳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504-9438 / FAX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이홍길 담당사무관: 이길홍 담당자: 김용상

문서번호 위생51574-033

시행일자 1998. 8. 12. (3년)
(제 1 안)

수신 행정자치부장관

참조 지방세제국장

취급		장 관
보존	3년	김용상 8/12
차 관		
국 장	전 결	결재 1558 협조 축산국장
과 장	이홍길	
기안	★김용상 ●이길홍	

제목 수매 젓소송아지 도축세 경감 협조요청

1. 우리부는 IMF 이후 우유소비감소 및 생산증가로 인한 분유재고 급증, 지속적인 쇠고기 소비감소에 따른 젓소가격폭락 등으로 어려운 낙농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젓소송아지 매입·도축처리사업('98.7.18~8.31)을 실시중입니다.

2. 지방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소도축세는 현재 큰소(체중 500kg) 기준으로 두당 19천원~23천원으로, 우리부의 수매젓소송아지의 수매기준(체중 100kg, 가격 100천원)을 감안하면 지금의 도축세 부과방법으로는 수매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귀부에서는 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매젓소송아지 도축세가 젓소송아지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젓소송아지 육성사업 1부. 끝.

(제 2 안)

수신 받는곳 참조

제목 수매 젓소송아지 도축세 경감 협조요청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504-9438 / FAX 507-3966
축산위생과 과장 : 이홍길 담당사무관 : 이길홍 담당자 : 김용상

1. 축영 51541-425('98. 7.15)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우유 및 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하여 축협에서 젖소 송아지를 수매하여 일정기간 사육후 또는 수매 즉시 도축하는 사업 ('98.7.18~8.31)을 실시하고 있는 바,

3. 동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수매젖소송아지의 도축시 부과되는 도축세를 현행 큰소(체중 500kg) 기준이 아닌 젖소송아지 수매기준(체중 100kg, 가격 100천원)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행정자치부에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시·도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행정자치부앞 시행공문 사본 1부.



농 립 부 장 관

받는곳 : 나

(제 3 안)

수신 축산경영과장

제목 수매 젖소송아지 도축세 경감 협조요청

1.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젖소송아지 수매사업과 관련됩니다.

2. 위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에 붙임과 같이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행정자치부 및 시·도앞 시행공문 사본 각 1부. 끝.

축 산 위 생 과 장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대회 개최계획

1998. 5.

축 산 국

여 백

1. 목 적

- IMF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육의욕 고취와 소비촉진 홍보
- 축산물관련 농·소·상·정 대표의 유통협약체결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값싼축산물 공급 보장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축산물 직거래 확대로 수요저변 확대

2. 행사개요

□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대회(5.26(화))

- 농·소·상·정 축산물 유통협약체결
- 축산대학생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발대식 및 가두행진
- 합리적인 축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축산물 브랜드전 및 시식회 개최

□ 우유 소비촉진 결의대회(5.30(토))

- 농·소·상·정 우유관련 유통협약체결
- 우유 브랜드전 및 시식회 개최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5.26(화) 14:00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대회	축협중앙회	축 협
15:00	축산대학생 소비촉진 캠페인 발대식 및 가두행진	축협중앙회	축산신문
5.29(금)~5.30(토)	축산물 브랜드전	과천 직거래장터	한국농어민신문
5.29(금) 15:00	축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요리강좌	과천시민회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5.30(토) 13:00	우유소비촉진결의대회	중앙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축협, 유가공협회
6.9(화)	닭고기 요리경연대회	63빌딩 국제회의장	양계협회
6.10(수)	우유 요리강습회	플라자호텔	축산신문, 식생활 개발연구소

3. 세부추진계획

□ 5.26(화) 행사일정(장소 : 축협중앙회)

(1부)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대회 (농·소·상·정 유통협약체결)

(2부) 축산대학생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발대식

시간(잠정)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부)			
14:00~14:05	5분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축협중앙회 판매부장)
14:05~14:15	10	대 회 사	축협중앙회장
14:15~14:25	10	치 사	농림부장관
14:25~14:30	5	축산물 소비확대운동 전개방향	대한영양사회장 노숙경
14:30~14:35	5	축산물 소비자가격인하 및 유통개선추진방향	축산기업중앙회장 최맹저
14:35~14:45	10	협약서 서명	
14:45~14:50	5	결의문 낭독	
14:50~15:00	10	폐회 및 휴식	
(2부)			
15:00~15:10	10	축산대학생 대표 소비촉진 결의문 낭독	
15:10~15:20	10	교수단 대표 발대식 대회사	서울대 농대교수 김현욱
15:20~15:30	10	축산대학생 소비촉진 발대식 및 가두행진, 장소이동(축협 본관옆 주차장)	
15:30~18:00	2시간 30분	축협중앙회 → 가두행진	어깨띠, 깃발착용 인도로 일렬 행진 축산대학생 200명, 정부, 축협, 유통업체 관계자 50명

< (1부)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대회 >

- 축산물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 일 시 : '98.5.26(화) 13:00~14:00
- 장 소 : 축협중앙회 대강당(2층)
- 참석대상 : 600명
 - 축산인 : 지역축협조합장(업종조합장),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계육협회, 축산농가등 300명
 - 소비자 : 서울관내 주부, 대학생, 대한영양사협회등 100명
 - 유통인 : 위생처리협회, 축산기업중앙회 및 시·도지회, 중매인협회, 계란상인연합회등 150명
 - 정 부 : 중앙 및 시·도 관계관등 50명
- 주요내용
 - 축협중앙회장 대회사(10분)
 - 농림부장관 치사(10분)
 - 소비자, 유통인 대표 추진방향 설명(각 5분)
 - 협약서 서명 및 결의문 채택(축산단체협회, 소비자대표, 유통인 대표, 농림부)

< (2부) 축산대학생 소비촉진 발대식 >

- 행사주관 : 축산신문사
- 참석대상
 - 수도권 6개 축산대학(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진 및 학생(대학별 교수 2~3명, 학생 30명)
 - 서울대, 고대, 건국대, 강원대, 성균관대, 중앙대(안성)
- 주요내용
 - 축산대학생 대표 결의문 낭독(5분)
 - 교수단 대표 김현욱교수 발대식 대회사(10분)
 - 농림부장관 치사(10분)

- 축산대학생 소비촉진 가두행진
 - 참석대상 : 250명(축산대학생 200명, 정부, 축협, 유통업체 관계자 50명)
 - 행사방법
 - 축협중앙회 → 올림픽경기장 → 소속대학까지 도보·전철 이용 홍보

□ 축산물 브랜드전 및 세미나('98.5.29(금)~30(토) : 과천)

< 축산물 브랜드전 >

- 개최일시 및 장소 : 5.29~30 과천 주말직거래장터에 개설
- 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 출품대상 : 한우(10개업체), 돈육(5), 계육(5), 계란(4), 기타(4)
- 주요내용
 - 브랜드 업체별 상품특성 설명 부스(Booth) 설치
 - 특별 할인판매 실시

< 합리적인 축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개최일시 및 장소 : 5.29(금) 15:00 과천시민회관
- 주관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참석대상 : 주부, 소비자단체 회원, 서울·경기·인천지역 학교 급식 영양사(300명)
- 주요내용
 - 건전한 소비문화와 균형있는 식생활
 - 축산물 구입요령 및 신선도 유지보관방법
 - 축산물을 이용한 요리 강좌

□ 우유 소비촉진 결의대회(5.30(토))

(1부) 우유 소비촉진 결의대회

(2부) 어린이 우유 소비촉진 캠페인 발대식 및 가두행진

시간(잠정)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부)			
13:00~13:05	5분	개회 및 국민의례	
13:05~13:15	10	대 회 사	축협중앙회장
13:15~13:25	10	치 사	농림부장관
13:25~13:30	5	원유저하품 출하억제 및 저능력 우 도태 추진방향	낙농육우협회장
13:30~13:35	5	우유소비확대운동 전개방향	대한 YWCA연합회장 김숙희
13:35~13:40	5	우유가격인하 및 유통개선 추진방향	유가공협회회장 김영진
13:40~13:50	10	협약서 서명	
13:50~13:55	5	결의문 낭독	
13:55~14:20	25	중앙대 대학극장 → 중앙대 부속초등학교 이동	
(2부)			
14:20~14:30	10	어린이 대표 소비촉진 결의문 낭독	
14:30~14:40	10	대회사	중앙대 부속 초등학교 교장
14:40~14:50	10	어린이 소비촉진 가두행진 준비	
14:50~16:00	1시간 10분	가두행진	어린이는 중앙대학 인근까지 가두행진(20분) 낙농인, 유통인, 소비자단체는 고속터미널까지 행진

< 우유소비촉진 결의대회 >

□ 우유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

○ 일 시 : '98.5.30(토) 13:00

○ 장 소 : 중앙대학교 대학극장

- 참석대상 : 430명
 - 축산인 : 낙농육우협회, 낙농농가등 100명
 - 소비자 : 주부, 대학생, 영양사협회등 50명
 - 유통인 : 우유회사등 우유유통인 대표 50명
 - 정 부 : 중앙 및 시·도 관계관등 30명
 - 어린이 : 중앙대 부속초등학교생 200명
- 주요내용
 - 축협중앙회장 대회사(10분)
 - 농림부장관 치사(10분)
 - 축산인, 소비자, 유통인 대표 추진방향 설명(각 5분)
 - 협약서 서명 및 결의문 채택(축산단체협회, 소비자대표, 유통인 대표, 농림부)

4. 행사비용

- 행사비용은 행사주관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쇠고기 소비홍보 계획과 중복되는 행사는 당초 쇠고기 홍보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
 - 쇠고기 소비홍보예산(기금지원분)
 - 합리적인 축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소시모)
: 20백만원
 - 브랜드 한우고기 전시회 및 시식회(농어민신문사) : 20백만원
- 우유 소비촉진대회는 우유 소비홍보비에서 소요예산 일부지원
: 5백만원

< 축산물소비촉진 주요행사 계획 >

축산물소비촉진 결의대회 개최 및 축산대학생 소비촉진 발대식

- 일 시 : '98.5.26(화) 14:00~16:00
- 장 소 : 축협중앙회 대강당(2층)

① 축산물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 참석대상 : 600명
 - 축산인 : 지역축협조합장(업종조합장),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계육협회, 축산농가등 300명
 - 소비자 : 서울관내 주부, 대학생, 대한영양사협회등 100명
 - 유통인 : 위생처리협회, 축산기업중앙회 및 시·도지회, 중매인협회, 계란상인연합회등 150명
 - 정 부 : 중앙 및 시·도 관계관등 50명
- 주요내용
 - 소비자, 유통인 대표 소비촉진 추진방향 설명(각 5분)
 - 협약서 서명 및 결의문 채택(축산단체협회, 소비자대표, 유통인 대표, 농림부)

② 축산대학생 소비촉진 발대식

- 행사주관 : 축산신문사
- 참석대상
 - 수도권 6개 축산대학(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진 및 학생(대학별 교수 2~3명, 학생 30명)
 - 서울대, 고려대, 건국대, 안성산업대, 성균관대, 중앙대
- 주요내용
 - 축산대학생 대표 결의문 낭독(5분)
 - 교수단 대표 발대식 대회사(10분)
 - 농림부장관 치사(10분)

- 축산대학생 소비촉진 가두행진
 - 참석대상 : 250명(축산대학생 200명, 정부, 축협, 유통업체 관계자 50명)
 - 행사방법
 - 도보행진 : 축협중앙회 → 올림픽경기장 → 양재동 시민의 숲
 - 전철역홍보 : 축협중앙회 → 성내역(지하철승차) → 교대역 → 양재역(하차) → 시민의 숲

축산물 브랜드전 및 시식회

- 일 시 : 5.29~30(금,토) 10:00~19:00
- 장 소 : 과천 직거래장터(정부청사앞 잔디밭)

- 행사주관 : 한국농어민신문사(농림부, 축협중앙회, 한냉(주), 축산관련단체 공동주최)
- 참여업체 : 총37개업체, 300여가지 축산물
 - 한우고기(10개업체), 돼지고기(12), 닭고기(5), 계란(2), 유제품(8)
-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행사와 각종 축산물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
 - 이벤트행사 : 길놀이, 테이프커팅, 사물놀이공연, 우유마시기대회, 어린이글짓기대회 등

합리적인 축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일 시 : 5.29(금) 15:00~18:00
- 장 소 : 과천코오롱빌딩 3층 대강당

- 행사주관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한영양사회
(농림부후원)
- 참석대상 : 주부, 소비자단체 회원, 서울·경기·인천지역 학교
급식 영양사(300명)
- 주요내용
 - 건전한 소비문화와 균형있는 식생활
 - 축산물 구입요령 및 신선도 유지보관방법
 - 축산물을 이용한 요리 강좌

우유소비촉진 결의대회

- 일 시 : '98.5.30(토) 12:00
- 장 소 : 서울가동초등학교(서울 송파구 가락동)

① 우유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

- 참석대상 : 450명
 - 생산자 : 낙농가, 낙농관련조합, 낙농육우협회등 70명
 - 소비자 : 주부, 대학생, 소비자, 영양사등 150명
 - 유통인 : 유가공업체 우유유통인등 50명
 - 정 부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30명
 - 어린이 : 초등학교생 150명

○ 주요내용

- 축협중앙회장 대회사(5분)
- 농림부장관 치사(5분)
- 축산인, 소비자, 유통인 대표 추진방향 설명(각 5분)
- 협약서 서명 및 결의문 채택(축산단체협회, 소비자대표, 유통인 대표, 농림부)

② 어린이 우유소비촉진 행사

- 초등학생 대표의 우유글짓기 낭송 및 결의문 낭독
 - 우유장학금 글짓기대회('97) 입선작 낭송
- 우유 시음회(참석학생)

③ 우유소비촉진 가두행진 및 캠페인 실시

- 우유소비촉진 가두행진 실시
 - 서울 가동초등학교에서 문정동 로데오거리까지 도보 행진
 - 소비촉진 프랭카드를 들고 리후렛을 배포하면서 홍보
- 우유 소비촉진 가두캠페인 행사
 - 장소 : 로데오거리(서울 송파구 문정동)
 - 참여업체 : 유가공협회 회원사 5개업체, 서울우유·목우촌우유
 - 행사내용 : 우유 무료 시음회 및 홍보리후렛 배포

④ 전국 초등학교 우유영양교육 및 우유 음용행사

- 전국 초등학교에서 행사당일 1교시 이후 10분간 우유영양 강의 및 우유 음용행사 일제 실시(대한영양사회 주관)

축산물 유통 협약서

우리 축산인과 소비자, 유통인 그리고 정부는 생산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하락을 막기위해 축산인 스스로 생산 조절과 부정축산물의 출하와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가격을 산지 가격과 연동시켜 소비를 확대하며 축산물 가격을 지지하고, 축산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다음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1. 축산인은 IMF 경기영향으로 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두수 감축과 자가사료 활용 등을 통한 비용절감에 적극 노력한다.
2. 소비자는 축산물 가격하락과 재고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인을 돕기위해 축산물 소비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3. 유통인은 정부의 유통개선 대책 및 소비촉진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산지가격에 연동하여 소비자가격을 인하토록 하고 소비촉진과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한다.
4. 중앙 및 지방정부는 축산물 소비촉진과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노력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10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후 1부씩 보관한다.

1998. 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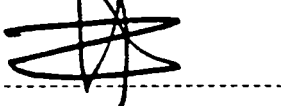
농업인대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송찬원

서명 

농업인대표

대한양돈협회 회장 최상백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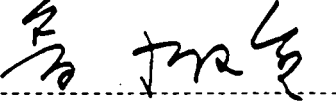
농업인대표

한국계육협회 회장 김홍국

서명 


소비자대표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영숙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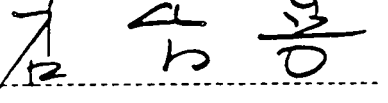
유통인대표

축산기업조합중앙회 회장 최명제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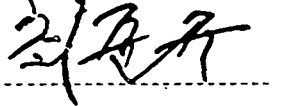
농업인대표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서명 

농업인대표

대한양계협회 회장 최준구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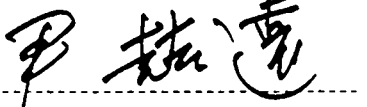
소비자대표

대한YWCA연합회 회장 김숙희

서명 

유통인대표

한국위생처리협회 회장 윤철원

서명 

정부대표

농림부 축산국장 이관용

서명 

□ 또한 대한영양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10천여개소의 초등학교 등 단체급식소에도 축산물위주 식단을 중점편성하여 행사에 적극 참여키로 하였음.

□ 이번 축산물 소비촉진기간동안 개최되는 주요행사는 다음과 같음

- 특히, 5.29~30일동안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앞 주말 직거래장터에서는 한우, 돼지, 닭, 우유등 축산물 우수브랜드 업체 30여개가 참여하여 시식회 및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축산물 브랜드전』 이 개최되어 산지에서 직접 출하된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5.26(화) 14:00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대회	축협중앙회	축 협
15:00	축산대학생 소비촉진 캠페인 발대식 및 가두행진	축협중앙회	축산신문
5.29(금)~5.30(토)	축산물 브랜드전 및 시식회	과천 직거래장터	한국농어민신문
5.29(금) 15:00	축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요리강좌	과천코오롱빌딩 3층 대강당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5.30(토) 12:00	우유소비촉진 결의대회	서울 가동초등학교	축협, 대한영양사회
6.9(화) 13:00	닭고기 요리경연대회	63빌딩 국제회의장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6.12(금) 13:00	우유 요리강습회	플라자호텔	식생활개발연구회

- 농림부는 IMF경기침체에 따른 축산물 소비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축산물 소비촉진기간(5.26~6.12 : 18일간)을 설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농(축산인), 소(소비자단체), 상(유통관련단체), 정(농림부, 시·도) 연대로 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 5월26일 축협대강당에서 개최될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대회에서는 축산인, 소비자, 유통인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협중앙회 송찬원회장 등 10개 단체·협회장 공동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행사에 참석한 전원이 축산물소비촉진을 위하여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 본 대회에 참석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하여 「IMF 경제위기로 피해가 큰 80만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소·상·정이 합심하여 생산비절감, 소비확대, 유통개선과 가격안정이 필요하며 본 대회를 계기로 전국민이 축산물 소비에 앞장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결의대회가 끝난후 서울대, 건국대등 6개 축산대학생과 교수진 250여명은 축산물 소비촉진 도보행진 발대식을 가지고 축협·중앙회에서. 올림픽공원을 거쳐 양재동 시민의 숲까지 소비촉진 도보캠페인을 펼쳤으며, 잠실역, 교대역, 양재역등 주요 지하철역에서도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 정부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12일까지 축산물 소비촉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축산물 브랜드전, 할인판매, 요리강좌 및 세미나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대한영양사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에 있는 학교등 단체급식소 1만여개소에서도 축산물 소비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5.29~30일동안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앞 주말 직거래장터에서는 한우, 돼지, 닭, 우유등 축산물 우수브랜드 업체 30여개가 참여하여 시식회 및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축산물 브랜드전」이 개최되어 산지에서 직접 출하된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지소값 하락과 육류 소비자가격이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육류판매업자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결의대회

□ 개 요

- 주관 :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전라북도지회
- 일시 : 1998. 7. 23. 10:30
- 장소 : 축협도지회 2층 회의실
- 참석 : 150 명

□ 인하계획

- 시 기 : 1998. 7. 23일부터(일부식육업자는 7. 16일부터 시행중)
- 인하폭 : 15 %
※ (현행) 7,000원/600g → (조정) 6,000원/600g

□ 결의내용

- 정부의 축산정책을 신뢰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 육류 소비자가격은 산지가격과 연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쇠고기 가격을 15%인하 판매한다.
- IMF등 경기침체의 어려움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촉진과 육류 유통 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한다
- 육류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식육의 안정유통과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는 식당,수퍼,편의점의 육류유통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 IMF등 경기침체의 어려움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축산물 유통판매를 시행하려함을 저극 반대한다.

결 의 문

최근 산지 생재가격의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등의 보도로 인하여 우리 육류판매업계가 정부 및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육류가격 안정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IMF체제하에 농민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구축과 건전한 육류 유통 정착 및 육류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함과 쇠고기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슈퍼나, 편의점과 식당에서도 식육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농림부의 발표는 위생 적인 축산물 유통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식육판매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업권 수호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당국의 축산정책을 적극 신뢰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는 식육유통업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어려운 국가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쇠고기의 소비자가격이 원료육 구입가격에 비례하여 판매가격이 연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생산농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7. 16부터 쇠고기 소비자 가격을 15% 인하하여 판매기로 결의한다.

하나, 육류유통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식육의 안전유통과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며 쇠고기 판매가격 인하에 도움이 되지않는 식당, 슈퍼, 편의점의 유통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IMF등 경제전반의 어려움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축산물 유통판매를 시행하려함을 적극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육류 소비자가격 인하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 IMF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고 전 회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98년 7월 23일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전라북도지회 회원 일동

<피켓> 내 용

육류 소비자 가격을 15% 인하 한다

정부당국의 축산정책을 적극 신뢰한다

생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식육,수피,편의점의 유통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소비 촉진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축산물 유통
판매를 시행하려함을 적극 반대한다

전북일보

'98. 7. 23



축산기업 전북도지회, 쇠고기값 인하 결의

정육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축산기업전북도지회(지회장 유재진)는 23일 오전 시군지부장과 회원, 도 축산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도지회 회의실에서 '육류가격 15% 인하 결의대회'를 갖고 쇠고기 소비자 가격을 15% 인하 판매키로 했다. / 이준훈기자

한우고기 특별 할인행사 안내

1. 행사기간 : '98. 8. 5(수) - 8. 14(금)(10일간)
2. 행사주관 : 축협중앙회
 - 후원 : KBS, MBC, SBS
3. 행사품목 : 한우고기(상등급 및 중등급)
4. 행사가격 : 불임참조
5. 판매장소 : 축협중앙회 직영매장(23개) 및 직거래장터
6. 주요행사 내용

○ 국회직거래장터 행사

- 장소 : 국회 후생관앞
- 기간 : '98. 8. 5(수) - 8. 6(목)(09:30 - 18:00)
- 행사품목 : 한우고기 및 부산물, 돼지고기등 기타축산물
- 판매방법 : 부위별, 등급별로 현장판매

○ 한우고기 전화주문 판매

- HOME SHOPPING 방식의 전화 주문판매
- 기간 : '98. 8. 5(수) - 8. 14(금)(10일간)
- 판매방법 : 한우고기 현물 및 교환권 병행판매 실시하고 대금은 신청시 계좌에 입금
- 배송 : 10kg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서 본인 희망시 택배실시

○ 한우고기 교환권 판매

- 기간 : '98. 8. 5(수) - 8. 14(금)(10일간)
- 한우고기 교환기한 : '98. 8. 31까지
- 판매장소 : 축협중앙회 전국금융점포 및 직영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 상품권 교환 판매장소 : 축협중앙회 직영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한우고기 특별할인 행사가격

(단위 : kg/원)

품 목	고 급 육 (상 등 육)	일 반 육 (중 등 육)
안 심	13,000	9,000
꽃 등 심	14,000	9,500
등 심	13,000	9,000
체 끝	13,000	9,000
목 심	9,000	8,000
양 지	9,000	8,000
사 태	9,000	8,000
우 둔	8,000	7,000
설 도	8,000	7,000
앞 다 리	8,000	7,000
찜 갈 비	9,000	8,000

한우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결과 보고

1998. 8.

축협중앙회

여 백

한우고기 특별할인 판매 행사 결과 보고

I. 행사목적

한우고기를 대폭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대국민 쇠고기 소비층 조성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가격의 산지가격과의 연계파급 효과

대대적인 소비홍보로 정체된 한우고기 판매촉진 및 축산농가 사육 불안 심리 해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쇠고기 소비기반 구축 및 산지소값 안정 기여

II. 추진개요

1. 한우고기 할인판매

· 한우고기를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판매

· 국회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전국 우리회 직영매장(23개소) 및 직거래장터에서 판매

· 기간 : '98. 8. 5(수) - 8. 14(금)

· 품목 : 한우고기 상등급, 중등급

(○) 국회직거래장터 행사

· 장소 : 국회 후생관앞

· 기간 : '98. 8. 5(수) - 8. 6(목)(10:00 - 18:00)

· 행사품목 : 한우고기(2,3등급) 및 부산물, 돼지고기, 우유, 계란

· 판매방법 : 부위별, 등급별 세절판매

2. 한우고기 교환권 판매

(○) 기간 : '98. 8. 5(수) - 8. 14(금)(10일간)

(○) 한우고기 교환기한 : '98. 8. 31까지

(○) 교환권 판매장소 : 축협중앙회 전금융점포, 직영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 교환권 사용장소 : 축협중앙회 직영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3. 한우고기 전화주문 판매

() Home Shopping 방식의 전화 주문판매(☎ 224 · 8151 ~ 60)

() 기간 : '98. 8. 5(수) - 8. 14(금)(10일간)

() 판매방법 : 한우고기 현물 및 교환권 병행판매 실시하고 대금은 신청 시 계좌에 입금

○ 배송 : 10kg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서 본인 희망시 택배실시

III. 행사결과

1. 한우고기 판매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판매		전화주문판매			상품권판매		합 계	
	두 수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매수	금액	두 수	금액
서울	1,387 (32)	2,412,907 (54,926)	8	51	568	13,042 (461)	260,375 (14,710)	1,537 (40)	2,673,850 (69,636)
지방	871	1,516,339	-	-	-	5,515	97,730	927	1,614,069
계	2,258 (32)	3,929,246 (54,926)	8	51	568	18,557 (461)	358,105 (14,710)	2,464 (40)	4,287,919 (69,636)

주) 1. 판매두수는 두당 1,740천원 기준 환산

2. ()내는 국회직거래 장터 행사실적임

※ 행사전.후 판매실적비교

구 분	행사전1일평균(a)	행사중1일평균(b)	차이(b-a)	증가율
두 수	48	226	178	370%
금 액(천원)	140,220	392,925	252,705	180%

2. 추진상 문제점

- 가. 특별할인 판매행사 방송등 홍보시 특수부위(등심, 안심)소량생산으로 인한 조기품절 가능성 설명 및 판매원의 서비스 제고 미흡
- 나. 소비자들의 특수부위 선호 및 집중구매로 동부위 제한 판매에 따른 고객 불만야기
- 다. 시행 초기 예상치 못한 구매고객 폭증에 대비한 판매물량 확보 미흡
- 라. 집배센타의 가공능력 한계(1일100두수준)로 수도권 부족물량을 확보키 위해 나주, 고령 및 전주등에서 구매 일부물량 가공후 서울, 인천등으로 원료육 수송시 폭우등으로 적기 배송에 애로

3. 향후 보완 과제

- 가. T.V등 홍보시 일부 선호품목의 조기품절 및 제한판매 불가피성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 나. 충분한 원료육 사전확보 및 가공체계 완비
- 다. 판매장 및 집배센타의 인력 보강과 판매원의 서비스 교육 강화
 - 화성 및 인천사업소 등의 인력을 판매장 및 집배센타에 추가 배치하여 판매물량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 라. 자회사, 회원조합등 축협 전판매장을 총망라한 판매망 확대로 소비자의 구매편의 제고
- 마. 적자보전 대책 강구
 - 원가이하 대폭할인(40-60%)판매로 인한 적자보전 방안 강구
 - 손실추정액 : 928,928천원
 - ※ 377천원(두당손실액 3등급기준)×2,464두(판매량)=928,928천원
 - 또는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폭을 NO마진선으로 추진
 - 원료육에 대한 순매입원가 수준

IV. 추진성과

1. 한우고기 소비부름 조성

- 국회직거래 장터를 시발점으로 T.V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한우고기 소비 캠페인을 통하여 대국민 한우고기 소비부름 조성
- 순수 한우고기 우수성에 대한 소비의식 고취

2. 대형유통업체 및 일반식육점의 한우고기 판매가격 인하 유도

- 회원조합(193개 조합중 149개 조합), 축협유통(14개매장) 및 한냉직영 매장에서 우리회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할인판매 행사에 동참
 - 백화점, 한화유통 및 하나로마트등 대형유통업체들도 '98. 8. 7부터 최고 40%정도 판매가격 인하 판매
 - 한화유통은 갤러리아 백화점7개소와 수도권소재 30개 매장에서 30%정도 인하 판매(한우3등급 불고기12,000원/kg→8,300원/kg)
 - 안동황우촌(강남구 대치동소재)에서도 28%정도 인하 판매
(등심 : 28,000원/kg→20,000원/kg, 불고기: 18,000원/kg→13,000원/kg)
- ※ 쇠고기 소비자가격 변동추이(통계청)

월 일	'98. 7월	8. 5	8. 10	8. 17	비 고
원/kg	14,208	13,138	12,738	12,698	7월대비 10%정도 하락

3. 산지소값의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반등세로 전환 주도

- 한우 수소(500kg) 산지소값이 지난 '98. 8. 3일 심리적 마지노선(1,500천원선)이하인 1,487천원까지 떨어졌으나, 할인판매행사 시작후 반등세로 돌아서 8.17일 현재 1,570천원으로 두당 100천원 정도 상승

- () 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소득 향상 기여
 - '98. 6월말 한우사육두수 : 2,750 천두
 - 두당 평균 소득향상액 : 34.4 천원
 - 전국축산농가 소득향상 기여액 : 946 억원

4.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에 대한 T.V등의 보도로 우리회 판매장 홍보 및 이용고객 증가 기대

⇒ 한우고기 소비확대와 축산농가의 가격 불안심리 해소로 산지 소값 하락세 반전 주도

- 붙임 : 1. 한우고기 일별 매출액 현황 1부
2. 행사전후 소비자가격 및 산지.도매가격 동향 1부
3. 축산농가 소득향상 기여액 1부 “끝”

한우고기 일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일	일반판매		전화주문판매			상품권판매		합 계	
	두수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매수	금액	두수	금액
'98. 8. 5	162	283,109	4	33	371	459	8,385	167	291,865
8. 6	180	312,832	2	8	89	298	8,240	185	321,161
8. 7	203	352,448	1	5	54	451	10,410	209	362,912
8. 8	221	384,347	-	-	-	371	6,890	225	391,237
8. 9	144	250,495	-	-	-	-	-	144	250,495
8. 10	210	365,302	-	-	-	546	18,200	220	383,502
8. 11	227	394,339	-	-	-	873	20,845	239	415,184
8. 12	239	416,555	-	-	-	1,732	36,550	260	453,105
8. 13	282	491,249	1	5	54	3,247	62,355	318	553,658
8. 14	390	678,570	-	-	-	10,580	186,230	497	864,800
계	2,258	3,929,246	8	51	568	18,557	358,105	2,464	4,287,919

「붙임2」

행사전후 소비자가격 및 산지·도매가격 동향

1. 한우고기 소비자가격

(단위 : kg/원)

품 목	축 협		백화점		하나로마트		
	행사전 가 격	행사가 가 격	행사전 가 격	행사중 가 격	행사전 가 격	행사중 가 격	
상 등 띠	안심	19,500	13,000	34,000	23,800	20,000	18,000
	꽃등심	20,000	14,000	32,000	22,400	23,500	21,000
	등심	19,500	13,000	32,000	22,400	20,000	14,000
	채끝	19,500	13,000	32,000	22,400	20,000	14,000
	목심	12,000	9,000	19,000	13,300	12,500	9,000
	양지	12,000	9,000	19,000	13,300	12,500	9,000
	사태	12,000	9,000	19,000	13,300	12,500	9,000
	우둔	11,000	8,000	18,000	12,300	11,500	8,000
	설도	11,000	8,000	18,000	12,300	11,500	8,000
	앞다리	11,000	8,000	18,000	12,300	11,500	8,000
찜갈비	12,000	9,000	19,000	12,600	20,000	14,500	
중 등 띠	안심	13,000	9,000	20,000	14,000	13,500	10,000
	꽃등심	13,000	9,500	23,500	16,450	14,000	10,500
	등심	12,000	9,000	23,500	16,450	13,000	10,000
	채끝	12,000	9,000	19,000	13,300	13,000	10,000
	목심	10,000	8,000	14,000	9,800	10,500	8,000
	양지	10,000	8,000	14,000	9,800	10,500	8,000
	사태	10,000	8,000	14,000	9,800	10,500	8,000
	우둔	11,000	7,000	13,000	9,100	10,000	7,000
	설도	11,000	7,000	13,000	9,100	10,000	7,000
	앞다리	11,000	7,000	12,000	8,300	10,000	7,000
찜갈비	12,000	8,000	15,000	10,500	12,000	8,000	

2. 산지 및 도매시장 경락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한우수소 500kg 기준

2) 도매시장경락가격 : 한우수소 B3 기준

일	산지가격 (천원)	도매시장 경락가격(원/kg)			비 고
		서울공판장	고령공판장	나주공판장	
'98.7.10	1,738	5,513	6,485	7,966	
7. 20	1,672	5,153	6,319	7,051	
7. 30	1,498	4,578	5,803	5,324	
8. 1	1,490	4,603	6,186	5,639	
3	1,487	4,883	5,673	5,884	
4	1,495	5,029	5,821	5,703	
5	1,490	5,417	5,545	6,230	
6	1,501	5,635	5,843	5,773	
7	1,503	5,427	5,694	5,622	
8	1,511	5,515	5,402	5,455	
10	1,511	5,453	5,657	5,525	
11	1,523	5,577	5,764	5,568	
12	1,532	5,408	5,591	5,954	
13	1,541	5,694	5,791	5,833	
14	1,556	5,677	5,877	5,901	
17	1,570	5,689	5,799	5,486	

축산농가 소득향상 기여액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1세미만			1 - 2세			2세이상			합계
	암	수	소계	암	수	소계	암	수	소계	
'98. 6월말 사육두수 (a)	460	598	1,058	305	283	588	1,082	22	1,104	2,750
'98. 7월말 산지가격 (b)	380	443		1,029	1,273		1,574	1,498		
'98. 8. 17 산지가격 (c)	406	477		1,074	1,235		1,617	1,570		
상승폭 (d=c-b)	26	34		45	2		43	72		
소득기여액 (백만원) (e=d×a)	11,960	20,332	32,292	13,725	566	14,291	46,526	1,584	48,110	94,693

여 백

“ 8월 행사시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
추석맞이 한우고기 사은행사 추진 계획

1998. 9.

축 협 중 앙 회

여 백

추석맞이 한우고기 사은행사 추진 계획

I. 기본계획

1. 추진배경

- IMF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축산물 소비는 대폭 감소한 반면 한우출하 물량의 적체로 산지가격이 폭락하여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산지가격에 상응한 소비자가격 연동효과가 미흡하여
- 8월 한우고기 판매가격을 대폭인하한 범국민적인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하여 한우고기 소비분 조성 및 소비확대를 기함으로써 소값안정 및 양축의욕을 고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 행사장소 및 판매물량이 제한된 관계로 한우고기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번 추석을 맞아 한우고기 사은 행사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한우고기 소비확산과 산지소값 회복에 축협이 앞장서고자 함

2. 기본방향

- 한우고기 판매가격을 매입품대에 판매직접비만을 가산한 NO마진 수준으로 판매, 다만 등심, 안심 등 소비자 선호부위에 대한 가격 차별화 반영
- 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등 축협 전판매망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추진
- 한우고기중 생산량이 많고 일반적으로 소비가 많은 상.중등육에 한하여 실시 (특상등육 제외)

3. 행사주체 : 축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
 - 목우촌 가맹점 및 축산물 직매장 참여 권장
4. 행사기간 : '98. 9. 20(일) - 9. 26(토) (1주일간)
 - 불고기, 국거리, 산적용등 제수용품은 추석전까지 행사기간 연장
5. 행사품목 : 한우고기(2, 3등급)
6. 행사가격 : 판매원가 수준으로 판매(붙임3 참조)
 - 행사직전 산지 및 도매시장 가격동향에 따라 조정가능
7. 판매장소 : 축협 전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 목우촌 가맹점 및 축산물 직매장중 참여매장
8. 부대행사
 - 한우고기 선물세트 전화주문판매
 - 3 ~ 5kg 단위로 선물세트 주문제작
 - 택배업체를 활용한 배달서비스 병행실시
 - 한우 수매냉동 포장육 판매
 - 정부의 수매육 방출 재개시 시행
 - 500g ~ 1kg 정도의 소포장육으로 가공 판매
 - T.V. 라디오등 방송매체를 통한 행사홍보
9. 기대효과
 - 한우고기 판매가격 인하유도 및 소비기반 확보
 - 적체된 한우고기 소진 및 산지소값의 확실한 회복
 - 축협의 한우고기 소매유통 선도 및 산지소값 안정의 주도적 입지 확보

II. 세부 추진계획

1. 한우고기 사은판매

가. 행사주관

- 총괄 : 판매사업부(직거래사업단)
- 물량확보
 - 중앙회(자회사) : 집배센터, 공판장
 - 조합 : 집배센터(공판장) 또는 자체확보
- 부분육 가공
 - 중앙회(자회사) : 집배센터, 인천 및 전주사업소, 공판장
 - 조합 : 집배센터(공판장) 또는 자체가공
- 판매 : 중앙회(자회사) 및 조합 직영판매장, 직거래장터
 - 목우촌 가맹점 및 축산물 직매장중 참여매장 포함

나. 계획물량 : 11,000여두

- 대상판매장 : 369개소(중앙회 24, 자회사 15, 조합 330)
 - 목우촌 가맹점(58), 축산물직매장(164) 참여권장
- 매출추정물량 : 개소당 1일 평균 5두

다. 판매가격 : 붙임3 판매가격 참조, 다만 행사직전 산지 및 도매시장 가격동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부위별로 판매가격을 조정시행할 수 있음

라. 판매방법

- 부위별 등급별 구분, 신선냉장육 판매
- 등심, 안심등 소비자 선호부위에 대하여는 다수가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1인당 1 - 2kg 정도씩 제한판매

마. 가공 및 판매인력 총원

- 판매장 및 집배센터(공판장 포함) 추가소요인력은 각 사업소 인력중에서 총원확보
- 판매보조 인력은 필요시 각 부서에서 차출운용

바. 행사계획 홍보

- 프랑카드 제작 부착
 - 판매장 입구 또는 주변
 - 제작문안 : 붙임5 참조
- T.V, 라디오, 신문등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
 - 홍보부 주관으로 실시하되 지방의 경우는 도지회 또는 조합 주관으로 실시
- 소요예산은 자체적으로 확보 추진

사. 행사결과 보고

- 보고기한 : 익일 10:00까지(매일)
- 보고체계
 - 직할 판매장 : 판매장 → 판매사업부(직거래사업단)
 - 시.도지회, 조합판매장 : 조합 → 시.도지회 → 판매사업부
(직거래사업단)
- 보고서식

한우고기 사은행사 판매실적 보고

(단위 : 두, kg, 천원)

구분	도별	구분 (판매장별)	개소수	당일 판매			누계 판매		
				두 수	중 량	매출액	두 수	중 량	매출액
냉장육/ 수매육		중앙회			()	()		()	()
		조합			()	()		()	()
		계			()	()		()	()

- 주) 1.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내 표시
 2. 냉장육/수매육으로 구분작성

2. 한우고기 선물세트 전화주문 판매

가. 목적

- 추석을 맞아 한우고기 선물세트 구입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전화주문판매 실시
- 택배는 주문자 실비부담 원칙으로 전문 택배업체에 대행추진

나. 기간 : '98. 9. 20 - 9. 26

다. 배달기한 : '98. 9. 30까지 종료

라. 주문전화 설치 : 중앙회내에 별도 5회선 정도 설치 주문접수

마. 배송 : 중앙회의 배송지시에 의거 인근 판매장에서 담당

바. 선물세트 제작내용 (상등육 기준)

구분	내용물	세트 중량	판매가격	포장재료	택배료
갈비1호	갈비3kg	3kg	39,000원	종아박스+ 부직포가방	개 당 7,000원
갈비2호	갈비5kg	5kg	64,000원		
등심1호	등심3kg	3kg	62,000원		
등심2호	등심5kg	5kg	102,000원		
혼합1호	갈비,국거리,장조림 각1kg	3kg	37,000원		
혼합2호	등심,국거리,장조림 각1kg	3kg	45,000원		
혼합3호	갈비2kg, 등심,국거리, 장조림 각1kg	5kg	70,000원		
혼합4호	등심2kg, 갈비,국거리, 장조림 각1kg	5kg	77,000원		

※ 판매가격은 행사직전 산지 및 도매시장 가격동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한우 수매 냉동 포장육 판매

가. 계획물량 : 5,000여두

나. 판매가격 : 농림부 권장가격

다. 포장단위 : 개당 500g - 1kg 정도의 소포장

라. 가공 : 인천, 화성, 전주, 부산사업소 및 자회사 육가공공장

마. 가공비용 처리

○ 가공비용 : 730원/kg (수매육 군납가공비용 기준 다만, 가공수수료164원/kg은 차감)

○ 수매육 공급원가에 동가공비용을 가산하여 판매장(조함포함)별 이관 조치

바. 공급체계

부위별 포장육 주문(판매장) → 취합(사업소) → 포장육가공

(사업소) → 배송(판매장)

※ 포장육 수송비는 판매장 부담

4. 한우고기 사은판매 행사 홍보

가. 주관 : 홍보부 (협조 : 판매사업부)

나. 홍보방안

○ T.V, 라디오등 방송사와 협조 회장 인터뷰등 방영 추진

○ 부수적으로 홍보전단 배포등 한우고기 우수성 홍보병행 추진

○ 프랑카드 및 어깨띠 제작 착용으로 행사분위기 조성

5.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행사안내

○ 대상 : 정부, 국회, 정부투자기관, 대기업체, 노총 및 각종 사회단체

○ 내용 : 지난 8월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보답으로 추석을 맞아 사은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번 행사가 한우고기 소비확산과 산지소값 회복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붙임1 참조)

- 붙임 : 1. 추석맞이 한우고기 사은행사 협조문 1부
2. 추석맞이 한우고기 사은행사 계획 1부
3. 추석맞이 한우고기 사은행사 가격 1부
4. 한우고기 사은행사 장소 1부
5. 프랑카드 및 어깨띠 문안 1부 “끝”

「붙임1」

추석맞이 한우고기 사은행사 협조문

IMF 체제하에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각 기관장님께 한우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다시한번 부탁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은 환율상승으로 배합사료비는 크게 상승한 반면 육류소비 가 격감하여 생산과잉으로 아직도 소값은 전년대비 30%나 폭락한 상태 이며,

특히 WTO협정상 보조금 지원한도에 막혀 9월 1일부터 소수매 마저 중단되어 소값회복에 걸림들로 작용하고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산지가격 하락폭 만큼 소비자가격이 인하되지 않아 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리라는 기대가 희박한 차제에

저희 축협에서는 지난 8월 한우고기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하하여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기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들 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로 인해 산지소값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9. 20일부터 9. 26일까 지 다시 실시하는 사은행사는 구매불편을 덜어드리고 산지소값의 확고 한 회복을 위해 저희 축협 전조직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 입니다.

불우이웃돕기, 고객선물, 위문품 등을 한우고기로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고, 임직원들에게 “한우고기 한 번 더 먹기 운동”을 권장하여 다시 실시하는 사은행사가 한우고기 소비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축협은 지난번 행사를 거울삼아 축산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신선한 축산물을 제공하도록 유통구조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관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8. 9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회 장 박 순 용

「붙임2」

추석맞이 한우고기 사은행사 계획

1. 한우고기 사은행사

- 기간 : '98. 9. 20 - 9. 26 (1주일간)
 - 대상 : 한우고기 상등급 및 중등급
 - 판매가격 : 붙임참조
 - 판매장소 : 축협 전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 판매방법
 - 부위별 등급별 구분, 신선냉장육 판매
 - 등심, 안심등 소비자 선호부위에 대하여는 다수가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당 1 - 2kg 정도씩 제한판매 실시
- ※ 수매냉동 포장육은 정부의 방출재개시 병행판매

2. 한우고기 선물세트 전화주문판매

- 기간 : '98. 9. 20 - 9. 26 (1주일간)
 - 배달기한은 '98. 9. 30까지 종료
- 주문전화번호 : (02) 224-8151
- 선물세트 내용 및 판매가격 (상등육 기준)

구분	내용물	세트중량	판매가격	포장재료	택배료
갈비1호	갈비3kg	3kg	39,000원	종이박스+ 부직포가방	개 당 7,000원
갈비2호	갈비5kg	5kg	64,000원		
등심1호	등심3kg	3kg	62,000원		
등심2호	등심5kg	5kg	102,000원		
혼합1호	갈비,국거리,장조림각1kg	3kg	37,000원		
혼합2호	등심,국거리,장조림각1kg	3kg	45,000원		
혼합3호	갈비2kg, 등심,국거리, 장조림 각1kg	5kg	70,000원		
혼합4호	등심2kg, 갈비,국거리, 장조림 각1kg	5kg	77,000원		

※ 판매가격은 행사직전 산지 및 도매시장 가격동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추석맞이 한우고기 사은행사가격

(단위 :kg/원)

품 목	축협판매장 가격(a)	행 사 가격(b)	차 액(b-a)		
			금액	비율 (%)	
상등급	안심	24,000	19,000	△5,000	△20.8
	꽃등심	25,000	19,500	△5,500	△22.0
	등심	24,000	19,000	△5,000	△20.8
	채끝	24,000	19,000	△5,000	△20.8
	목심	12,500	11,000	△1,500	△12.0
	양지	12,500	11,000	△1,500	△12.0
	사태	12,500	11,000	△1,500	△12.0
	우둔	11,500	11,000	△500	△4.3
	설도	11,500	11,000	△500	△4.3
	앞다리	11,500	11,000	△500	△4.3
	찜갈비	15,000	12,000	△3,000	△20.0
중등급	안심	15,000	12,000	△3,000	△20.0
	꽃등심	17,000	12,000	△5,000	△29.4
	등심	14,000	12,000	△2,000	△14.3
	채끝	14,000	12,000	△2,000	△14.3
	목심	11,000	9,500	△1,500	△13.6
	양지	11,000	9,500	△1,500	△13.6
	사태	11,000	9,500	△1,500	△13.6
	우둔	10,500	9,500	△1,000	△9.5
	설도	10,500	9,500	△1,000	△9.5
	앞다리	10,500	9,500	△1,000	△9.5
	찜갈비	15,000	11,000	△4,000	△26.7
부산물	사골	13,000	12,000	△1,000	△7.7
	꼬리	11,500	10,000	△1,500	△13.0
	도가니	10,000	9,000	△1,000	△10.0
	잡뼈	4,500	4,000	△500	△11.1

※ 행사가격은 행사직전 산지 및 도매시장 가격동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부위별 판매가격이 다를수도 있음

한우고기 사은행사 장소

1. 중앙회 및 자회사 매장

구분	판매장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비고
중앙회	성내점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02)476-9437	02)224-8065	
	서초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4-1	02)596-0837	02)596-0839	
	상계점	서울 노원구 상계동 746-1	02)952-1347	02)952-1349	
	사당점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6-20	02)525-6174	02)598-3583	
	목동점	서울 양천구 목동 406-21	02)644-6101	02)644-6103	
	중곡점	서울 광진구 중곡동 93-2	02)201-8367	02)201-8369	
	마포점	서울 마포구 공덕동 404	02)3272-4707	02)704-7108	
	중랑점	서울 중랑구 상봉2동	02)209-6464	02)209-6466	
	삼선점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334번지	02)921-5561	02)921-5563	
	인천점	인천 남구 주안8동 1464-23	032)422-6377	032)438-1022	
	수원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0331)31-8555	0331)31-8576	
	춘천점	강원 춘천시 온의동 515	0361)243-8107	0361)243-8108	
	청주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50-2	0431)57-6464	0431)57-6463	
	대전점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92	042)489-7325	042)489-7327	
	전주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34-17	0652)242-1156	0652)242-1160	
	익산점	전북 익산시 모현동 1가 272-1	0653)858-6573	0653)858-6574	
	광주점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8-2	062)950-7841	062)950-7898	
	대구점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248-1	053)754-7357	053)754-7358	
창원점	경남 창원시 중앙동 99-3	0551)83-5601	0551)83-4883		
부산점	부산시 남구 대현1동 1729-5	051)627-2183	051)627-2185		
자회사	방배점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5-3	02)523-6528	02)523-6528	
	은평점	서울 은평구 구산동 1-1	02)353-3458	02)353-3459	
	청담점	서울 강남구 청담동 43-9	02)517-6642	02)517-6643	
	역삼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12	02)501-2438	02)501-2439	
	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86	02)871-4106	02)871-4107	
	가락점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5	02)431-4697	02)431-4697	
	안양점	경기 안양 동안구 관양동 1422-10	0343)24-4026	0343)24-4027	
	수영점	부산 남구 광안3동 1060-7	051)757-5093	051)757-5094	
	광주점	광주 서구 월산동 964-1	062)363-3415	062)363-3416	
	대림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88	02)835-8518	02)835-8519	
	상도점	서울 동작구 상도동 373-55	02)824-8664	02)824-8665	
	강서점	서울 강서구 등촌동 13-2	02)3661-0983	02)3661-0984	
	도봉점	서울 도봉구 방학동 283-2	02)3493-0361	02)3493-0362	
	분당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0342)703-4000	0342)703-4001	
성동점	서울 성동구 행당동 299-1	02)291-4686	02)291-4696		

※ 회원축협 매장은 전국 중소도시에 33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2. 직거래 장터

구 분	개장일	행 사 장 소	개 장 시 간
광역 장터	9.25 - 26 (매주금.토)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뒤 탄천공원	10:00 - 19:00
	“	서울 양천구 목1동 오목공원옆	“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축협 서울사업소	“
	“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종합청사앞	“
	9.20, 9.25-26 (매주금,토,일)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가구단지 입구	“
미니 장터	9.21(월)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10:00 - 18:00
		서초구 반포동 주공3단지 아파트	“
	9.22(화)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 아파트	“
		서대문구 홍제2동 한양아파트	“
		은평구 대조동 삼성아파트	“
	9.23(수)	관악구 봉천동 관악현대아파트	“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아파트	“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2차 우성아파트	“
	9.24(목)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
		성동구 행당동 성동구민회관	“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

「붙임5」

프랑카드 및 어깨띠 문안

□ 프랑카드

○ 본부 및 판매장 입구
(9m x 110cm)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추석맞이 한우고기 사은판매

'98. 9. 20 - 9. 26 축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축협

○ 장터용
(6m x 90cm)

IMF돌파, 한우고기 사은판매

'98. 9. 20 - 9. 26 축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축협

○ 공 용

축산농민 살리기, 한우고기 사은판매

'98. 9. 20 - 9. 26 축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축협

고향의 맛과 정이 담긴 한우고기 선물세트

축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축협

□ 어깨띠

- 앞면

한우고기 한근 더 구매하여 축산농가 돕자!

- 뒷면

한우고기먹고 힘내고, IMF돌파!

- 앞면

축산농민은 제값보장

- 뒷면

소비자에게 값싼 신선식품을

추석 한우고기 할인행사 판매실적

('98.9.21 ~ 9.27)

(단위 : 두, M/T, 백만원)

		판 매 두 수	판 매 량	매 출 액
추	중앙회	1,087	228.1	2,778.1
	자회사	118	31.6	352.3
협	조 합	1,953	429.1	4,412.8
	계	3,158	688.8	7,543.2
(주) 한냉		115	23.0	230
합 계		3,273	711.8	7,773.2

Ⅲ . 홍 보 및 보 도 자 료

1. 보도자료 배포
2. 보도내용

여 백

보도자료

- 제공일 : 1998. 7. .
- 제공자 : 농림부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 과 장 : 김남철, 최형규
- 사무관 : 이상수, 민연태
- 전 화 : 504-9434~9437

제목 :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

< 보도요지 >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7.13일 IMF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유 및 쇠고기의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을 발표함

□ 대책 주요골자

< 우유수급 안정대책 >

① 젓소 송아지(초유떼기)는 축협을 통하여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구매

② 착유 젓소의 10%에 해당하는 젓소 저능력우 3만두를 8월말 까지 농가자율도태 지원

③ 우유소비확대를 위하여

- 백화점·슈퍼등 대형업소에 대하여 직거래 확대(공장도 가격에 운반비·이윤등 최소비용만 가산시켜 싸값에 판매)
-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마진이 높은 업소는 세무조사를 의뢰
- 「범국민적 남북한 어린이용 분유보내기 모금운동」 및 「우유한잔더마시기 운동」 적극 전개
- 국방부 군납우유 및 학교급식 공급량 확대 추진

④ 우유수급 전망

-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 우유수급은 금년 10월말부터 공급과잉현상이 해소
 - 분유재고는 내년 6월말경 적정 수준에 도달 전망

< 쇠고기 수급안정 대책 >

소비촉진 방안으로

- 슈퍼, 편의점, 식당의 식육판매 허용 등 쇠고기 판매처를 대폭 늘려 판매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유도
- 가격담합행위나 폭리업소에 대한 국세청등 관계부처 단속 강화
- 농가의되도축 허용조치(7.4)에 이어 추석·설날등 농가의 자가도축 허용과 그 도축세 면세 추진
- 군납과 대일 수출 등 확대

공급조절 방안으로

- 정부의 한우수매는 큰 소 수매를 중단하고 중소 수매를 늘림
- 수매육 방출을 일시적으로 중단

1.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하여 최근 재고과잉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IMF 체제의 영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지고,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여 축산물 소비가 1989년 당시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공급은 경직성 때문에 계속 늘어나 축산물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어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그동안 정부는 소값 하락 방지를 위하여 18만마리의 소 수매 실시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1조 1,100억상당의 정책 자금 지원을 하였으며
- 우유 및 쇠고기 소비확대를 위하여 농·소·상·정 연대의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나, 그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긴급 종합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음

2. 우유 수급안정 대책

□ 젖소 송아지 전량수매에 나서,

- 젖소 송아지(초유떼기)는 축협을 통하여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10만원(축협농장 도착기준)으로 7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수매기로 함.
- 수매된 젖소는 축협 안성목장등 83개 농장에서 2~3개월간 비육시킨 후 소값 동향에 따라 정육·가공육 등으로 공급

□ 자율도태 경비 일부 지급으로 젖소 저능력우 도태 30천두 추진

- 착유젖소의 10%에 해당하는 저능력우 3만두를 8월말까지 농가자율 도태기로 함.
 - 농가별로 배정량을 부과하고 도태 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도태경비 일부 지원금으로 마리당 10만원 지급
 - 전국 도축장에 대하여 도태용 젖소 최우선 도축

□ 백화점, 슈퍼등에서 획기적으로 저가에 구입 할 수 있도록 우유 유통 직거래 추진

- 백화점·슈퍼등 대형업소에서 판매되는 우유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공장에서 직공급 되도록 유도하여 공장도가격에 운반비·이윤등 최소비용만 가산시켜 낮은 값에 판매하는 것을 확대하고,
- 우유 유통체계를 추적 조사하여 과도한 마진을 취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통보, 정밀 세무조사를 의뢰기로 함.
- KBS, 한국복지재단 및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본부 공동으로 『범국민적 남북한 어린이용 분유보내기 모금운동』 및 『우유한잔 더마시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 국방부 군납용 우유 공급회수도 주 6회에서 7회로 늘려 나가도록 함(연간 200ml짜리 150백만 팩 추가 공급)

□ 이러한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유수급안정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금년 10월말부터 우유수급상 공급과잉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며,
- 현재의 16천톤 재고수준의 분유는 남북한 어린이돕기운동(1,500톤) 추진과 금년 하반기 모조분유 수입감소로 분유재고도 내년 6월말까지는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3. 쇠고기 수급안정 대책

□ 산지소값 하락에 연동하는 소비자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쇠고기 판매처를 대폭 늘려

- 현재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만 육류판매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슈퍼, 편의점, 식당(갈비, 가든등)에서도 식육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 판매에 필요한 쇼 케이스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정하여 저가에 공급하되 자존이 어려운 업소에는 용자 알선토록 함

□ 전국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무기한 정밀단속에 들어가기로

-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으며, 이기간중 가격담합행위나 비싸게 받는 악덕 식육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넘겨 구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의뢰함

□ 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을 의뢰할 경우에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기로

- 이 경우 농가에서는 우피를 도축처리 비용으로 제공하게 되면 별도 부담없이 도축할 수 있음

□ 또한, 금번 장마와 혹서가 끝나면 추석 전에서 내년 구정까지 농가에서 자가도축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 현재 특례규정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특례규정이 마련되는대로, 금년 추석이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중

□ 군급식용으로 국방부에 현재 군납되고 있는 한우수매육도 현재 3,040톤(월 340톤)에서 7,120톤으로 4,080톤(한우 5만 두분)을 늘려 내년말까지 추가 공급키로

- 또한, 시장개척 차원에서 소량을 시험수출하고 있는 대일수출 한우고기 물량을 금년 하반기에 확대하여 재고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함.

□ 쇠고기 공급감축을 위하여 한우 수매는 7.18일부터 큰 소 수매를 중단하고 대신 한우 중수소 수매를 대폭확대, 한우 중수소 수매규격을 현행 300~399kg에서 200~399kg으로 낮추어 8월말까지 수매키로 하였음.

- 수매육 방출은 조속한 소값안정을 위하여 7.18 일부터 중단하고 앞으로 수급 및 가격동향을 보아 방출재개 검토

보도자료

- 제공일 : 1998. 7. 22.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과 장 : 최형규
- 사무관 : 민연태
- 전 화 : 504-9436~9437

이 자료는 1998년 7월 일 (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산지소값안정과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한우가임 암소 수매키로

< 보도요지 >

□ 농림부는 지난 7.13일자로 발표한 「우유 및 쇠고기수급안정 긴급대책」에 이어 과잉상태에 있는 한우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하여 사육두수 감축효과가 큰 한우 1세이상 3세미만 가임 암소를 농가가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수매키로 하였음

- 현재 수매중인 중수소(200~399kg)이외에 별도로, 한우1세 이상 3세미만 가임암소(200~350kg)에 대해서는 시가로 수매키로 함

- '98.7.24일부터 지역축협을 통하여 농가신청을 받게 되며, 수매가격은 전국 평균거래시가를 적용하게 됨

□ 농림부는 지난 7.13일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 긴급대책」을 발표하여 쇠고기 공급과잉의 조기감축을 위해 7.18일부터 큰소 수매를 중단하고 중수소 수매를 개시한데 이어 가임암소(200~350kg)수매를 하기로 하였음

- 현재, 하락세에 있는 산지소값과 쇠고기 공급과잉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수소수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감축효과가 큰 가임암소를 수매기로 한 것임

□ 가임암소 수매는 7.24일부터 지역축협을 통하여 농가신청을 받아 7.27일부터 전국 평균거래시가를 적용하여 시행하게 됨

- 가임암소 수매량은 현재 수매중인 중수소를 포함하여 WTO/농업협정문 보조허용한도내에서 실시하게 됨

보도자료

- 제공일 : 1998. 8. .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과 장 : 최형규
- 사무관 : 민연태
- 전 화 : 504-9436~9437

이 자료는 1998년 8월 일 (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소값 오름세로 돌아서

< 보도요지 >

- 그동안 계속 하락되어온 산지 소값은 암소를 중심으로 지난 7월 20일 이후부터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함.
 - 한우 4~5월령 송아지 가격과 350kg중암소가격이 열흘 동안 마리당 평균 25~50천원 상승.
 - 한우암소 500kg기준 마리당가격 역시 열흘째 26천원이나 크게 올라
 - 한우수소 500kg기준 마리당 가격은 150만원선에서 바닥세 형성
- 이번 소값상승은 큰수소 수매중단에도 불구하고 수매육 방출 중단 중수소·암소 수매와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등 등 소값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기능이 정상을 회복해 가는 현상으로 보임
- 앞으로 장마가 끝나고, 휴가철과 추석수요 등으로 현재의 소값수준을 바닥세로 하여 상승될 전망
 - 축협과 한냉에서 자체 판매용(추석 및 연말연시 선물세트용)으로 8월이후에 큰소 36,300두(1일 320두)를 산지가축시장을 통하여 집중 구매할 계획임

□ 지난해 12월부터 환율 폭등과 IMF영향으로 인한 쇠고기 소비 감소로 하락하기 시작한 산지소값은 8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7월 하순부터 오름세로 돌아섬

- 전국 80개 가축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소값 동향에 의하면
 - 7.20일부터 한우 송아지(4~5개월령)와 중소(350kg기준) 가격이 열흘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리당 평균 25~50천원이 각각 상승
 - 한우큰암소(500kg기준) 가격 역시 같은 기간 26천원이 상승
 - 한우큰수소(500kg기준) 가격은 큰수소 수매중단이후 실망대기 물량이 쏟아져나와 단기 급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기물량이 거의 해소되면서 하락폭이 둔화되어 오다가 최근 반등세로 전환
- 과거 광우병 파문, O-157:H7 보도 영향으로 일시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소값이, 회복기에는 송아지 → 암소 → 수소순으로 가격 상승 파급현상이 나타났으며, 최근의 소값상승 분위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음 (규격별 소값 변동내역 별첨).

□ 이번 소값상승은 그동안 소 수매와 범국민적 쇠고기 소비촉진, 소비자가격 인하와 수매육의 시장방출 중단조치 등 정부가 쇠고기 수급안정 비상대책을 추진하여 가축시장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봄.

- 상인이나 농가가 현재의 산지소값을 바닥세로 인식하여, IMF영향으로 사료값등 생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축산농가들의 투매현상이 줄어들고, 상인들도 구매량을 점차 늘림에 따라 과잉공급현상이(광천, 홍성, 김천, 나주 가축시장 등) 어느정도 진정됨과 동시에

- 쇠고기 소비자가격이 7월중에만 전월대비 3.2% 인하되어 실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IMF사태이후 급격히 감소한 소비가 점차 회복되어 가는 추세임
- '97년동기대비 '98년 쇠고기 소비감소율이 1~5월 12.7%, 6월 7.4%, 7월 1.0%로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앞으로 장마철 비수기가 끝나고 하절기 휴가와 추석 수요가 가세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값은 현 수준을 바닥세로하여 전반적인 상승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축협과 한냉이 자체 판매용으로 8월이후 연말까지 큰소 36,300두 (1일 320두)를 상대적으로 소값이 낮은 산지가축시장에서 집중 구매할 계획으로 있고,
- 특히,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농가 자가소비용 도축과 도축세 면제는 농가 소비확대와 자율도태 촉진으로 소값 회복에 기여가 클 것으로 봄.

보도자료

- 제공일 : 1998. 8. 14.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과 장 : 최형규
- 사무관 : 민연태
- 전 화 : 504-9436~9437

이 자료는 1998년 8월 일 (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쇠고기 소비 늘어나고 소값 오름세로 돌아서

< 보도요지 >

- IMF 영향으로 인한 쇠고기 소비급감과 사육두수 과다로 그동안 계속 하락해 왔던 산지소값이 8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최근 강보합 상승세로 전환
 - 이러한 소값상승세는 쇠고기 소비가 1~5월중 전년동기 대비 12.7%나 크게 감축되었으나, 6월 7.4%, 7월에는 1.0%만 줄어드는등 쇠고기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 큰수소 수매중단(7.18)이후 점차 산지출하 대기물량이 해소되면서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임
- 앞으로 할인판촉 등을 통한 소비확대와 함께 추석 선물수요를 겨냥한 백화점, 축협 등의 구매증가와 농가자가도축 시행등으로 산지소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8.1부터 9.6일까지 추진중인 「남북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운동」이 끝나면 그 성과를 보아, 「송아지 북한보내기운동」도 그 가능성에 대해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등과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참고자료 : 최근소값 및 소비동향등

□ IMF 영향으로 인한 쇠고기 소비급감과 공급과잉으로 계속 하락해왔던 산지소값이 8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최근 강보합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음

- 한우송아지(4~5개월령)가격이 7.20일을 최저가격으로 하여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8.13일에는 최저가격보다 50천원이 올랐고, 큰암소(500kg)가격도 7.27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저가격보다 45천원 오름
- 한우큰수소(500kg)가격은 계속 하락세였으나, 지난 8.3일 1,487천원을 바닥으로 하여 반등세로 전환되고 있음
- 과거 광우병 파문, O-157:H7 보도영향 등으로 소값이 폭락하였을 때도 소값반등은 송아지 → 암소 → 수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소값반등현상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

□ 이러한 소값상승세는 계속적인 소비자가격 인하유도로 쇠고기 소비가 점차 늘어나 산지출하 대기물량이 해소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큰소 수매를 중단한 상황에서 시장수급에 의해 가격이 상승한다는데 그 의미가 큼

- 정부의 집중적인 가격인하지도에 힘입어 쇠고기 소비자가격(통계청조사치)이 8.5일현재 작년말대비 11.4%나 하락('97년도 4%하락)되어, 1~5월중에 전년동기대비 12.7%나 크게 감축됐던 소비량이 6월에는 7.4%, 7월에는 1.0%만 줄어들어 전반적인 쇠고기 소비가 예년수준을 회복해가고,
- 수매육 방출중단으로 수매육이 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과잉공급이 진정됨과 동시에

- 적체된 큰수소 대기물량이 해소되어가면서 농가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출하를 자제하면서 소값이 상승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지속적인 소비자가격인하와 축협, 백화점 등의 할인판매에 의한 소비촉진, 추석 선물수요를 겨냥한 백화점 등의 비축수매 및 쇠고기 대일 시험수출, 농가자가도축 허용에 따른 농촌지역에서의 쇠고기 소비증가등으로 산지소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백화점등 유통업체들도 추석을 대비하여 대량 비축구매를 가시화하고 있고,
- 축협과 (주)한냉에서는 추석 제수용 및 선물세트용으로 8~9월중에 1만마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중 36,300두(1일 320두)를 집중구매할 계획임
- 또한, 올 상반기중 28.3톤에 그친 한우 대일수출을 하반기중에는 거세육성우 300두를 포함하여 고급지육 120톤 분량으로 확대추진중임
- 농가 자가도축시 지역별로 간이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특례규정(농림부령)을 이미 제정·고시하여 9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가 자가도축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 아울러 자가소비용과 농가가 도축장에 의뢰하여 도축하는 경우에 도축세를 면제해주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쇠고기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힘입어 소값 회복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

□ 젓소 송아지는 지난 7.18일부터 10만원에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구매토록 하여, 8.13일 현재 8,965두를 구매하였으며, 산지 젓소송아지가격은 10만원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 구매한 송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장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앞으로 조합장에게 수출, 도축, 및 가공용 등으로 자율 처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한편, 과도한 분유재고 해소책의 일환으로 지난 8.1부터 9.6까지 37일간 전국 13개 시·도를 도보 순례하면서 ARS방식으로 성금(목표액 : 50억원)을 모금하여 국내결식아동과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에게 국산분유를 전달코자 하는 『남북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운동』이 끝나는 대로 그 성과를 보아,

- 『송아지 북한보내기운동』도 그 가능성에 대해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등과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보도자료

- 제공일 : 1998. 8. 31.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과 장 : 최형규
- 사무관 : 민연태
- 전 화 : 504-9436~9437

이 자료는 1998년 월 일 (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산지 소값 안정 추가대책 발표

< 보도요지 >

□ 농림부는 이미 예고한대로 소 수매는 8월말까지만 실시

- ① 그대신에 쇠고기 소비의 지속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로 판매하는 정육점과 식당 등에 대한 합동단속과 함께 슈퍼,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의 쇠고기 판매를 늘려나가고,
- ② 축협·한냉으로 하여금 추석맞이 할인판매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 ③ 축협·한냉에서 9.1일부터 9.30일까지 추석선물세트용으로 한우 1만마리를 집중 구매하는 등 연말까지 한우 36,300마리를 구매하기로 하였음.
- ④ 또한, 한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하여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16개 시·군에서 32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하고
- ⑤ 8.31일현재 WTO최소허용보조상 추가수매가능두수 1만 2,000마리내에서, 소값이 하락할 경우 추가로 수매하는 등 소값 동향을 보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함.

□ 이와 함께 농림부는 산지소값이 추석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나, 추석이후에는 다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고 출하기에 달한 큰 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추석전에 출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농림부는 '98년도중 8.31현재 11만 3천두를 수매하여, WTO허용 보조금 한도(약 2,100억원)내에서 큰수소 기준으로 약 1만 2,000마리를 추가수매할 수 있으나, 이미 예고한대로 소 수매는 8월말까지 실시키로 하였다.

□ 그 대신에 쇠고기 소비의 지속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 보건복지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정육점 및 음식점에 대한 가격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고가판매나 담합행위가 있는 정육점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91개소(고가격 170, 담합행위의심업소 21)에 이어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 조사를 추가로 의뢰하고,
- 식당·슈퍼·편의점에서의 식육판매를 계속 장려해 나가는 동시에(7월말~8.22까지 식당37, 슈퍼59, 편의점3 등 총99개소 신규 신고)
- 지난 8월 축협·한냉주관의 할인판매에 이어, 추석맞이 할인판매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격 인하를 주도하도록 하는 한편
- 축협, 한냉으로 하여금 9.1일부터 9.30일까지 추석 선물세트용으로 한우 1만마리를 집중 구매하는 등, 구매물량을 최대한 확대하여 연말까지 한우36,300마리를 구매토록 하고,
- 시험수출에 그쳤던 한우 대일수출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98 상반기 : 28.3톤 → ’98 하반기 : 500톤)

□ 또한 한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하여 지난 7.16일부터 도별 2개 시·군씩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을 32개 시·군으로 확대·실시키로 결정하고,

- 도별로 2개 시·군씩 16곳을 추가하되, 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비가 확보되는 시·군 우선으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 한편, 8.31일현재 WTO 최소허용보조상 추가수매가능두수에 해당되는 12,000마리는 추석 성수기이후 소값이 큰폭으로 하락할 경우, 추가수매를 실시하는등 소값 동향을 보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하였다.

- 아울러 농림부는 산지 소값이 예년의 예로보아 추석까지는 상승할 것이나, 추석이후에는 다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고, 출하기에 달한 큰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추석전에 출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 특례규칙 시행

- 농림부는 지난 7.13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종합 대책”에 포함된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 허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 7. 21 농가공동이용도축업시설기준에관한특례규칙제정(안)을 입안 예고한 후,
 - 입안예고기간(7.21~8.10)동안 법제처등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8.12 행정자치부에 관보게제를 의뢰할 예정이다.
- 동특례규칙 주요내용
 - 시설기준
 - 도축장에는 작업실, 검사·소독 간이설비 및 급수시설 구비
 - 내수성재질의 작업실 바닥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수시설 구비
 - 내장 및 오·폐수 처리위한 간이시설
 - 도축업의 허가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 도축장 설치장소
 -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등 공공시설에 부설되어 있는 창고나 농기구보관창고·농산물저장창고 등
- 시행시간
 - '98. 9. 1 ~ '99. 2. 28간 한시적으로 시행

설 명 자 료

- 제공일 : 1998.7.
- 제공자 : 농림부 축산위생과
- 과 장 : 배 상 호
- 사무관 : 양 흥 구
- 전 화 : 504 - 9438

이 자료는 1998년 7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 감면시행

< 요 지 >

□ 농가에서 자가소비용 소 도축시 도축세 감면시행

- 산지소값 하락에 따라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이용이 허용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축세감면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시 도축세면제 시행

□ 농림부는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 산지소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축을 할 경우 도축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도축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소 시가의 1백분의 1을 징수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18,000원 ~ 23,000원 수준임

□ 감면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축세감면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육류성수기인 추석전부터 설날을 포함한 내년 2월말까지 한 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농가의 자가도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 첫째로, 농가에서 도축장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달리 7.4일부터 직접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조치 되었고, 이렇게 하므로서 종래 정육점에 위탁할 경우부담하는 수수료·세금 등 15만원에서 18만원정도의 제반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 아울러 이번에 시도조례개정을 통해 지방세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우피를 도축자에 제공시 별도경비없이 도축할 수 있으며,
 - 농림부에서는 각 도축장에 해체비용등을 우피로 대체토록 하고 지방세를 면제한 점을 감안 농가에서도축의뢰시 농가에는 비용 부담시키지 말고 우선토록 해주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둘째, 농가에서 직접자가도축 하는것은 흑서가 지나는데로 시행해서 내년구정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할 방침인데 이 경우에는 도축세면제로 농가에서 수의사만 입회시키면 부담없이 자가도축을 할 수 있다.

보도자료

- 제공일 : 1998. 7. .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기축위생과
- 과 장 : 최상대, 배상호
- 사무관 : 남태헌, 임흥구,
- 전 회 : 500-2691~2, 2693~4

이 서류는 1998년 7월 일 (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가 의뢰 도축허용 및 송아지생산안정제 확대실시키로

< 보도요지 >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IMF영향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와 산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과일 두수감축을 위해 농가 의뢰도축을 '98.7.3부터 처음으로 허용
 - 농가가 안심하고 소사육에 전념토록 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을 실시키로 함
 - 우선 7월중에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내년에는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IMF의 영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지고 대량실업자가 발생하여 축산물소비가 1989년 당시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소 약 50만마리기 과일 상태에 있어 정부에서는 약 18만마리를 수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은 계속하락하고 있음
 - 산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농민들은 헐값에 팔고 소비자들은 비싼값으로 사먹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 2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경남 고성 하이 한우축산단지에서 이동 장관실을 운영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소, 돼지고기 수출 확대와 북한돕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 과잉상태에 있는 소, 돼지 두수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금지되어왔던 농가의 의뢰도축을 7월 3일부터 처음으로 허용하는 한편, 추석등 명절 일정기간 동안은 농가에서도 수의사 입회하에 도축 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에서 농가 의뢰도축을 허용함으로써 한우 생산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송아지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금년 7월중 전국 8개도 16개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제공일 : 1998. 5. 26.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과 장 : 최상태
- 사무관 : 정일정
- 전 화 : 504-9436~9437

이 자료는 1998년 5월 26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소·상·정 연대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대회 개최

< 요 지 >

- 농림부는 IMF 경기침체 따른 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축산물소비촉진기간(5.26~6.12)을 설정하고 농·소·상·정 연대로 대대적인 축산물 소비홍보에 나서기로 하였음.
- 5.26일 오후2시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는 김성훈 농림부장관과 축산관련 농·소·상·정 대표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소비확대, 유통개선과 가격안정을 달성하자는 「농·소·상·정 축산물 유통협약」 과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 결의대회 직후 서울대, 건국대등 수도권 소재 6개 축산대학생과 교수단 250명이 축산물 소비촉진 도보행진 발대식을 가졌으며, 도보캠페인과 함께 서울시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축산물 소비캠페인을 실시함.

한겨레신문
9月9日 7面

소값 오름세 뚜렷

500kg 1마리 200만원 눈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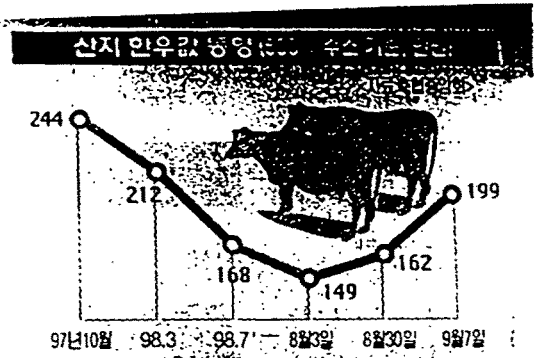
지난해 말부터 떨어지기만 하던 산지 한우값이 뚜렷한 오름세로 돌아섰다.

9일 축협 조사에서, 전국 85개 소시장의 500kg짜리 한우 수소 산지 평균값은 지난달 3일 평균 생산비 306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49만원까지 떨어진 뒤 회복되기 시작해 8월20일 162만원, 30일 185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들어서는 오름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두달째 오름세를 이어가 7일 현재 199만원으로 200만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우 수송아지값도 지난 7월24일 11개월만에 가장 낮은 가격인 43만6천원을 기록한 뒤 지난달 1일 44만4천원을 시작으로 계속 올라 7일 63만원까지 올랐다. 7월말 155만원까지 떨어졌던 어미 암소값도 8월초부터 매일 2만원 정도씩 올라 7일에는 190만원에 거래됐다.



축협은 △사료값 안정에 따른 농가의 출하 자제 △추석 수요를 겨냥한 유통업체의 비축수매 △소비자기적 인하유도에 따른 쇠고기 소비 증가 등을 오름세의 이유로 꼽았다.

농림부는 한동안 농가에서 사료의 부담 때문에 출하저기 체중인 500~550kg에 못미치는 400kg대 소까지 무더기로 조기출하한 상태여서 당분간 산지 소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합석진 기자

韓國經濟新聞
9月9日 15面

한우가격 2백만원선 육박

한우 산지가격이 급속히 회복돼 2백만원선에 근접했다. 지난 7월말 1백50만원 밑으로 떨어져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소값이 추석을 앞두고 한달동안 계속 올라 2백만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축협중앙회에 따르면 한우(5백kg

짜리 수소 기준)는 8월 산지에서 1주일전보다 11만여원 오른 평균 1백98만7천원에 거래됐다. 이로써 한우 산지가격은 지난달 3일 11년만에 최저치인 1백48만7천원을 기록한지 한달만에 50만원(33.6%) 회복됐다. 한우 값은 지난 6월17일

추석 앞두고 수요 급증 한달동안 꾸준히 올라

2백만원선이 무너진뒤 7월29일에 1백5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소값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추석 수요에 대비, 쇠고기 비축에 들어간데다 농민들이 가격상승을 기

대하고 출하를 기피, 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민들은 아직도 소값이 생산비에도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

산지소값 점점 오른다

500kg수소 20만원線 상승
가격인하 따른 소비증가로
과잉공급문제 빠르게 해소

수급불균형 현상으로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았던 산지 소값이 쇠고기 할인판매 및 소비증가에 힘입어 점차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생산비 상승과 소비부진등으로 소 사육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비롯됐던 우리나라 축산업의 붕괴위기가 이젠 어느정도 사라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축협을 비롯, 대형 유통업체와 정육점등은 쇠고기 소비부진으로 매출이 줄어들자 잇따라 판매가격을 인하, 쇠고기 소비를 늘리는데 주력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축협은 이달초 전국 직

영매장과 직거래장터등지에서 한우고기를 평균 30%, 최고 40%까지 할인판매하는 특별판매전을 실시, 판매량이 행사 이전보다 5배이상 늘어났다. 또 한랭직영매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시중의 정육점등도 잇따라 한우고기를 30~40%까지 할인판매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쇠고기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 증가로 쇠고기의 과잉공급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소되면서 산지 소값도 급속히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백kg짜리 한우 수소의 산지 가격은 지난 3일엔 심리적 마지노선인 1백50만원선이 붕괴돼 1

백48만7천원까지 하락했으나 쇠고기 할인판매행사등으로 반등세로 돌아서 최근에는 1백65만~1백70만원선으로 상승했다.

또 쇠고기 도매가격(축협 서울공판장)도 지난달 30일 kg당 4천5백78원으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6천2백40~6천3백원선에서 경락되고 있다.

특히 산지 소값 및 쇠고기 도매가격이 급속히 회복되는 것은 한우고기 소비확대는 물론이고 축산농가의 가격 불안심리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쇠고기 할인판매 행사와 함께 대일 수출증대, 자가도축 허용에 따른 농촌지역에서의 쇠고기 소비증가, 그리고 추석때까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교서 기자

서울신문
8月15日8面

한우값 회복세

500kg 수소 154만원

하락세를 이어가던 한우 값이 반등세로 돌아섰다.

농림부는 14일 한우 값이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148만원선까지 떨어졌던 한우 수소(500kg) 값이 154만원선으로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 어미 암소 값도 지난달 155만원 선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10일부터 회복세로 돌아선 뒤 13일 160만원선에 거래됐다. 송아지 값도 수소 46만원, 암소 41만원 선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 인하로 쇠고기 소비가 점차 늘어나 산지출하 대기물량이 해소된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陳環鎬기자 kyoungho@seoul.co.kr>

韓國經濟新聞
8月17日11面

산지 소값 회복세

수소 155만원 넘어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던 소값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11년만에 1백50만원 아래로 떨어졌던 한우 산지가격(5백kg 수소)이 마지노선인 1백50만원을 넘어 열흘째 오르고 있다.

16일 축협중앙회에 따르면 한우값이 지난 6일 이후 오름세를 지속, 15일 산지에서 1백55만6천원에 거래됐다. 이는 바닥에 달한 지난 1일의 1백49만원에 비해 4.4%(6만6천원) 회복된 수준이다. 한우 산지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1백50만원선이 무너지던 매물이 줄어든데다 축협 한냉 등이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쇠고기 소비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김광현 기자 khkim@

중앙일보
8月27日19面

소값 11개월만에 상승세

올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소값이 최근 큰 폭의 반등세로 돌아섰다.

26일 농림부의 축협 등에 따르면 산지 수소(500kg 기준) 값은 25일 현재 1백73만원으로 지난 8월 이래 최저가(1백48만7천원)를 기록한 지난 3일보다 20여일새 17% 급등했다. 소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소값은 지난해 9월 2백49만4천원까지 치솟았으나 IMF 이후 소비 위축과 축산농가의 투매 등으로 이달 초엔 전년 대비 1백만원 이상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여왔다.

每日經濟新聞
8月17日18面

산지 소값 하락세 주춤

올 들어 하락세를 지속했던 한우 값이 최근들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쇠고기 소비 급감과 사육마리수 과다로 8개월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 왔던 산지 소값이 최근 강보합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한우 수소(500kg) 값은 지난 3일 심리적 마지노선(150만원선) 이하인 148만7000원까지 떨어졌으나 반등세로 전환돼 지난 6일 150만원1000원으로 회복됐고, 이후 하루 8000원 정도씩 꾸준히 올라 최근 154만1000원으로 올랐다.

정육점 고기값 인하 유도

부당가격땀 세무조사 왜곡구조 대대적 단속

정부는 전국 정육점에 대해 고기 판매값 인하를 유도하고 값을 내리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재경부 농림부 국세청 등 정부 3개 부처는 최근 축산물 산지값은 계속 떨어지는데도 정육점 판매값은 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축산물 값안정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6일 전국 시·군

에 협조공문을 보내 정육점 운영실태, 값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계도기간을 정해 정육점의 값 인하를 요구하고, 값을 내리지 않거나 부당한 값을 받고 있는 업소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농림부 당국자는 "소의 산지값은 97년말 500kg 수소 한 마리가 227만원하던 것이 180만원대로 17.3%나 떨어졌는데 정육점 쇠고기 값은 고작 4.9% 내리는 데 그쳤다"며 "왜곡된 값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함석진 기자

韓牛 가격 오름세로 반전

500kg짜리 암소 160만 2천원 거래

6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한우가격이 쇠고기 소비회복 덕분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14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우 수소(5백kg)값은 3월 1백48만 7천원으로 바닥을 친 뒤 오르기 시작해 13일 1백54만 1천원에 거래됐다. 암소(5백kg)도 지난달 27일 1백55만 7천원까지 내려간 뒤 13일 1백60만 2천원까지 올랐다.

또 4~5개월된 송아지도 지난달 20알을 전후해 오르기 시작해 13일 현재 △수송아지 46만 2천원 △암송아지 41만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쇠고기 소비자가격이 5일 현재 작년말보다 1.4% 하락하면서 쇠고기소비 감소세가 진정되는 등 수요가 회복된 때문.

농림부는 축협과 주요 백화점의 한우 할인판매를 계속하고 올 상반기에 28.3t에 그친 대일 수출량을 하반기에 1백20 t.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한국마사회(회장 오영우·吳榮祐)는 최근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2화로 나누어 내던 축산발전기금 올해분 5백24억원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금은 20일 축협중앙회에 전달된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산지 소값 오름세 반전

산지 소값이 8개월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농림부는 14일 쇠고기 소비가 최근 늘면서 산지 소값이 오름세로 반전됐으며 추석을 앞두고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덕수(安德壽)농림부차관보는 이날 『지난 3일 마리당 1백48만 7천원까지 떨어진 큰 수소(500kg)값이 13일 1백54만 1천원으로 회복되는 등 소값이 이달초를 고비로 바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배원기자

‘젓소송아지’ 전량 구매 슈퍼서도 쇠고기 판매

농림부 우유·소값 안정대책 있도록 허용한다.
김동태(金東泰)농림부차관은 13일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농림부는 8월말까지 젓이 안나오는 젓소 3만마리를 도태시킬 계획을 세우고 전국 도축장에서 도태용 젓소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축협은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가가 원하는 생후 일주일된 젓소 송아지 전량을 마리당 10만원에 구매한다.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앞으로 정육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일반식당에서도 냉동 및 냉장 쇠고기 판매를 할 수

젓소 송아지 전량구매 슈퍼서도 쇠고기 판매 농림부 우유·소값 안정대책

축협은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가가 원하는 생후 일주일된 젓소 송아지 전량을 마리당 10만원에 구매한다.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앞으로 정육점 뿐만 아니라 슈퍼나 편의점 일반식당에서도 냉동 및 냉장 쇠고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동태(金東泰)농림부차관은 13일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농림부는 8월말까지 젓이 안나오는 젓소 3만마리를 도태시킬 계획을 세우고 전국 도축장에서 도태용 젓소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이 진기자>

가임암소도 수매 생산감축통해 소값 안정

김성훈장관, 충북이동장관실서 밝혀

농림부는 생산감축을 통한 소값안정을 위해 가임암소도 수매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지난 18일 충북지역 이동장관실을 운영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함께 영세 부업농이 키우는 소를 우선 수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장관은 이날 큰 소 수매를 중단하고

대신 중수소를 수매하는 것 외에 임신가능한 한우(2세)를 수매, 생산감축을 통한 소값이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그동안 18만두를 훨씬 넘는 물량의 한우 큰 소를 수매했음에도 사육두수가 2백75만두를 상회하고 있는데다 소비둔화까지 겹쳐 소값을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의 해결책으로 가임암소를 수매하겠다는 고단위 처방을 발표한

것.

김장관은 그러나 송아지 수매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연계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관은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등 시설투자는 줄이는 대신 기존시설의 내실화에 치중할 것이라면서 이미 시설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농가나 단지는 이미 망해가고 있는 만큼 더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과감히 안락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한겨레신문
7月23日 2面

암소 27일부터 수매

내달말까지...자가도축때 면세도

농림부는 소값 안정을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암소수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암소 수매가격은 수매시점 기준 1주일 동안의 평균 자울거래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수매자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조달된다.

농림부 당국자는 "암소는 도축용 수매육으로는 적당하지 않아 수매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산지 소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한시적으로 수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

다"며 "암소 한마리를 수매하면 2.8마리의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농가의 소 사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에서 자체소비를 위해 도축을 할 때는 도축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축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육류성수기인 추석전부터 설날이 낀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농림부는 지난 4일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농가의 자가도축을 허용했었다. 합석진 기자

소 自家도축 1일부터 허용

직접소비목적 한해

농림부는 27일 '쇠고기 소비확대를 통한 소값 안정을 위해 농가에서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틀 위해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부설돼 있거나 창고나 대기구 보관창고, 농산물 저장고 등에 도축장이란 이영안표를 부착했다.

도축장에는 가축 및 식육을 검사할 수 있는 간이시설과 소의 도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축을 원하는 농가들은 도축장에 상주하는 검사원에게 도축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의사를 입회시켜 도축할 수 있다.

〈苴兼1기자·byen@chosun.com〉

소 자가도축 내달부터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농가에서도 소를 잡을 수 있다. 농림부는 27일 소값안정을 위해 농가에서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도축하는 소에 한해 자가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축업 시설규정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도축을 원하는 농가는 기존 도축장에 상주하는 검사원에게 도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사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도축할 수 있다. 합석진 기자

서울 쇠고기값 10%인하

일반정육점 오늘부터

서울시내 일반 정육점들이 쇠고기 가격을 10% 내린다.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일반 식육 판매업자 조합인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시지회(지회장 문병창·文炳昌)는 28일 고건(高建)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쇠고기판매 촉진을 위해 쇠고기 가격을 자율적으로 10% 내리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한우를 취급하는 서울시내 8,000여개 정육점중 축산기업중앙회 회원인 5,800여곳이 29일부터 일제히 쇠고기 가격을 낮춘다.

중앙회측은 산지 소값의 폭락에 맞춰 1월초이후 세차례 가격을 인하, 현재 판매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16%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우 500kg을 기준으로 한 산지 소값은 지난해 말 240만원에서 7월 중순 150만원으로 38%나 떨어졌으나 이달 들어서는 170만~180만원으로 다소 오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식육판매업체의 가격 인하에 따라,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쇠고기 판매가를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정육점 쇠고기값 최고 13% 내린다

서울시- 31일부터

산지 소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쇠고기 값은 거의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본지 8월 24일자 15면 보도)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서울시내 정육점과 동네 슈퍼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값이 등급에 따라 최고 13%까지 인하된다.

식육판매업자 모임인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시지회(회장 文炳昌)회장단은 28일 "시내 5천8백여 업소들이 쇠고기 상품은 8%, 중등육 이하는 13%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평균 인하율은 10%. 장세정 기자

< zhang@joongang.co.kr >

쇠고기 소비자가격 10%내린다

서울 식육판매업자 결의

서울시내 일반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가격이 10% 인하된다.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일반 식육 판매업자 조합인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시지회(지회장 文炳昌)는 28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고건(高建)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쇠고기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10%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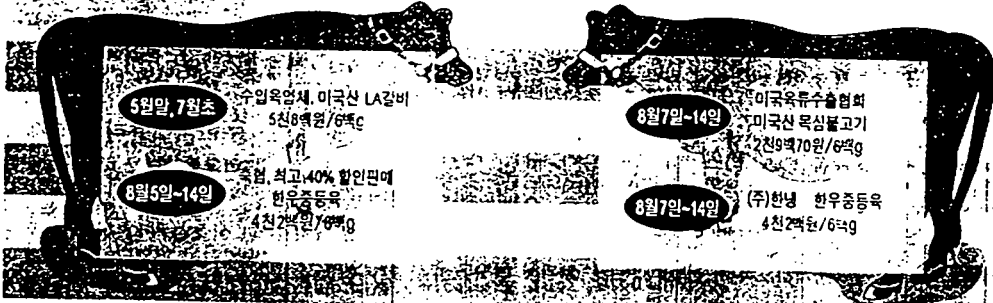
이에 따라 서울시내 1만700여개 식육판매업체중 축산기업중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5,800여 업소는 일제히 쇠고기 가격을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산지 소값의 폭락에 맞춰 지난 1월초에도 쇠고기 판매가격을 10% 내리는 등 3차례 가격 인하를 시도, 현재 쇠고기 판매가격은 작년말보다 16% 정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한우 500kg을 기준으로 한 산지 소값은 지난해말 240만원에서 7월 중순에는 150만원으로 38%까지 폭락한뒤 이달 들어서는 170만~180만원으로 다소오르고 있다.

[박민수 기자]

쇠고기 가격전쟁, 진행과정



5월말, 7월초 수입업체, 미국산 LA칼비 5천8백원/6백g
8월5일-14일 수입, 최고 40% 할인판매 한우중등육 4천2백원/6백g

8월7일-14일 미국육류수출협회 미국산 육심불고기 2천9백70원/6백g
8월7일-14일 (주)한냉 한우중등육 4천2백원/6백g

수입 쇠고기-한우 '세일전쟁'

수입육 한근 3,000원... 한우 4,200원으로 내려

한겨레신문
8월16일 9면

쇠고기값 급속 하락중

한냉한우도 44% 할인... 수입상도 20년전값으로

축협중앙회가 5일부터 한우고기 값을 최고 40%까지 내리자 수입육 판매업자들도 쇠고기 한근을 20년전 가격인 2천원대에 내놓는 등 쇠고기 가격인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육류수출협회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180여개 수입육 매장들은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미국산 고급 쇠고기인 목심 불고기 값을 70~80% 내려 600g 한근을 2970원에 팔기로 했다. 이 값은 20년전인 지난 78년 쇠고기 한근 평균 값인 2866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수입쇠고기의 반격에 맞서 (주)한냉도 한우고기를 최고 44%까지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한냉은 7일부터 14일까지 '축산농가 보호와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파격 할인행사'를 벌여 전국 7개 직영매장에서 한우고기 상등육 동심을 600g 한근에 5400원, 중등육 불고기는 4200원, 빚갈비와 국거리는 48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축협은 5일부터 14일까지 '쇠고기 소비촉진 특별할인행사'에 들어가 전국 23개 직영 판매장에서 한우고기를 최고 40%까지 내려 팔고 있다.

함석진 기자

「자장면 한 그릇 값이면 쇠고기 한 근」. 수입 쇠고기와 한우고기 사이에 가격경쟁이 붙을 뻔하면서 쇠고기값이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축협중앙회가 「쇠고기 소비촉진 특별할인행사」에서 최고 40%의 할인율로 한우를 저렴하게 팔자, 수입육 업체들은 수입육가격을 3천원선(한 근당)까지 쇠고기값을 내렸다. 자장면 한 그릇값에 불과한 가격.

반면 축협중앙회가 14일까지 수서, 목동, 휘경, 고양, 과천 등 5곳의 직거래 장터와 전국 23개 직영판매장에서 팔고 있는 한우값은 중등육 불고기값 6백g(한 근)이 4천2백원.

할과 맞먹지만해도 1만원을 넘던 한우고기값에 비교하면 이 역시 파격적인 가격이다. 소비자들로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가격 전쟁인 셈.

이같은 「쇠고기 가격 전쟁」은 지난 5월말과 7월초 수입

육 판매업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LA칼비를 5천8백원(6백g)의 할인가에 팔면서 촉발됐다. 그러자 축협중앙회가 이번엔 무려 40%의 할인율로 반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수입육업체들은 더 충격적인 가격으로 맞섰다. 미국육류수출협회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전국 1백80여개 유통업체 매장들이 7일부터 14일까지 미국산 고급쇠고기인 목심 불고기를 2천9백70원으로 팔기로 결정한 것. 현재 수입쇠고기 시장은 IMF 이후 재고물량이 쌓이면서 일부 수입업체들이 수입량만큼 변동참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정도의 침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육의 값싸기가 계속 이어지자 한우를 파는 국내 민간업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한냉의 경우 7일부터 14일까지 「축산농가 보호와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파격 할인행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7개 직영매장에서 한우고기 상등육 동심을 5

- ◇쇠고기 싸게 살수 있는곳
- ▲축협(02-224-8772): 14일까지, 직거래장터 5곳, 직영매장 23곳.
- ▲미국육류수출협회(02-720-1885): 7~14일, 전국 1백80여개 수입육매장.
- ▲주한냉(02-822-1610): 7~14일, 직영매장 7곳, 전국 70개 가맹점.

천2백원, 중등육 불고기는 4천2백원, 빚갈비와 국거리는 4천8백원에 판매하겠다고 나섰다.

축협측은 「특별 할인행사」에서 당초 판매 예상액의 두배 이상이 팔려나갔다. 전날은 7만으로도 가격할인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턱없이 비싼 쇠고기값에 사달려온 소비자들로서는 이만한 날씨가 아닐 수 없다.

< 韓京記者·yooniae1@chosun.com >

韓國經濟新聞
8月7日 15면

쇠고기 파격 할인행사 한냉, 한우등심 44% 등

(주)한냉은 7일부터 14일까지 '축산농가 보호 및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파격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행사기간중 전국 7개 직영매장에서 1근(6백g)에 9천7백20원인 한우고기 등심을 44% 할인, 5천4백원에 판다. 국거리는 6천원에서 4천8백원으로, 불고기용은 6천원에서 4천2백원으로 값을 낮춰 판매한다. 문의(02)815-6458 김광현 기자 khkim@

한국일보
8월7일 10면

「쇠고기 한근이 자장면값」 수입육 2,970원에 팔기로

축협중앙회가 한우고기를 최고 40% 할인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육판매업자와 국내의 주한냉이 가격인하 경쟁에 나섰다.

미국육류수출협회와 미국산 쇠고기 판매중인 180여개 매장은 7-16일 미국산 고급 쇠고기인 목심 불고기를

2천9백70원(6백g)으로 팔기로 했다. 이는 수출로 촉발된 쇠고기값을 4,200원(6백g)에 비해 무려 30%가량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인하를 무색케 할 IMF 이후 재고물량이 쌓여 팔려나갔고, 전날은 7만으로도 가격할인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턱없이 비싼 쇠고기값에 사달려온 소비자들로서는 이만한 날씨가 아닐 수 없다.

정희경 기자

농수축협 추석맞이 할인판매

제주 과일·육어류·제수용품등 최고 46%까지

제주도내 농·수·축협이 추석을 앞두고 시중가의 절반 가까운 값으로 대규모 할인판매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농협은 오는 25일부터 10월4일까지 농협지역본부의 '신토불이 창구'와 회원조합 직판장 3개소, 하나로마트 55개소 등 70군데 판매장에서 '98한가위 우리농산물 기획판매전'을 마련, 할인판매에 들어간다.

수협은 21일부터 10월4일까지 제

주시연동 주산물백화점에서 추석맞이 할인판매·행사를 연다. 제주옥돔 등 10여종의 어류를 26%까지 할인 판매한다.

축협은 지난 14일부터 10월3일까지 도내 12개 축산물판매장에서 '기쁨두배'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육류는 5~10%,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은 최고 46%까지 할인 판매한다. <제주=金榮洲기자 che-juky@seoul.co.kr>

한우고기 노마진 세일 축협

축협은 추석을 앞두고 27일까지 1주일 동안 한우고기 소비 촉진과산지 소값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한우고기 노마진 할인' 행사를 연다.

행사기간 중 축협은 중앙회 직영매장 24곳을 비롯해 전국 550여 축협매장에서 한우고기 특상등급, 중등급 모든 품목을 7~24%, 평균 20% 싸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 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탕거리와 산적용 부위는 다음달 3일까지 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한우 증등육 한 근을 4800원, 등심 상등육 한 근을 1만2000원, 짬갈비 1kg을 1만3000원에 살 수 있다.



축협 한우고기 세일
에서 27일까지 실시된다.

축협중앙회의 '한우고기 노마진 세일' 첫날인 21일 서울 성내동 본점에서 고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추석맞이로 열린 행사는 전국 550개 매장에서 27일까지 실시된다. <崔海國기자 seaworld@seoul.co.kr>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후생관앞에서 축협중앙회 주최로 열린 할인 쇠고기구입 행렬 '쇠고기 소비촉진 국회직거래장터'에 값싼 쇠고기 구입을 위해 많은 고객들이 몰려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李政世기자>



한우고기 40% 할인판매 축협이 한우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국 23개 매장에서 한우고기를 최고 40%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동희



“축산물 가격안정”

이은구기자

26일 서울 축협중앙회에서 김성훈농림부장관(가운데)과 축산농민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모여 축산물 유통 개선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싸고 좋은 것 팔기’ 협약



IMF 이후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26일 축협중앙회는 생산농민·소비자·상인·정부관계자 등과 함께 소비확대·유통개선·가격안정 등의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유통협약을 체결, 선포했다. 최승식 기자

여 백

2. 우유수급안정 및 분유재고 소진대책

여 백

목 차

I. 최근 우유수급 안정대책 추진실적	157
1. 우유수급 관련동향	157
가. 젖소사육동향	157
나. 우유수급동향	157
2. 우유수급안정대책	158
가. 생산감축시책	158
나. 우유소비확대추진	158
다. 유업체 및 낙농가 경영안정지원	159
라. 분유재고 감축대책	159
3. 추진성과	160
4. 향후추진계획	160
5. 추진일지	163
II. 공문 모음집	165
○ 원유가격 인상조정	167
○ 유업체·낙농가 경영안정 자금지원	172
○ '98 우유수급 안정대책 시달	175
○ 우유소비확대 협조	193
○ 우유가격인하 협조	198
○ 원유가격 조정	202
III. 홍보 및 보도자료 모음집	205
○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207
○ 장관친서발송	213
○ 리플렛 제작배포	221
○ 보도자료 배포현황	229
○ 보도내용 스크랩	255
○ 기고문	277

여 백

I. 최근 우유수급 안정대책 추진실적

1. 우유수급 관련동향

가. 젖소 사육동향

- 젖소 사육두수는 저능력우 도태 및 송아지 수매 등으로 지난 3월 568천두에서 9월에는 552천두로 2.8% 감소
 - 젖소사육두수 : ('97)544 → ('98.3)586 → ('98.9) 552천두
- 그러나 분유재고 과다 및 소값하락에 따른 낙농산업불황으로 사육농가수도 감소하여 호당사육규모는 3월과 변화가 없음.
 - 사육농가수 : ('97)17.4 → ('98.3)17.1 → ('98.9)16.1천호
 - 호당사육두수: ('97)31 → ('98.3)33 → ('98.9) 33두

나. 우유 수급동향

- '98 상반기까지는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생산량은 1.7% 증가하고, 소비량은 10.9% 감소했으나,
- 7월 부터는 저능력우 도태 및 대대적인 소비확대시책 추진 영향으로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은 증가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분유재고도 지난 5월중순 16,295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10월 중순 현재 10,415톤까지 감소

< 우유 수급 및 분유재고 동향 (주요 8개 업체) >

구 분	'97			'98			증△감(%)		
	1~6(a)	8(b)	10중(c)	1~6(d)	8(e)	10중(f)	d/a	e/b	f/c
생산량(A)	4,313	3,934	4,024	4,386	3,815	3,874	1.7	△3.0	△3.7
소비량(B)	4,308	4,119	4,034	3,838	3,990	4,535	△10.9	△3.1	12.4
B/A(%)	99.9	104.7	100.2	87.5	104.6	117.1			
전국분유재고(톤)	11,220	9,667	7,368	15,930	14,116	10,451	42.0	46.0	41.8

2. 우유수급 안정대책

가. 생산감축 추진시책

□ 젖소 저능력우 도태추진 : 26,834두

- 도태경비 지원 : 10만원/두(목표두수 30,000두의 89% 수준)

□ 원유 위생등급 강화

- 체세포 3등급 페널티 강화 : △30원→△60원

나. 우유 소비확대 추진

- 우유 수급안정을 위한 농·소·상·정 협약체결 및 결의문 채택(5.30)
- 우유 소비캠페인 전개 : 언중실시
 - 각 부처에 협조요청(5.25), 시도·단체별로 캠페인 대대적 추진
- 우유요리 강습회 개최(6.12) : 430명
 - 주최 : 한국낙농육우협회, 축산신문
 - 주관 : 한국식생활연구회
- 초·중·고 교장 및 단체급식소 대표 등에 우유소비 확대요청 장관 친서 발송(3회)
- 우유가격인하로 소비확대 유도(7.1)
 - 축협중앙회 목우촌우유 6.16부터 5.7% 인하
 - 서울우유, 유가공협회 회원사의 소비자가격 6.7% 인하
 - 우유 할인판매 행사 개최(9.7~9.16)
-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군납 및 학교우유급식 확대 조치
-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TV3사(KBS, MBC, SBS) 공익광고 실시 (10.1~10.31)

다. 유업체 및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 362억원(30개 업체)
- 원유가격 인상조정('98.1.1) : 18.4%
- 낙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자금 원리금 상환연기(3개월씩 3차)
- 젓소송아지 매입사업 추진 : '98.7.18~8.30
 - 매입두수 : 17,695두(매입가격 : 10만원/두)

라. 분유재고 감축대책

□ 대북 분유지원 : 877톤

- 한국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분유지원(5~6월) : 96톤
 - 한적, 종교·자선·사회단체에 대북 분유지원 참여요청(5.7)
- Unicef를 경유한 정부차원의 분유지원(추진) : 781톤

□ 수입 모조분유 대신 국산 재고분유 사용 촉진

- 모조분유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유업체에 대한 국산분유 사용 확대
 -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발효유등 제조업체에 국산분유 사용 적극 권장

3. 추진성과

- 그동안 추진된 저능력우 도태 등 생산감축과 교육·홍보 등 소비 확대추진 등의 효과에 기인하여 분유재고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 금년 말에는 당초 추정량 23~25천톤 보다 약 50%가 감소한 11~12천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 6월경에는 적정 재고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 또한, 젓소 송아지 매입사업에 힘입어 3만원에도 팔리지 않던 송아지 가격이 121~170천원으로 상승하였고 길거리에 송아지를 버리는 사례도 없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한우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농가에서는 정부시책에 감사를 표하고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 자조금사업추진
 - 주관 : 한국낙농육우협회
 - 낙농가 조성금액 20억원 목표(원유 kg당 5원씩 3개월간 조성)
- 수입 모조분유 사용업체 등에 대한 국산분유 대체사용 협조

젖소송아지 매입사업 설명자료

□ 추진배경

- IMF이후 우유의 소비량은 감소하였음에도 생산량은 증가하여 분유 재고가 16천톤까지 급증하였으며,
 - 한우가격 하락으로 젖소송아지의 거래도 끊어져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었고,
 - 일부 낙농가는 길거리에 송아지를 유기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과잉되어 있는 공급물량의 감축으로 우유와 쇠고기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낙농가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실시

□ 사업의 성격

- 이번의 송아지 수매사업은 도태에 의하여 생산을 감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폐기시키는 채소나 양파의 경우와 같은 성격이며, 선진국에서도 우유생산쿼타와 소값안정을 위하여 도태시키고 있음
 - 다만, 수매후 바로 도태하면 동물애호문제, 국민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최고 3개월까지만 사육후 처리기로 하였으며, 수매한 송아지는 사육하여 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료대와 약품비만 계산한 월 5만원의 사육비를 계상하였음
 - 또한, 그동안 수매한 17,700여두의 송아지중 53% 수준이 폐사하였는데 이는 수매한 송아지가 면역력이 약한 초유떼기이며 하절기 밀집 사육에 따른 영향으로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나 일반농가의 하절기 폐사율 30% 수준보다는 높음

□ 추진성과

- 가장 적은 비용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 했음
 - 큰소를 수매하면 두당 69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나 송아지는 두당 10~25만원(평균 17만원) 발생으로 가격을 안정시킴
 - 17,700두 수매시 결손액 비교 : (큰소) 122억원, (송아지) 30억원
(수매전후의 가격비교)
 - 한우 큰 수소가격(500kg) : ('98.7) 1,681 → ('98.10) 1,984천원(18% 상승)
 - 젖소송아지(초유때기 암소) : ('98.7) 64 → ('98.10) 114천원(78% 상승)
- 분유재고도 지난 5월 16천톤까지 쌓였던 것이 11천톤으로 감소하였음

5. 추진일지

일 자	추진내용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공업업체, 조합에 대한 지원계획시달 : 326억원 - 용자기간 6개월 연리 8%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수급안정대책 시달 - 우유소비촉진 대책 추진 - 젖소저능력우 도태 추진 - 대북분유지원 추진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소비확대 협조요청 - 정부청사관리소, 정부기관, 단체, 국회(정당), 방송사 등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농·소·상·정 협약체결 및 가두 캠페인 전개 - 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영양사회, 서울YMCA, 한국유가공협회, 농림부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시유)가격인하 협조요청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소비확대 재협조요청 및 원유가격 조정 - 원유위생등급 패널티 강화(체세포 등급 3급 : △30원 →△60원)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시유) 소비자 가격인하(5~7% 수준)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수급안정 추가대책시달 - 젖소저능력우 도태경비 지원(5.25~8.31까지) : 두당 10만원 30억원 - 젖소송아지수매 실시(7.18~8.31까지) -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공익광고 추진 등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분유지원 : 781톤 - 군납 및 학교우유급식 확대조치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및 쇠고기 소비홍보광고(중앙일간지) - 농업을 사랑하는 공무원 모임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할인판매 행사 개최(10일간)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TV3사 공익광고 실시(1개월간)

여 백

Ⅱ . 공 문 모 음 집

여 백

“너와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농 립 부

우 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 500-2689 / 전승 507-3966 / 담당 박홍식

문서번호 축영 51541 - 696

시행일자 1997. 12. 31. (5년)

(경유) (제 1 안)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제목 원유가격 인상 조정

1. 현행 원유가격은 '95.10.16부터 조정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원유의 위생등급을 2차('96.7.1, '97.3.1)에 거쳐 상향조정 한 바 있습니다.

2. 지난 원유가격 조정시행이후의 물가상승과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배합사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므로써 원유생산비가 올라 다음과 같이 원유가격을 인상 조정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니, 귀관내 낙농가·축협(낙협)·유가공업체 및 관련기관등에 알려주어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유가격 조정내역 : 붙임

나. 조정가격 시행시기 : '98. 1. 1.

3. 각 시·도 및 관련기관(단체)은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시유등 유제품의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각유업체(조합)의 경영혁신과 생산비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지도하여 물가안정차원에서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이 계속 안정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낙농가에 대하여는 낙농업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등을 통해 원유의 「품질과 가격」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유가격 인상조정내역 1부. 끝.

받는곳 : 가48, 나1-18, 축산기술연구소, 농병 04,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제 2 안)

받음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식품국장
제목 원유가격 인상조정에 따른 협조요청

1. 현행 원유가격은 '95.10.16부터 조정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원유의 위생등급을 2차('96.7.1, '97.3.1)에 거쳐 상향조정 한 바 있습니다.

2. 지난 원유가격 조정 시행 이후의 물가상승과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므로써 원유생산비가 올라 다음과 같이 원유가격을 인상조정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 가. 원유가격 조정내역 : 붙임
- 나. 조정가격 시행시기 : '98. 1. 1.

3. 귀 부에서는 각 유업체(조합)가 원유가격 인상조정으로 인한 시유등 유제품의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비 절감노력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행정지도를 하여 물가안정 차원에서 우유 및 가격이 계속 안정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유가격 인상조정 내역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제 3 안)

발음 가축위생과장

제목 원유가격 인상조정에 따른 협조

1. 낙농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낙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원유가격을 인상조정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 원유가격 조정내역 : 붙임

나. 조정가격 시행시기 : '98. 1. 1.

2. 각 집유장에 대하여는 원유의 위생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가격 인상후 검사에 따른 낙농가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유가격 인상조정 내역 1부. 끝.

축 산 경 영 과 장

원유가격 인상조정 내역

1. 원유가격 인상조정

구분	등 급	기 준	현 행	조 정	인상율
세 균 수 등 급		개/ml	원/kg	원/kg	%
	1급 A	3만미만	466	553	18.7
	1급 B	3만~10만미만	455	540	
	2 급	10만~25만미만	431	512	
	3 급	25만~50만이하	423	502	
	4 급	50만초과	383	419	9.4
	평 균		454.1	537.7	18.4
체 세 포 등 급	1 급	20만미만	+30	+30	0
	2 급	20만~50만이하	0	0	0
	3 급	50만초과	-30	-30	0
	평 균		△2.3	△2.3	0

주) ①유지방율은 현행대로 3.4기준 $\pm 0.1\%$ 당 11원씩 가감함

②체세포 등급은 현행대로 적용함

2. 조정가격의 시행시기 : 1998. 1. 1.

참 고

<원유의 세균수등급·유지방을별 가격표>

(단위 : 원/kg)

유지방을	세 균 수 등 급					비 고
	1급 A	1급 B	2 급	3급(기준)	4 급	
4.1%	630	617	589	579	496	
4.0	619	606	578	568	485	
3.9	608	595	567	557	474	
3.8	597	584	556	546	463	
3.7	586	573	545	535	452	
3.6	575	562	534	524	441	
3.5	564	551	523	513	430	
3.4	553	540	512	502	419	기 준
3.3	542	529	501	491	408	
3.2	531	518	490	480	397	
3.1	520	507	479	469	386	
3.0	509	496	468	458	375	

주) 유지방을은 현행과 같이 유지방을 3.4% 기준으로 $\pm 0.1\%$ 당 11원/kg씩
가감함

“너와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농 립 부

우 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 500-2689 / 전송 507-3966 / 담당 박홍식

문서번호 축영 51541 - 104

시행일자 1998. 3. 2. (5년)

(제1안)

받음 받는곳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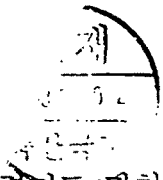
참조

제목 유가공조합·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 시달

1. IMF영향 및 동절기 우유 소비 비수기로 인해 우유 소비가 격감되고, 분유재고가 누적되어 낙농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며,
2. 특히, 유업체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일부 유업체에서 낙농가에 대한 원유대금을 체불하는 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우리부는 유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낙농산업 전체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불임과 같이 유가공조합·업체 지원 계획을 시달하니,
4. 유가공조합·업체별 자금 배정 범위내에서 축협중앙회는 개별 조합을 한국유가공협회는 개별 유업체를 총괄하여 융자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업체의 자금 대출 희망월의 전월 20일한 우리부에 월별 자금 배정(담보 확인분)을 신청하시어 자금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5. 개별 조합·업체에서 대출 실행이 곤란할 경우 그 내용을 우리부에 즉시 통보하시어 대출 곤란한 자금이 낙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파스퇴르 납유농가 지원과 관련, 해당 시·도지사는 조속히 납유 농가별 지원액을 확정하시어 대출 실행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유가공조합·업체 지원 계획 1부 “끝”

받는곳 : 나, 농병04(정영기) ^{축협중앙회} 한국유가공협회



우 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 500-2689 / 전송 507-3966 / 담당 박홍식

(제 2 안)

받음 : 축협중앙회장

참조 : 기금관리부장

제목 : 같은건

1. 축정 41622-116('98.2.24)호와 관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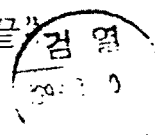
2. IMF영향 및 동절기 우유 소비 비수기로 인해 우유 소비가 격감되고, 분유재고가 누적되어 낙농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며,

3. 특히, 유업체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일부 유업체에서 낙농가에 대한 원유대금을 체불하는 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우리부는 유업체의 자금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유가공조합·업체 지원 계획을 불임과 같이 수립·시달하니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자금 지원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1안 시행문 사본 1부

2. 유가공조합·업체 지원 계획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유가공조합·업체 지원 계획

I. 목적

- 우유 소비 비수기 등으로 인한 유가공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낙농산업 안정 도모
- 유업체의 원유대금 체불 방지 및 낙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등

II. 지원계획

1. 유가공조합·업체

가. 사업주관 : 농림부장관(축산경영과)

나. 지원대상자

- 유가공을 하고 있는 유가공업체(조합 및 업체)
* 단, 지원 자금 용자가 곤란한 업체는 해당 납유농가 지원

다. 지원규모 및 용자조건

- 지원액 : 30,400백만원
 - 유가공조합 : 11,100백만원
 - 유가공업체 : 19,300백만원
- 재원 : 축산발전기금(유가공조합·업체)
- 용자조건 : 용자기간 6개월, 연리 8%
- 자금용도 : 원유대금 등 운영자금

라. 지원방법

- 지원 대상 유업체에서 축협중앙회(축협도지회 포함)에 대출 신청
* '98.3.31일까지 용자 실행이 곤란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의 납유 농가에 지원(업체 지원액 범위내에서 파스퇴르 납유 농가 지원 방식 적용)

“너와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농 립 부

우 427-760 / 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1 / 전화 (02) 500-2690 / 전송 507-3966 / 담당 최염순 /

문서번호 축영 51541-291

시행일자 1998. 05. 19 (5년)

경 유 (제 1 안)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제 목 '98 우유수급안정대책 시달

1. 축영 51541-106('98.3.3)호와 관련됩니다.

2. IMF이후 경기침체로 우유소비는 크게 감소한 반면, 원유생산은 늘어 분유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공업체·조합과 낙농가들이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같은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우려가 큼니다.

3. 우리부는 우유소비 촉진, 원유생산 감축 및 분유재고 소진을 통해 우유수급안정을 기해 나가기 위해 불임과 같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니

가. 각 시·도는 특단의 세부추진대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시·도는~~ 조합별 젖소도태계획을 우리부에 조속히 제출
하여 주시기

나. 농촌진흥청은 젖소도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낙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다. 축협중앙회는 우유소비촉진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
하여 주시기, 아울러 관련단체 및 협회에서도 본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98우유수급동향 및 대책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받는곳 : 가60, 나(1~18), 축산기술연구소, 농갑54, 농병(01·04·05·07), 낙농
진흥회설립준비위원회, 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제 2 안)

받 음 받 는 곳 참 조

제 목 '98 우유수급안정대책 추진 협조

1. IMF이후 경기침체로 우유소비는 크게 감소한 반면, 원유생산은 늘어 분유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공업체·조합과 낙농가들이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같은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우려가 큼니다.

2. 따라서 우리부는 우유소비 촉진, 원유생산 감축 및 분유재고 소진을 통해 우유수급안정을 기해 나가기 위해 불임과 같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니, 본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98우유수급동향 및 대책 1부. 끝.

받 는 곳 : 가 32·35·37·43

(제 3 안)

받 음 받 는 곳 참 조

제 목 '98 우유수급안정대책 추진 협조

1. IMF이후 경기침체로 우유소비는 크게 감소한 반면, 원유생산은 늘어 분유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공업체·조합과 낙농가들이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같은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우려가 큼니다.

2. 따라서 우리부는 우유소비 촉진, 원유생산 감축 및 분유재고 소진을 통해 우유수급안정을 기해 나가기 위해 불임과 같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니, 본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98우유수급동향 및 대책 1부. 끝.



받 는 곳 : 축산신문사, 농어민신문사, 한국식품공업협회, 성원유업(주), 제주우유(주), 엠디푸드코리아(주), 모닝벨유업(주), 파스퇴르유업(주)

농 립 부 장 관

'98 우유수급동향과 대책

1998. 5. 19.

농 립 부

여 백

I. 우유수급현황

1. 젖소사육동향

□ 총 사육두수('98.3)는 568천두로서 '97년말 대비 4.4% 증가

○ '98.3 가임암소는 '97년말보다 4.3% 증가하고, 원유대 인상과 젖소값 하락에 따른 도태지연으로 총사육두수도 증가

- 가임암소두수 : ('91) 341→('96)372→('97)367→('98.3)383천두
- 젖소도축두수 : ('97.1-3) 63→('98.1-3) 53천두(△10천두,△16.7%)

□ 전체 사육농가수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호당 사육두수는 규모화되고 있음

○ 30두이상 사육 전업농가수와 사육두수는 큰폭으로 증가

- 호당평균 총사육두수 : ('91)16→('96)26→('97)31→('98.3)33두

구 분		'91	'96(A)	'97(B)	'98.3(C)	순 증 감	
						C/A	C/B
농가수	전 체	30.2천호	21.1	17.4	17.1	△20.0%	△1.7
	30두이상 (점유비)	3.1 (10.3%)	7.1 (33.6)	7.9 (45.5)	8.5 (49.7)	20.0	7.6
두 수	전 체	496천두	552	544	568	2.9	4.4
	30두이상 (점유비)	143 (28.9)	319 (57.9)	379 (69.6)	421 (74.1)	32.0	11.1
	착유두수	263	286	282	265	△1.4	△6.0
호당사육두수		16 두	26	31	33	26.9	6.5

※ 외국의 호당사육규모 : 일본 46두, 미국 85두, 화란 41두, NZ 217두

□ 젖소두당 산유량이 선진국에 비해 낮음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화 란	덴 마 크
두당산유량	5,882kg/년	6,986	7,478	6,524	6,570

※ 산유능력 김정우군의 산유량('97) : 축협 7,171, 종축개량협회 7,972kg

2. 우유수급동향

가. 연도별 우유수급동향

□ 우유 총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

○ 우유소비증가율 : ('71~'80)21.2 → ('81~'90)13.2 → ('91~'97)3.6%

□ 시장개방 이후 유제품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둔화 추세

○ 모조분유수입량 : ('97.1~3)8,579 → ('98.1~3)5,167톤(△40%)

구 분	'91	'96 (A)	'97 (B)	'98(P) (C)	순 증 감	
					C/A	C/B
공 급	1,935천톤	2,574	2,537	2,558	△0.6	0.8
이 월	23	66	109	86	30.3	△21.1
생 산	1,741	2,034	1,984	2,072	△1.9	△4.4
수 입	171	474	444	400	△15.6	△9.9
수 요 (1인당 소비)	1,869 (43.2kg)	2,465 (54.5)	2,451 (53.3)	2,321 (49.7)	△5.8 (△8.8)	△5.3 (△6.8)
분유 재고	6.6	10.9	7.4	23.7	2.2배	3.2배

나. 최근 우유수급 및 분유재고동향(주요 8개업체)

구 분	'97.5上(A)	'97.12	'98.2	4월(B)	5上(C)	C/A	C/B
소비량①	4,476톤/일	3,659	3,468	4,106	3,921	△12.4%	△4.5
집유량②	4,440톤/일	4,048	4,328	4,551	4,479	0.9	△1.6
(①/②)	101%	90	80	90	88		
분유재고 (全國)	11,144톤	7,441	12,483	15,552	16,113	44.5	3.6

□ 우유소비량은 경기침체·우유값 인상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행락철 등 성수기를 맞아 소폭 회복 추세

○ 소비량은 전년 동기대비 12.4% 감소(시유는 7.6% 감소)한 반면, 전순대비 5.7% 증가

□ 집유량은 도태지연·사육수 증가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

□ 따라서 분유재고는 日 平均 1~2월중에는 90톤수준 증가하였으나 3~5월 중에는 55톤수준으로 계속 증가

○ 분유재고 : ('97.12)7,441→('98.2)12,483→('98.5上)16,113톤

3. 유업계동향

- 분유재고 증가로 유업체(조합)에 원유구입자금(326억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난
 - 분유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유가공업체(서울우유·釜慶우유·매일·비락·빙그레등)와 群小業體는 자금난과 경영압박 증첩 - 대부분 유업체가 낙농가에 대한 유질개선비 지급중단

- 유통기한이 도래되고 있는 재고분유의 처분도 새로운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음
 - 경기침체로 팔리지 않는 우유를 분유로 가공 보관하기 때문에
 - 발효유 원료등으로 자체 분유사용이 어려운 축협조합·업체의 경우 재고분유에 대한 처분부담이 큼(유통기한 : 1년)

- 업체 자율의 분유재고소진을 위한 국산분유 사용 확대 및 젓소 도태 추진
 - < 서울우유 사례 >
 - 분유사용 확대 : 조합원·직원 공급 및 국산분유 대체사용 2,010톤
 - 착유우도태 지원 : 서울우유 6,700두(20억원, 300천원/두)
 - * 복제주군도 100두(20백만원, 200천원/두) 도태지원 추진

건의사항(4.9)

- 젓소 도태장려금 지급(全酪聯·낙농육우협회)
 - 도태장려금 두당 300천원 지원
 - 추정소요액 : 96억원(착유두수의 약 10%, 32천두×300천원/두)

- 정부차원의 재고분유소진대책 강구(全酪聯)
 - 대북 분유지원, 분유수매등 정부차원의 분유소진대책 추진

- 원유대 지급난 해소를 위해 원유구입자금 추가 지원(全酪聯)

II. 문제점과 발생원인

1. 문제점

- 최근 분유재고 급증으로 유업체(조합)의 자금부담 증가
 - 우유수급상 5~7천톤 수준이 적정재고이나 6월말경이면 분유재고가 19천톤수준까지 증가하여 12천톤 잉여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잉여 분유량의 추정가액 : 768억원(12천톤×6,400원/kg)
 - IMF체제이후 유업체(조합)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확보에 애로
 - IMF이후 부도업체 발생 : 파스퇴르유업, 삼양식품, 모닝벨
- 경영이 어려운 집유업체·조합들이 乳代를 체불하거나 분유로 현물 지급하여 낙농가의 자금 및 경영난 가중
- 우유수급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치즈수입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음
 - 치즈 수입실적 : ('97.1~3) 4,482 → ('98.1~3) 3,168톤(△29%)

2. 발생원인

< 소비측면 >

- 경기침체로 최근 우유·유제품 소비가 크게 감소
 - 소득감소와 실업증가등 사회적 요인으로 소비자가 손쉬운 우유 소비부터 중단
- 우유·유제품가격 인상으로 판매부진(2월에 20~40%인상)

< 생산측면 >

- 원유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생산량 증가
- 낙농가들이 내년 낙농진흥회의 생산계약시 Quota량 확보를 위하여 젖소 저능력우의 도태지연
 - 두당 평균산유량이 감소되고 있음 : ('96) 5,959→('97)5,882톤/년
- 젖소값 하락으로 노폐우를 출하보다 우유생산에 이용

Ⅲ. 우유수급 전망

- 우유는 다른 축산물 보다 소비가 소득변화에 민감하여 '98년도 우유 총소비량은 전년 보다 5.5% 감소 예상
 - 1인당 시유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37kg)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총소비량은 6.8% 감소예상
 - 치즈·버터등 가공유제품의 소비는 가격인상과 경기침체로 소비 둔화
- 생산량은 가임암소두수와 두당산유량 증가등으로 전년대비 4.4% 증가 예상
- 이에 따라 금년말 분유재고는 작년말 보다 2.8배 증가한 23~25 천톤으로 증가 전망

< '98 우유수급 전망 >

구 분	공 급				수 요			재고	
	이월	생산	수입	계	수출	소비	1인당		
'97실적(A)	천톤 109	1,984	444	2,537	11	2,440	kg 53.3	86	
'98 계획	당 초	86	1,941	426	2,453	15	2,341	50.4	97
	변 경 (B)	86	2,072	400	2,558	15	2,306	49.7	237
	B/A	△21.1%	4.4	△9.9	0.8	36	△5.5	△6.8	2.8배

IV. 우유수급안정대책

1. 기 조치사항

□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원유가격 인상조정

- 원유가격은 우유수급 및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고려하여 평균 18.4% 인상조정('98.1.1부터 시행)

□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홍보 강화

- 우유소비 계층을 대상(학생·주부등)으로 홍보 추진
 - 신학기에 학교급식 관계자, 소비자·여성단체등에 집중 홍보
- 우유마시기 캠페인 전개 : 3.1~5.31(3개월간)
 - 유업체·조합,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별로 소비캠페인등 실시
- TV를 통한 우유광고 추진
 - 유업체(조합)의 자율적인 우유 TV광고 지속 실시

□ 젖소 저능력우의 도태로 자율적인 생산조절 유도

- 집유조합 및 업체 중심으로 낙농가의 저능력우의 도태 유도로 원유공급 과잉시기의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위한 농가지도
- 저능력우 도태후 고능력 송아지 대체 입식

□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관련단체등과 협의회개최(4~5월, 5회)

- 축협(중앙회·낙농관련조합),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등

□ 유업체(조합)의 자금난 해소와 원유대 체불방지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 대상 업체 : 30개소(유가공조합 14, 유업체 16)
- 융자지원액 : 326억원(유가공조합 111, 유업체 215)
- 지원조건 : 융자기간 6개월, 연리 8%

2. 금후 추진대책

가. 추진 기본방향

- 우유 및 분유재고 소비확대로 낙농경영안정 도모
 - 분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제조·유업체에 재고분유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조기에 과잉재고소진 유도
- 젖소 저능력우의 도태로 원유 생산량 감축
 - 육우(젖소 수소)지육을 한시적으로 수매하여 젖소도태 촉진

나. 세부 추진대책

(1) 우유소비촉진 방안

(가) 원유 및 유제품가격 인하 추진

- 위기상황에서의 소비확대와 장기적인 낙농산업 유지를 위해서 원유 및 유제품가격을 적정수준 이하 불가피

< 원유가격 >

- 우선, 유질향상과 젖소도태 촉진을 위해 원유의 체세포수 등급중 3급에 대한 페널티 강화
 - 체세포수 3급(안) : (현행) -30원/kg → (개선) -60원/kg수준
 - 시기·감액수준은 낙농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경부와 협의후 확정 시행
- 세균수등급등 원유가격은 추후 사료·유류등 생산비 인하요인을 추후 검토하여 추진

< 시유가격 >

- 소비자가격은 유업체(조합) 자율로 5~10%인하하여 시행하되, 추후 원유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경우 공장도가격 인하 추진

< 시유 소비자가격 인하시 소비량 변화효과 >

GDP 성장율	소비자가격 인하시 소비량 변화		소비자 가격인하시 상대적 소비증가효과	
	5%	10%	5%	10%
-0.8%	1.72%	7.70	5.37%	11.35
-1.4	1.26	7.21	5.35	11.30

(나)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소비자홍보 추진

□ 기본방향

- 農·消·商·政이 참여하는 협약체결 및 소비운동 전개
- TV 등 홍보매체의 최대 활용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추진계획

우유소비 캠페인

- 우유소비 촉진 결의대회('98.5.30, 서울관내 초등학교)
 - 「農·消·商·政」이 우유의 유통협약 체결 및 결의문 채택
 - 어린이 우유소비촉진 캠페인 발대식
 - 시유 시음회 및 가두캠페인
- ※ 세부계획은 축협중앙회가 수립하여 농림부와 협의 추진
- 축산대학생 우유 등 축산물소비촉진 캠페인('98.5.27)
 - 우유·쇠고기등 다른 축산물소비촉진과 병행 실시
- 우유등 축산물소비 세미나·브랜디전 개최('98.5.29~30, 과천)
- 우유 요리강습회 개최('98.6.10, 축산신문)

- 시·도별 시차를 두고 소비캠페인 대대적으로 확산 전개
 - 시·도별로 낙협·축협, 낙농육우협회, 낙우회, 유업체, 행정기관 등이 참여
- 리후렛은 소비자단체, 여성기관, 대기업, 학교등에도 배포
 - 축협중앙회는 우유의 우수성, 효과 등을 강조하는 리후렛 제작

유제품 광고에 우유의 공익성 홍보

- 유업체에서 TV 또는 신문등 홍보매체에 自社제품 홍보시 우유의 우수성과 위생적인 생산사항등을 알리는 자막·문구 삽입
 - 우리부에서 문구를 만들어 각 업체에 협조요청
- 도심지의 전광판·전철등 광고물을 이용한 우유소비 홍보

TV 홍보

- 우유의 우수성, 영양가 및 식품효능등에 대한 공동 소비홍보
 - TV·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식품전문가·유명교수를 출연시켜 간접 홍보도 병행 추진
- TV를 통한 우유 공동광고 추진 유도
 - 축협과 유업체가 공동 추진
- 유업체(조합) 자율의 우유 TV광고 지속 실시

농가 홍보

- 집유업체(조합)별로 낙농가에 리후렛을 배부하여 젖소 저능력우 조기 도태 유도
 - 우리부·畜技研 공동으로 리후렛을 제작, 낙농가에 배포
-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 자율의 생산조절
 - 저능력우 도태농가에 대해서는 '99 생산계약시 Incentive 부여

(다) 우유 포장용량을 증량하여 소비확대 유도

- 우유소비 비중이 큰 소형포장 용량을 증량 추진
 - 소형포장의 용량의 확대하여 '98.6.1부터 시행
 - (현행) 200 → (증량후) 220ml/개(10% 증)
 - ※ 판매가격은 현행대로 유지

(라) 학교등 단체우유급식 확대

- 급식 대상학교(초·중·고교) 에 홍보용 리후렛제작 배포
 - 장관친서 및 리후렛 발송, 교육부 및 시·도에 협조요청
 - 교육기관 영양사 교육시 협조
 - ※ 일평균 학교급식 인원 : 370만개 수준
- 군납 및 산업체에 대한 단체급식 확대
 - 전경련등 경제단체에 대하여 단체급식 협조요청

(2) 원유생산감축 방안

(가) 젓소 저능력우 도태 유도

젓소(육우) 지육수매 실시

- 지지목표가격 : 한우 수매가격의 60% 수준
- 수매두수 및 수매기간 : 일 50두 이내
- 수매가격 : 지육시가 적용
- 수매장소 : 서울지역 3개 도매시장
 - 한우수매와 병행실시
- 수매기관 : 축협중앙회
- 수매재원 : 축산발전기금(한우 수매자금)
- ※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시달

- '99년도 계약생산량(Quota)은 '97년 납유실적을 기준으로하여 증감량 산정

□ 젓소 저능력우 도태 추진

- 주 관 : 시·도
 - 협 조 : 집유조합 및 유업체
- 시 기 : 3개월간('98.5.25일 부터 실시)
- 대상농가 : 전 낙농가
 - 20두 미만 사육농가 : 호당 1두 도태
 - 20두 이상 사육농가 : 호당 2~3두 도태
- 젓소도태 계획('98.3, 2세이상 두수의 약 9%)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도태두수	15	110	275	455	65	30	110	11,740	1,300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도태두수	1,710	4,640	2,260	2,190	2,695	2,080	325	30,000두	

* 경기도는 서울우유 자체 도태계획분 포함

- 추진방법
 - 시·도가 관내 집유조합·업체와 협의, 세부추진계획 세워 시행(시·군 및 집유조합별 도태계획을 5.25한 농림부에 제출)
 - 시·군에서는 농가당 도태두수 부여 및 도태실적을 확인
- 행정조치

< 농가 >

- '98 지원되는 축산경영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자금 우선 지원
- '99 정책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99년도 생산Quota 계약시 Incentive 부여(별도 지침시달)
- 도태 불이행농가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도 및 시·군 >

- 도태 실적에 따라 '99년도 축산자금 차등 배정

※ 젓소 도태장려금 지급문제는 원유생산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나 한우가격 회복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고 축산발전 기금의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어 정부지원은 곤란하며, 집유업체(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확보하여 지원

(나) 우유생산 과잉시기에 비유축진제(BST) 사용자제

□ 집유조합·업체의 자율적으로 비유축진제 사용자제 지도

- BST 사용추정량 : ('94) 39 → ('95) 253 → ('96) 190 → ('97) 230천dos(16천두분)
- BST 사용할 때 젓소 두당 산유량이 평균 15% 증가

(3) 분유재고소진 방안

(가) 대북한 식량원조를 위한 분유지원 추진

□ 국제기구(Unicef)를 통한 정부차원의 분유지원

- 주 관 : 농림부(통일부에서 우리부에 계약사무위탁)
- 지원품목 : 국내산 탈지분유
- 지원규모 : 2,706백만원('97.8.23, 환율적용 300만불상당)
 - 물품대와 수송비·보험료·대행수수료등 부대비용 포함
- ※ 탈지분유 공급가능 물량 : 600톤 수준
- 계약방법 : 우리부와 축협중앙회장간의 수의계약
 - 물품구매는 축협중앙회장이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추진
- 인도시기 : 약 2개월내외 소요(6~7월중 인도예정)
- 품질규격, 포장표기 및 수송방법등은 대북 분유지원 사례 준용(대행수수료율등은 통일원과 사전 협의후 추진)

□ 「韓赤」을 통한 민간차원의 분유지원

- 종교·자선단체 중심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국산 분유를 구입하여 「韓赤」에 현물 기탁, 이를 북한에 전달
 - 분유지원물량 : 96톤

기탁 단체명	분유지원물량(톤)			포장규격 (제조회사)	지원시기
	탈지	전지	계		
• 계레사랑북녘동포 • 돕기범국민운동	17		17	1kg캔(매일)	5.3
• YWCA		15	15	1kg포대(")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44		44	1kg캔(")	5.22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20		20	"	
합 계	81	15	96		

- 통일원, 「韓赤」, 종교·자선단체 등과 계속 협력하여 분유를 가능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
 - 지원물품선정은 「韓赤」이 기탁자와 협의결정(통일부 승인)

(나) 국산 재고분유 사용 촉진

- 식품제조·가공업체(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유업체(발효유)에 대하여 국산분유 사용 알선
 - 국산분유 사용량 : 4~5천톤
 - 거래는 실수요업체와 잉여분유 보유업체와 직접계약 추진
- 관련단체를 통해 식품제조·유업체에 국산 분유사용 협조
- 유제품의 원산지표시제 실시 지도 단속 강화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모조분유 등을 사용 제조한 유제품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農檢)
- 모조분유 실수요자 배분방법 조정 검토
 - (현행)전년1년간 수입실적비율→(개선)'96~'97(3년간) 평균수입실적비율

(다) 국산분유 수출 추진

□ 외화획득용 유제품 수출업체로 하여금 수입분유 대신 국산분유를 사용하여 수출 유도

○ 외화획득용 유제품 수출

- 수출업체 : 매일유업 · 한국야쿠르트 등
- 수출지역 : 동남아 · 중국 · 중동 · 미국 · 러시아지역 등
- 수출품목 : 조제분유 · 발효유 등

※ '97실적 : 조제분유 4,215톤(6,882천불), 발효유 1,683톤(1,678천불)

○ 국산분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기존 시장접근물량 범위내 또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여 수출업체에 실수요자 방식으로 배정

“너와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농 립 부

우 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 500-2690 / 전송 507-3966 / 담당 조정래

문서번호 축영 51541 - 205

시행일자 1998. 05. 25. (3년)

(제 1 안)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제목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1. 지난해 연말부터의 IMF 영향은 낙농산업계에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우유소비는 지난해 동기대비 18% 수준 감소됨에 따라 유가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분유재고량이 16천톤으로 적정재고 보다 3배 많은 물량이며 이에 따라 유가공업체는 자금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영세한 낙농가에 대한 원유대금 체불, 원유대금 대신 분유로의 정산, 분유의 강제배분등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현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우유 수급안정을 위하여 낙농업계의 구조조정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유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일로서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귀부는 물론 산하기관·단체·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 가. 아침에 각 청사예의 우유반입 허용
- 나. 각종 회의·행사시 우유음용 확대
- 니. 단체급식소에서 우유 마시기 확대

붙임 : 1. 우유 홍보 리후렛 1부
2. 유가공업체 현황 1부. 끝.

받는곳 : 가 31~67(-40), 국기회의, 자민년, 신협상, 국민사랑.

(제 2 안)

받음 정부청사관리소장
참조 관리과장
제목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1. 지난해 연말부터의 IMF 영향은 낙농산업계에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우유소비는 지난해 동기대비 18% 수준 감소됨에 따라 유가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분유재고량이 16천톤으로 적정재고 보다 3배 많은 물량이며 이에 따라 유가공업체는 자금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영세한 낙농농가에 대한 원유대금 체불, 원유대금 대신 분유로의 정산, 분유의 강제배분등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현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우리부에서는 낙농업계의 구조조정등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를 확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캠페인등 소비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면서 각 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귀소에도 협조요청 하오니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무에 헌신하고 있는 전 공무원에게 완전 영양식품인 우유를 아침에 공급하여 마시게 함으로써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도가 크다고 사료되니 각 정부청사(정부세종로청사, 정부과천청사, 단독청사 등)내 각 부처의 과단위 사무실까지 우유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우유 홍보 리후렛 1부. 끝.

(제 3 안)

받음 : 받는곳 참조

제목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1. 지난해 연말부터의 IMF 영향은 낙농산업계에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우유소비는 지난해 동기대비 18% 수준 감소됨에 따라 유가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분유재고량이 16천톤으로 적정재고 보다 3배 많은 몰량이며 이에 따라 유가공업체는 자금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영세한 낙농농가에 대한 원유대금 체불, 원유대금 대신 분유로의 정산, 분유의 강제배분등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현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우리부에서는 낙농업계의 구조조정등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를 확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캠페인등 소비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면서 각 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귀사에도 협조요청하오니 고영양식품인 우유의 소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우유관련 대담으로 편성, 드라마에서의 우유의 우수성 내용 삽입 등을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뿐만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낙농산업 전반의 활력 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임 : 우유 홍보 리후렛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받는곳 : KBS, MBC, SBS

(제 4 안)

받음 받는곳 참조

제목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1. 지난해 연말부터의 IMF 영향은 낙농업계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우유소비는 지난해 동기대비 18% 감소한 반면 생산은 증가함에 따라 유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유재고가 적정재고보다 3배수준 많은 16천톤에 이르러 유업체뿐만 아니라 낙농가들도 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낙농업계의 구조조정등 다각적인 우유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를 확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캠페인 전개등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실·국뿐만 아니라 산하단체, 업체에 대하여도 각종 회의·행사시 우유음용 확대등 우유소비 확대 협조요청 및 동 단체 급식소에서의 우유마시기 생활화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우유 홍보 리후렛 1부. 끝.

축 산 국 장

받는곳 : 농갑 04-55(-53)

“너와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농 립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전화 (02) 500-2690 FAX (02) 507-3966
축산경영과 과장 김남철 담당자 최염순

문서번호 축영 51541- 388

시행일자 1998. 06. 27(1년)

경 유

받 음 정부과천청사관리소장

참 조 운영과장

제목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1. 축영 51541~305('98.5.28)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부에서는 IMF이후 경기침체로 우유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분유 재고가 적정재고 수준의 3배를 웃돌고 있어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우리부에서는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정부 각 청사에 우유 배달을 하여 공무원들이 술선하여 매일 아침에 우유를 마실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우유소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지난 '98.6.8, 귀소 주관하의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부에 우유공급을 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급기간 : '98.7.1~9.30(3개월간)

나. 공급대상 : 농림부

다. 공급제품 및 가격 : 서울우유/200ml 280원 수준

라. 반입시간 : 매일 09:00~09:30(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마. 공급방법

- 서울우유대리점에서 정부과천청사 3동 1층 후문출입문까지 우유를 반입하면 농림부여직원회의 책임하에 반입하여 각 실과에 배달
- 청사보안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에 한해 공급하되, 귀소(에) 청사 관리상 필요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중단에 협조



농 립 부 장 관

“너와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농 립 부

우 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 500-2690 / 전송 507-3966 / 담당 박홍식

문서번호 축영 51541 - 339

시행일자 1998. 06. 3. (3 년)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제목 우유(시유)가격 인하 협조

1. IMF이후 우유소비 격감으로 분유재고가 누증되어 최근 분유재고가 16천톤을 상회하는등 낙농산업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부는 우유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촉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낙농가에 대하여는 원유생산 감축을 위해 생산자단체별로 도태계획을 징구하는등 저능력 젖소의 도태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낙농농가, 생산자단체, 유가공업계 모두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낙농가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원유생산량 감축과 유업체가 우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세포 3등급의 원유대 감액을 현행 30원/kg에서 60원/kg으로 강화하는 자구책을 건의해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4. 또한, 식용유, 밀가루 등 타산업에서도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자 특별한 가격 인하 요인이 없어도 최근 소비자가격을 10~15% 인하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따라서 유업체에서도 우유소비확대만이 유일한 낙농산업희생대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유(시유)가격을 10%이상 인하하는 적극적인 고통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유업체의 이러한 노력이 없을 경우 낙농가뿐만 아니라 유가공업체를 포함한 낙농산업 전체가 붕괴될 우려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아울러 유업체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유업체는 낙농산업의 일원임을 자부하기 곤란할 것으로 유업체에 지원된 경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유예 검토 등 정책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농 립 부 장 관

받는곳 : 농병 04, 한국유가공협회, 강원낙협, 태백축협, 청주우유, 전주축협, 임실낙협, 대구경북우유, 경북낙협, 제주낙협, 서울우유, 춘천축협, 광주전남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해태유업, 빙그레, 비락, 한국야쿠르트, 롯데우유, 영남우유, 건국우유, 연세우유, 건국유업, MD푸드코리아, 제주우유

“너와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농 립 부 FAX 491-9090

우 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 500-2690 / 전송 507-3966 / 담당 박홍식

문서번호 축영 51541 - 363

시행일자 1998. 06 15. (3)년

(경유)

받음 서울우유협동조합장

참조

제목 우유가격인하 협조

1. 축영 51541-339('98.6.3)호와 관련됩니다.

2. IMF영향등으로 우유소비가 위축되어 우유소비의 성수기임에도 분유 재고가 누증되어 있어 낙농관련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우리부에서는 우유소비확대와 생산조절을 통한 수급안정과 재고분유 소진을 통해 낙농업과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 우유소비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학교우유급식등 단체우유급식 확대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시·도, 축협, 낙농관련단체를 통해 저능력우의 도태를 적극 추진토록하고,
- 대북분유지원 추진, 국산분유수출추진, 식품업계와 유업체에 국산 분유 사용을 협조요청 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조합에서도 우유소비 확대만이 낙농업과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을 깊이 인식하시고, 기 축협중앙회에서 16일부터 5.7% 인하된 가격으로 유통시킬 계획임과 일반유업체의 참여 의사에 동참하여 우유가격을 5~10% 수준을 조속 인하하여 우유소비 부진에 의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립 부 장 관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 전화(02) 500-2690 / 전송 507-3966 /
축산경영과장 김남철 담당자 박홍식

문서번호 축영 51541- 387
시행일자 1998. 6. 27. (3년)
경 유 (제 1 안)
받는곳 받는곳참조
참 조

제 목 원유가격조정

1. '98.1.1일, 원유생산비 상승 및 환율급등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등에 따라 원유가격(세균수 등급가격)을 조정한바 있으나,

2. IMF영향에 따른 소비감소로 분유재고가 누증되어 낙농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생산자는 노폐우 도태등 생산량 감축을 도모하고, 유가공업체는 유제품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확대를 유도하고자 '98.7.1부터 체세포수 등급을 강화·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시·도 및 관련기관(단체)은 동 내용과 함께 우유 소비 홍보 등을 강화하시어 우유수급안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유가격 조정내역 1부.



받는곳 : 가60, 나, 축산기술연구소, 농병 04,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

농 립 부 장 관

(제 2 안)
받는곳 축산위생과장
제 목 원유가격조정

1. 낙농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낙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원유가격을 조정하여 '98.7.1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각 집유장에 대하여는 원유의 위생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가격조정후 검사에 따른 낙농가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유가격 조정내역 1부. 끝.

축 산 경 영 과 장

원유가격 조정내역

1. 원유가격 조정

구 분	등 급	기 준	현 행	조 정
		개/ml	원/kg	원/kg
세균수등급	1 급 A	3만 미만	553	553
	1 급 B	3만~10만미만	540	540
	2 급	10만~25만미만	512	512
	3 급	25만~50만이하	502	502
	4 급	50만초과	419	419
체세포등급	1 급	20만 미만	+30	+30
	2 급	20만~50만 미만	0	0
	3 급	50만 초과	-30	-60

주 : 유지방율은 현행대로 3.4기준 $\pm 0.1\%$ 당 11원씩 가감함.

2. 조정가격의 시행시기 : 1998.7.1

Ⅲ . 홍보 및 보도자료모음집

여 백

○ 농·소·상·정 우유 유통협약 체결

여 백

우유 유통 협약서

우리 우유생산 낙농인과 소비자, 유통인 그리고 정부는 우유 공급 과잉 및 소비부진으로 인한 우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우유생산을 억제하고 소비를 확대하여 우유수급과 낙농산업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낙농가 및 유가공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자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1. 낙농인은 IMF체제의 경기영향으로 우유소비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공급과잉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저능력 젖소 도태 등을 통한 우유생산 조절과 아울러 양질의 우유생산에 적극 노력한다.
2. 소비자는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를 돕고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우유소비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3. 유통인은 낙농가의 소득 및 생산활동 보장을 위하여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값싸고 질 좋은 우유와 유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낙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중앙 및 지방정부는 우유 생산조절과 소비확대를 통하여 우유
수급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6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후
1부씩 보관한다.

1998. 5. 30.

낙농인대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송찬원

서명

宋 燦 源

소비자대표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노숙령

서명

李 淑 令

유통인대표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김영진

서명

金 英 鎭

낙농인대표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서명

金 南 用

소비자대표

서울YWCA
회장 이주영

서명

李 宙 英

정부대표

농축산국
장 이관용

서명

이 관 용

우유 요리 강습회 개최 계획

- 일시 : '98. 6. 12.(목) 13:30 ~ 16:30
- 장소 : 플라자호텔 22층 덕수홀(서울 시청앞)
- 주최 : 한국낙농육우협회, 축산신문
- 주관 : 한국식생활연구회
- 후원 : 농림부, 축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 행사일정 및 내용
 - 개회식 : 13:30 ~ 13:50
 - 특 강 : 13:50 ~ 14:30
 - 주제 : 우유와 건강
 - 강사 : 건국대 축산학과 류제창 박사
 - 우유 요리 강습 및 시식회 : 14:30 ~ 16:30
 - 다이어트식 3종 : 우유두부, 우유식초, 우유드레싱 및 샐러드
 - 영양음료 4종 : 우유인삼주스, 에그녹, 우유화채, 우유과일쉐이크
 - 식사류 5종 : 우유밥, 우유죽, 우유그라당, 우유냉소면, 우유후레이크
 - 반찬류 4종 : 우유닭찜, 우유생선조림, 우유달걀구이, 우유묵무침
 - 간식류 5종 : 우유크레이프, 우유젤리, 우유스팀케익, 우유땅콩과자
우유호박전병

알

림

IMF한파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우유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분유재고가 위험수위에 달하는등 낙농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우유소비촉진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일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우유요리강습회를 개최하오니 낙농업계와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유요리 강습회 12일 개최

낙농업 살리기 우유소비 촉진 일환

◇일시: 1998년 6월 12일 13:30~16:30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덕수홀(지하철1호선 시청역)

□일정

◇개회식(13:30~13:50)

◇특강-우유와 건강(13:50~14:30)

(류제창박사-건국대 축산대학교수)

◇우유를 이용한 요리시범 및 강습(14:30~16:00)

◇시식회(16:00~16:30)

■주최: 한국낙농육우협회·축산신문

■주관: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

■후원: 농림부·축협중앙회·한국사료협회

※ 문의처 : 축산신문(871-9561/5)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833-1623/4)

○ 장관친서 발송

여 백

존경하는 교장선생님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1세기 주역이 될 인재양성과 참된교육에
진력하시는 교장선생님이하 모든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부에서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가장 완전한 식품인
우유를 공장도수준 가격(235원이하/200ml)으로 공급하고, 초등학교의
극빈·불우학생에 대하여는 전액 보조로 무상공급하여 국민 체위
향상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WTO와 IMF의 영향으로 농자재값 등 영농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반면에 소비가 위축되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
하는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낙농산업은 저울철 비수기에 위축된 우유소비가 IMF 등의
영향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분유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식량공급원인 낙농기반이 붕괴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유수요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낙농산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유는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 5대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 55가지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가계경제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성장기 학생의 체위향상 도모와 농촌을 돕는다는 뜻에서 학교우유 급식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8년 6월 일

농림부장관

김 성 훈



존경 하옵는

사장(회장)님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가 경제의 최 일선에서 국가 발전에 전력하시는 사장(회장)님 이하 모든 근로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IMF 외환 영향으로 자금난 및 구조조정 등 귀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식량공급원이면서 우리 마음의 안식처요 쉼터인 우리 농촌이 최근 WTO와 IMF의 영향으로 농자재값 등 영농비가 급격히 상승한 반면에 소비가 위축되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낙농산업은 저울철 비수기에 위축된 우유소비가 IMF 등의 영향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분유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낙농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낙농가는 원유의 위생등급 강화를 통한 원유 가격인하, 자조금 조성, 소득원인 젖소 도태 등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유업체는 7월 1일부로 우유가격을 6% 수준 인하하여 소비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음으로써 우유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것과 같이 비록 어려운 시기이나 우리 낙농산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회사 급식에 우유를 포함하시어 우유수요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유는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 5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한 55가지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확대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리라 봅니다만 농촌을 돕는다는 뜻에서 단체우유급식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사에서 우유의 단체급식 확대 또는 각 사무실의 우유 주문 확대 등 취하신 결과를 저에게 FAX(02-507-3968, 농림부장관 김성훈)로 알려주시면 어려움속에서도 낙농산업을 돕는 귀사의 헌신적 참여를 언론에 홍보하는 등 보은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8년 6월 일

농림부장관 김 성 훈



존경 하옵는

남께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WTO와 IMF 외환 영향으로 우리들의 농촌이 농자재값 등 영농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반면에 소비가 위축되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낙농산업은 겨울철 비수기에 위축된 우유소비가 IMF 등의 영향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분유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낙농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農·消·商·政은 유통협약을 맺어 낙농가는 원유의 위생 등급 강화를 통한 원유 가격인하, 자조금 조성, 소득원인 젖소 도태 등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유업체도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우유가격을 6% 수준 인하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캠페인 전개,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리후렛 제작 배포, 방송매체 활용 홍보, 식품·유업체에서의 국산분유 사용 추진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유는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 5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한 55가지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필요한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확대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리라 볼지만 농촌
을 돕는다는 뜻에서 우유 소비 확대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아무쪼록 우유 소비가 확대되어 우리 국민의 식량 공급원인
낙농산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무한한 애정을 부탁 드
립니다.

다시 뵈을 때까지 댁내 두루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1998년 7월 1일

농림부장관 김 성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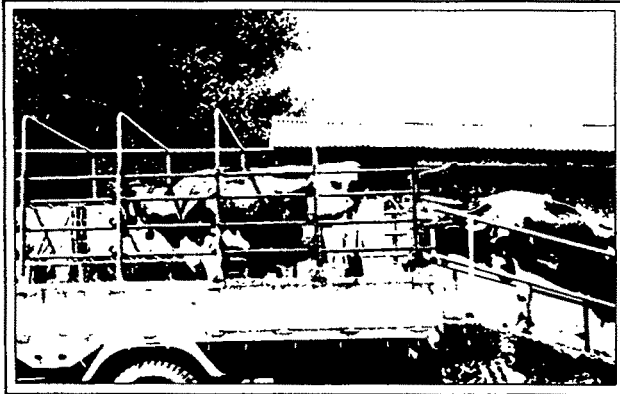


○ 리플릿 제작배포

여 백

젖소 저능력우 도태로 낙농위기 극복

농림부 · 농촌진흥청 · 축협중앙회



<저능력우 출하>

① 우유수급안정 방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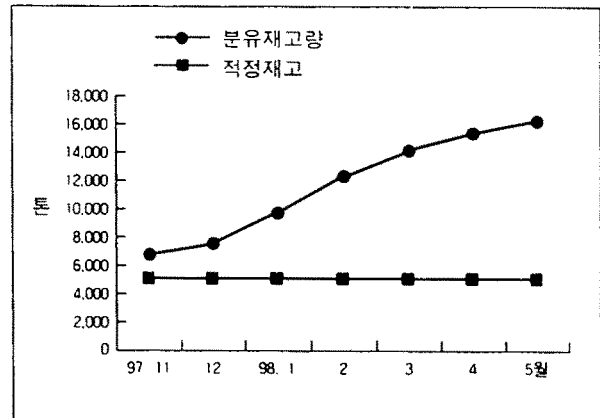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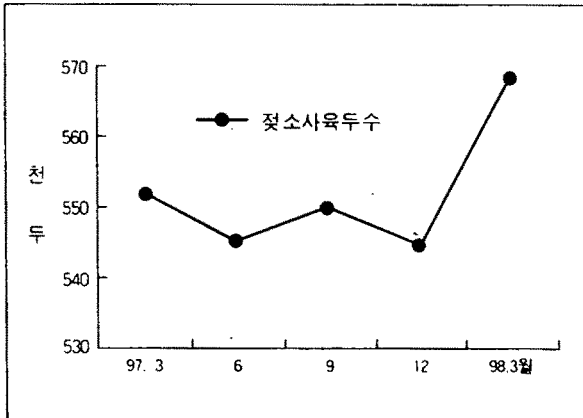
- 우유소비 촉진
- 저능력우 도태로 원유생산 감축
- 분유 사용확대로 적정재고 유지

② 젖소도태목표 : 3만두

① IMF체제에서 젖소 저능력우를 조기에 도태하는 것이 우유수급과 낙농 경영을 안정시켜 나가는 확실한 방법이다.

■ 최근 젖소사육두수는 568천두로서 '97년말 대비 4.4% 증가

■ 분유재고가 5월 현재 적정재고의 3배 수준을 초과하여 경영난 심화



▶ 분유재고 증가 원인

- IMF영향에 의한 경기침체 · 우유값 인상으로 우유소비 감소
- 저능력우 도태지연 · 사육두수 증가로 원유생산 증가

● ● ● 낙농가 모두가 8월말까지 저능력우를 농가당 1~3마리 이상씩 도태에 적극 참여하여 낙농위기를 극복합시다.

IMF시대 낙농업 실패할 수 있다.

② 젖소 저능력우는 이렇게 도태한다.

■ 조기 도태할 젖소는 ?

- ▷ 저능력우(1일 산유량 15kg이하), 상습적 유방염 발생우
- ▷ 검정농가의 경우에는 축군의 능력을 검토하여 저능력우 도태
- ▷ 번식장해우와 체세포수가 높아 원유품질을 저하시키는 젖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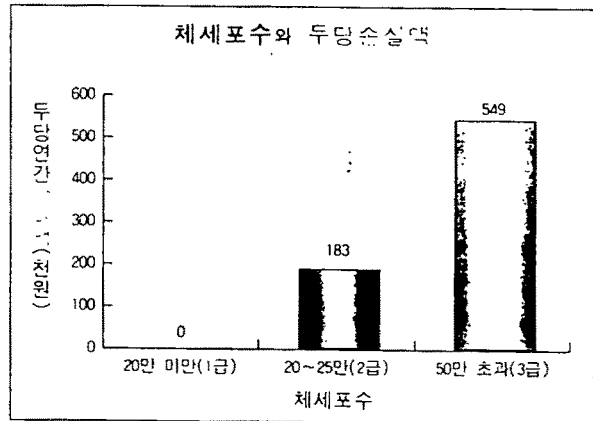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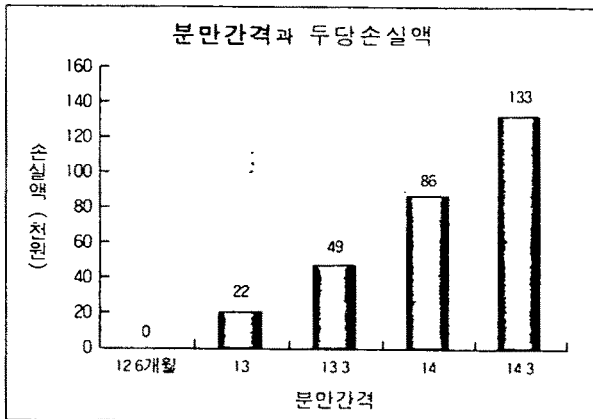
■ 도태시기 : '98. 5. 25 ~ 8. 31

■ 도태절차는 ?

- ▷ 시·군, 축협·낙협이 계획에 의한 도태 대상농가는 목장 관할 시·군 또는 축협·낙협에 신고후 출하(자연도태는 제외)
- ▷ 농가는 도축한 젖소의 도축확인서를 축협·낙협에 제출
- ▷ 시·군과 축협·낙협에서는 농가별 도태명부를 작성하여 각각 비치

■ 공태기간이 길수록 손실이 크므로 조기도태 필요

■ 체세포수가 높을수록 도태 지연시 손실증가



* 세균수 1등급, 원유 20kg/일, 유지율 3.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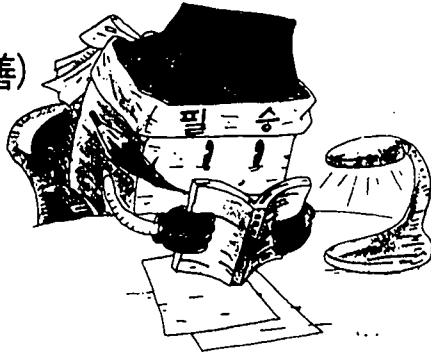
③ 젖소를 조기에 도태한 농가에는 혜택이 있다.

- 금년 축산경영자금·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자금 우선 지원
- 내년 낙농정책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
- 내년 원유생산계약시 혜택(Incentive) 부여
- ※ 도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차별 지원

1997년 농가별납유실적을 기준으로한 증감량과 조사료생산기반, 사육여건 등을 종합평가하여 1999년 원유생산계약량(Quota)을 정합니다.

수험생 자녀에겐 그야말로 다다익선(多多益善)

우유에는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공부에 신경쓰는 수험생들이 많이 마실수록 좋습니다.



깨끗해야
사랑받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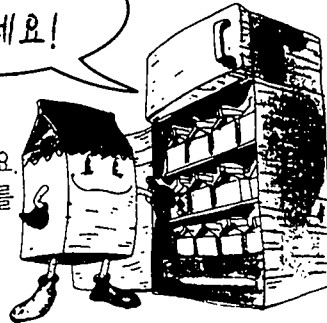
우유, 정말 안전하고 깨끗해요

우리나라 우유는 생산 전에 원유의 신선도검사로 관능검사, 비중검사, 알코올검사, 산도검사를 하고 단백질, 지방 등 성분검사를 합니다. 또 항생항균성 물질검사, 이물검사, 체세포검사, 세균검사를 하고 생산 후에는 이런 각종 검사 외에 용량, 포장검사까지 실시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꼭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보관은 이렇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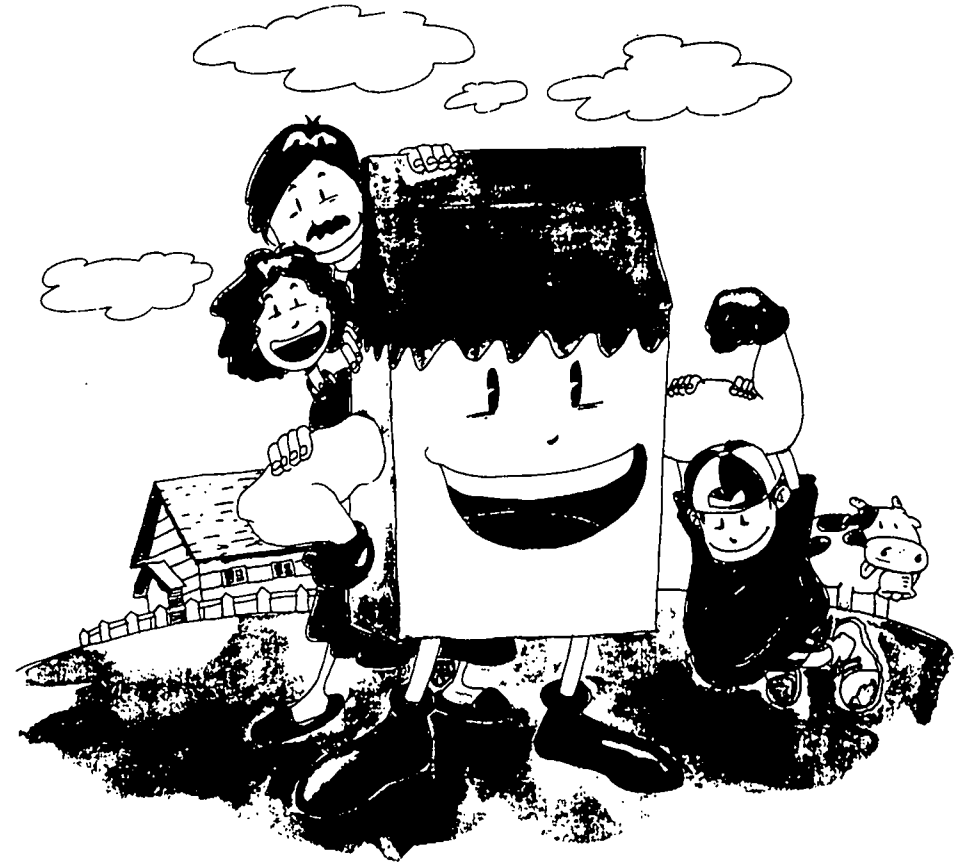
직사광선은 피하고 얼지않도록 냉장고에 보관하며, 한번 개봉한 우유는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내에 드세요. 우유는 냄새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므로 개봉한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다른 음식을 냄새가 배지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유를 마시자!

우리가족 건강의 보디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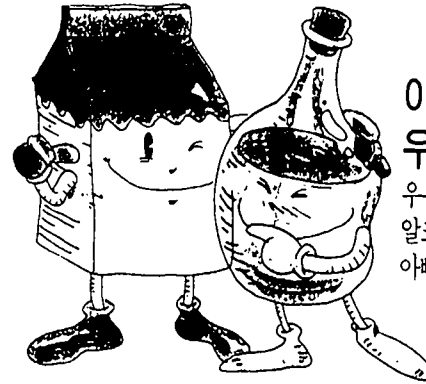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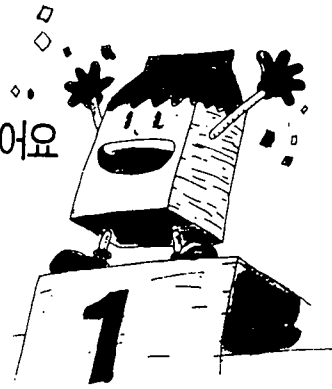
우유 이야기



농림부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한 식품은 있어요

한가지 식품을 섭취해도 영양상의 결핍증이 나타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식품을 완전식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서 칼슘·인 등 무기질, 각종 비타민까지 인체에 필요한 약55가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99%의 소화율을 자랑하는 우유를 학자들은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술 마시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좋다는 사실

우유를 마시면 위벽에 피막을 형성해 주고 알코올의 흡수를 저지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빠에게 음주전에 우유를 마시도록 챙겨주세요.



암(癌)아 비켜라, 우유 나가신다 ~

많은 학자 및 의사들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우유가 위암예방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고 합니다. 우유중에 위점막을 보호하는 신비스러운 물질이 존재해 발암물질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당뇨병에도 우유가 도움이 되죠!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은 다른 당류보다 느리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치곡선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크게, 튼튼하게 - 하루 3잔씩 챙겨주세요!

몸 튼튼, 키 쑥쑥~ 아이들을 크게 키워주죠

완전식품이라 할 만큼 풍부한 영양이 담긴 우유! 훗날 자녀의 키와 몸매, 체력을 생각한다면 우유를 많이 먹이세요.



골다공증? 미리미리 우유로 걱정없게, 든든하게 -

나이들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 주부님들에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가 가장 좋습니다. 또 우유의 단백질은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키고, 풍부한 비타민 A, B2는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 미용에도 그만입니다.

우유, 이렇게 마시면 좋아요

-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 끓여먹으면 영양소가 손실되므로 그대로 마신다
- 우유를 매일 먹으면 우리의 영양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 천천히 씹듯이 먹으면 우유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 어린이는 하루에 3컵(600ml), 어른은 하루에 2컵(400ml)의 우유를 마셔야 충분한 영양섭취를 할 수 있다

우유에 관한 명언이 많아요

-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식품, 그것은 우유이다 - 히포크라테스
-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다 - 윈스턴 처칠
- 백악관의 식탁에 하루도 우유가 빠지는 날이 없게 하자 - 존 F 케네디
- 그대의 음식으로, 그대 가족의 음식으로, 그리고 그대 아내의 음식으로 우유를 먹여라 - 솔로몬 왕

보관은 반드시 냉장고에! 그리고 드실 땐 꼭꼭 씹어 드세요!

우유는 시원한 곳을 좋아하니까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우유를 마실땐 씹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소화도 잘되고 우유의 참맛을 느낄 수 있어요!

보관은 냉장고에!
마실땐 씹어서 마시래!

어때요 우유여행 재미있으셨어요?
너무 많이 걸어서 목이 타신다구요?
우유 한 잔 시원하게 드세요.
음료수 대신 우유 마시는게
훨씬 좋다는거 다 아시죠?
끝으로 잊지 마세요.
우유는 하루에 세 번 마시는게
제일 좋다는 사실 말예요!
그럼 안녕!!!!



우유를 마시자!

철이와 함께 떠나는

우유 여행



농림부

사람들은 언제부터 우유를 마셨을까요?

아마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만큼 오래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우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인도에서는
약 6,000년 전부터 아주 귀한 식품으로 여겼다고 해요.



우유는 또 머리를 좋게 해요!

우유에는,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단백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서 공부하면 머리 속에 쑥쑥 들어온답니다.

우유를 마시면 키가 쑥쑥 자란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우유 속에는 5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 55가지나 되는 영양소가 들어있어 뼈도 튼튼! 키도 쑥쑥 자란답니다.



치아도 튼튼! 성격도 좋아진대요~!

우유 속의 칼슘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침착해지고 성격도 좋아진대요. 또, 우유는 충치도 막아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보도자료 배포현황

여 백

보 도 자 료

제 공 차	
농 립 부 축산경영과	
과 장 : 김 남 철	
담당사무관 : 강 학 원	
전 화 : 504-9434	

제 목 : 낙농가(酪農家)가 생산한 원유(原乳) 판매가격 인상조정

< 요 약 >

□ 원유가격 인상을 : 18.4%

- 세균수 기준 : 1~3급은 18.7%, 4급은 9.4%
- 체세포수 기준 및 유지방을 기준 : 현행과 같음

□ 원유가격 인상액

- 세균수 3급, 유지방 3.4% 기준 : 423원/kg → 502원/kg(증 18.7%)

□ 적용시기 : '98. 1. 1

□ 농림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낙농심의회 심의를 거쳐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원유) 판매가격을 오는 1월 1일부터 평균 18.4% 수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현행 원유가격은 '95.10.16일 조정되었으며, 그 이후 2차례에 걸쳐 ('96.7.1, '97.3.1) 위생등급(세균수, 체세포수)을 강화한 바 있다.

- 지난 원유가격 인상이후 배합사료, 농촌노임 등 물가상승으로 원유 가격 인상요인이 일부 있었지만 생산성향상을통해 원유가격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지도하여 왔으나,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인상을 하였다고 밝혔다.

- 원유가격 인상은 원유의 기준등급(유지방율 3.4%, 세균수 3급) 가격으로 현행 kg당 423원에 비해 18.7% 인상한 502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유질개선 촉진을 위해 최하위 등급인 4급을 인상율의 50% 수준인 9.4%만 인상하였다.
 - 이번 원유가격 조정에서는 유지방율과 체세포수 등급에 따른 가격은 조정하지 않았으며, 세균수등급 기준과 체세포수 기준도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최근 환율 불안정으로 배합사료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벗짚등 국내부존 조사료의 이용 확대, 생산성향상등 생산비 절감에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농림부는 당부하였다.
 - 아울러 유가공업체나 낙농조합에서도 고통분담과 경영혁신 등으로 원유가격 인상이 시유등 낙농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여 우유소비의 위축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보도자료

- 제 공 일 : 1998. 2.
- 제 공 자 : 농림부 축산정책과
- 과 장 : 서성배
- 담당서기관 : 김경규
- 전 화 : 504-9431~3

이 자료는 1998년 2월 20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축산정책자금 3,200억원 상환기간 연장 및 축산경영체 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지원

<보도요지>

- 고환율 지속과 축산물 가격불안정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축산농가와 관련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2차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축산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조치
- 축산정책자금 상환연기 조치
 - '98.1~3월 상환자금 1,051억원을 4~6월 상환토록 3개월 기 연기 조치('97.12.10)
 - 위자금과 당초 4~6월중 상환해야 할 자금 2,143억원, 총 3,185억원의 상환을 7~9월로 연기
- '98 축산경영자금 증액분 1,000억원('97: 5,200→'98: 6,200억원)중 재특회계 지원분 500억원 배정
 - 한우 170, 낙농 66, 양돈 140, 양계 124억원
 - 한우·젓소 30두, 양돈 500두, 양계 1만수이상 규모화된 농가의 사료비 등 경영비 지원

- 양돈은 수출촉진과 연계하여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규격돈 출하 두수당 1만원 내외의 선급금 형태로 지원
- 양계는 환율상승과 병아리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종계·종계농장 지원 확대(90억원)

- * '98추경(안)에 6,7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미확정
- * 증액분 1,000억원중 축협조달분 500억원은 기 지원중임

- 유가공업체·조합에 원유구입대금 326억원 신규 지원
 - 우유소비 감소에 따른 분유체화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유가공업체, 조합에 농가원유구입대금 326억원 지원 (축산발전기금)

- 계란집하장·가공장에 계란구입비 90억원 지원
 - 계란의 수집·저장기능을 수행하는 계란집하장 및 계란 가공장에 계란구입자금을 지원, 계란수집기능을 강화하여 산지계란가격 안정 유도 (축산발전기금)

<추진배경>

- 지난해 연말이후 사료가격 상승과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축산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각종 부담경감 및 자금지원을 추진중임.
- 축산경영안정대책 추진상황
 -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기조치
 - '98.1.1부터 3.31까지 상환해야 할 원금 및 이자 1,051억원을 3개월간 연기조치('97.12.30)
 - 축발기금 102억원, 농특회계 99, 축산경영자금 850

- 축산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
 - '98 축산경영자금 증액분 1,000억원중 축협 조달분 500억원 조기 배정·지원중
 - 농기업경영자금중 1,000억원 축산부문 별도 지원중
 - 가축의 생산·가공·유통 계열화업체에 경영안정자금 570억원 지원중
 - 지방자치단체 관내 축산농가에 상호금융자금 이차보전, 농어촌 진흥자금 등 1,588억원 지원 추진중
- 산지가격안정을 위해 39개 돼지고기 수출업체에 수출용 비축자금 621억을 지원키로 하였고, 소 수매도 1일 500두 수준으로 확대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고금리와 축산물가격 불안정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축산경영체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였음.

<대책 주요내용>

- 축산관련 정책자금 3,185억원 상환기간 추가 연기
 -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 연장조치되어 4~6월 상환해야 할 자금 1,051억원과 4~6월중 신규로 상환해야 할 2,134억원의 상환기간을 7~9월로 연장조치
 - 연기대상자금의 이자율은 연 5~8%에 해당되어 이번 조치로 축산경영체의 금리부담과 자금압박을 상당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

... '98 축산경영자금 증액분중 재특회계 지원분 500억원 배정·대출

- 신규증액 1,000억원중 축협조달분 500억원 기 지원조치에 이어 재특회계 지원분 500억원을 축종별로 배분하고 조속히 대출 추진토록 하였음.
 - 한우 170억원, 낙농 66억원, 양돈 140억원, 양계 124억원
- 양돈부문은 최근 돼지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수출규격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원액 전액을 돼지고기 수출확대와 연계시켜 지원키로 하였음.
 -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수출규격돈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두당 1만원내외에서 지원하여 농가의 규격돈 출하를 장려
- 양계분야는 사료가격 인상과 병아리 가격하락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원종계와 종계농장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각각 30억원과 60억원씩 지원키로 하였음.
- 한편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추가로 확보되는 자금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계획임.

□ 유가공업체·조합에 원유구입대금 326억원 긴급지원

- 이는 최근 우유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유가공업체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들 유가공업체들이 부도·도산시 해당업체에 원유를 납유하는 축산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임.
 - 유가공업체·조합의 집유량을 기준으로 1회 원유지급액의 70% 수준에서 지원

□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계란구입비 등 90억원 지원

- 최근 소비부진으로 가격 약세를 보이는 산지 계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의 집하·단기저장을 수행하는 계란집하장과 계란가공장에 계란구입비 일부 지원
 - 경영 어려움 해소와 함께 수급조절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조속한 산지가격안정을 도모

< 기대효과 >

- 4~6월 상환해야 할 자금의 연기조치를 미리 확정·발표함으로써 축산경영체의 사육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가축시장의 조기안정에도도

- 분유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공업체·조합의 경영난 완화와 원종계·종계농장의 종계생산기반 유지 및 양계시장 안정

보 도 자 료

- 제공일 : 1998. 5.
- 제공자 : 농림부 축산경영과
- 과 장 : 김 남 철
- 사무관 : 최 염 순
- 전 화 : 504-9434~5

이 자료는 1998년 5월 일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림부, 낙농단체에 저능력우 도태계획 제출 요구

- 5.20, 농림부는 축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젖소 저능력우도태 계획을 제출하고, 매월 도태실적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농림부의 이러한 요청은, 최근 우유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유소비감소에 대응하여 원유생산을 감축해 나가기 위해 젖소 老産牛 또는 저능력우를 조속히 도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 낙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도태장려금지급을 요구하면서 원유가격 인하에는 강경히 반대함에 따라 이를 보류하고
 - 농림부의 우유수급안정대책에는 저능력우의 도태촉진을 위해 젖소수소(육우)의 수매와 함께 원유의 체세포수등급중 3등급에 대하여는 종전에 kg당 30원씩 원유가격을 감액 지급하였으나 이를 60원으로 감액폭을 확대토록하고
 - 자율도태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축산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원유생산계약시 금년중 저능력우 도태실적을 감안하여 계약량을 결정하며, 이와함께 농가별 원유생산계약량은 '97년중 농가별 납유실적을 기준하여 책정·시행키로 함.
- 한편, 지난 5월 9일 개최한 축산관련 농·소·정협의회시 소비자단체는 우유 소비자가격을 인하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유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며, 농림부는 우유수급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3만두 이상의 젖소가 도태되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음.

보 도 자 료

- 제공일 : 1998년 5월 18.
- 제공자 : 농림부 축산경영과
- 과 장 : 김 남 철
- 사무관 : 최 염 순
- 전 화 : 504-9434~5

이 자료는 1998년 5월 19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림부,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에 나서

- 농림부는 IMF 경기침체로 우유소비는 크게 감소한 반면, 원유(原乳) 생산은 증가함으로써 분유재고 증가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 및 유가공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함.
- 대책의 기본방향은 우유소비촉진, 낙농가의 원유생산감축 및 재고분유의 처리에 둠.
-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 농·소·상·정 협약체결, 우유소비촉진대회 개최, TV홍보, 각급 기관 및 단체에 장관친서 발송, 리후렛 제작 배포 등
 - 시유의 소비자 가격을 5~10% 인하 유도
 - 우유소비 비중이 큰 200ml 소형포장 용량을 220ml로 증량유도
- 원유생산 감축을 위해
 - 저능력우의 도태는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 도태에 참여한 낙농농가에게 축산경영 자금을 우선 지원
 - '99. 1 낙농진흥회 발족시 시행되는 원유생산량 계약시 도태두수를 감안하여 계약량을 설정
 - 도태될 저능력우의 가격지지를 위해 육우(젓소 수소) 지육 수매 실시
 - 체세포수등급중 3급 우유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확대 적용 (원유kg당 30원을 감액하던 것을 60원으로 감액)

□ 재고분유의 처분을 위하여

- 6월중 실시될 국제기구(UNICEF)를 통한 대북분유지원(600톤 수준) 이외에 대한적십자사, 종교 및 자선단체의 대북식량지원시 분유지원 확대
- 식품업체 및 유가공업체의 재고분유 사용을 협조
- 재고분유의 보관비용 증가에 따라 분유 수출을 추진

□ 5.18, 농림부는 최근 분유재고가 급증하고 유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낙농농가의 경영도 크게 악화되고 있어, 긴급히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마련, 낙농업계의 안정조치에 들어 갔음.

- 농림부는 이같이 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IMF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감소 및 실업을 상승과 더불어 지난 1월 1일 원유 가격을 인상(평균 18.4%)한 결과 동절기 우유소비감소 추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 우유소비촉진, 원유생산감축, 재고분유의 처분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 농림부에 따르면 금년들어, 시유소비량은 전년동기 대비 18.6%(다만, 유제품을 포함한 우유소비량은 12.2% 감소)가 감소한 반면, 원유 생산량은 4.1%가 증가하여

- 분유재고는 1일 60~80톤(1~2월중 90톤, 3~4월중 50톤)씩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전체 분유재고량은 적정재고량 4~6천톤의 4배에 가까운 1만6천톤을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년말 분유재고는 25천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 그 결과 유가공업체의 분유재고 누증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낙농농가는 배합사료값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데다가 원유납유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농림부는 지난 2~3월중 유가공업체 및 낙농조합에 326억원의 경영안정자금(납유대금)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우유소비의 감소와 원유생산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금번에는 소비촉진, 원유생산감축 및 분유재고 처분등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농림부의 우유수급안정대책의 주요골자는 먼저 우유소비의 확대를 위해, 농·소·상·정이 참여한 대대적인 우유소비촉진대회를 계기로 『農·消·商·政 협약』을 체결하고, TV 등 언론매체의 홍보 및 20만부의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고
 - 국회·청부등 기관 및 단체에도 우유소비캠페인에 참여토록 협조(장관친서 발송)하며
 - 최근 유가공업체의 유질개선비 지급중단, 인건비, 재료비 인하요인을 판매가격 인하와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시유의 소비자가격을 5~10% 인하를 유도하고
 - 우유소비 비중이 가장 큰 소형포장(200ml)의 용량을 10% 정도 증량할 것을 유가공업체에 협조함.
- 또한, 농림부는 이러한 소비촉진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소비확대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낙농가의 원유생산량을 감축해 나가기 위해
 - 원유생산량이 떨어지고, 낮은 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저능력우의 도태를 촉진키로 하고
 - 저능력우의 도태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도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하여는 축산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 1월 발족되는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와 원유생산량 계약시 도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 낙농농가 및 낙농조합등 단체는 저능력우도태장려금 지급(두당 300천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 축산발전기금의 고갈, 저능력우 도태장려금 지급시 바닥세에 있는 한우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장려금 지급은 불가함.
- '98축산발전기금 운용 재원부족으로 농·축협에서 이미 1,870억원을 차입(금리 16~18%)
 - 금년 2~3월중 유업체 및 낙농조합에 지원한 326억원도 축협 차입금중에서 지원했음.

- 한편, 저능력우의 도태장려금 지급여건은 어려우나 도태우의 가격 지지를 위해 육우(젓소 수소)지육수매를 실시키로 하고, 1일 50두 범위내에서 축산물공판장 등을 통한 수매에 착수키로 하였으며
 - 또한, 유질향상과 저능력우의 도태를 촉진하기 위해 등급별로 책정되어 있는 원유가격을 일부 조정하여, 체세포수등급중 3급 원유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확대 적용키로 함(원유 kg당 30원을 감액하던 것을 60원으로 감액 확대).

□ 이와함께, 농림부는 계속 누증되고 있는 분유재고를 줄여, 유가공업체의 부담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

- 금년 6월중에 600톤수준의 분유를 대북식량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지원하는데 이어, 대한적십자사 등에 공문을 발송,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식량지원계획에 분유지원 물량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 '98.5월중 민간단체의 대북 분유지원계획량 : 95톤

- 비록, 최근 외국산 분유등 수입량은 급격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농림부는 국내 식품제조업체, 유가공업체 등에 새고분유 사용을 많이 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고
- 금년 5~7월중에 국내산 분유 5~7천톤을 수출키로 하고, 이를 유가공업계와 협의중에 있음.

보 도 자 료

○ 제공일 : 1998. 5.
○ 제공자 : 농림부 축산경영과
○ 과 장 : 김남철
○ 사무관 : 최염순

이 자료는 1998년 5월 일 ()이후에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림부 및 축협, 유가공협회 등 서울지역 우유소비확대 캠페인 전개

- '98. 5.27부터 6.2기간중 농림부를 비롯한 축협, 한국유가공협회, 서울우유 등 6개 기관·단체·업체에서는 서울지역에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키로 함
- 지난 연말 IMF이후 소득감소 및 실업증가 등으로 우유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분유재고가 누증되어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 낙농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유수급안정을 위하여 저능력우의 자율적인 도태 추진 등 낙농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유의 소비를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것임
-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정부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및 유가공업체가 합심하여 소비자에 대한 고영양 식품인 우유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우유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캠페인을 실시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금번 서울지역에서의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캠페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현재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 서울지역 우유소비확대 캠페인 계획 1부 1건

축산국 우유소비확대 캠페인 계획

□ 일시 : '98. 5. 27(수) 08:00~09:00

□ 장소 : 청사 정문, 3개 후문 및 과천극장앞

○ 인원 배치계획 : 축산국 전 직원

- 청사정문 : 축산국장, 축산정책과 및 축산위생과 직원
- 청사 국기계양대앞 후문 : 축산경영과 직원
- 과천극장앞 : 축산위생과 직원

□ 행사내용

○ 우유홍보 리후렛 및 우유(200ml)배포

- 어깨띠 착용
 - 우유를 마시자! 우유가족 건강가족!, 우유한잔으로 활기찬 하루를 등
- 우유협찬 : 서울우유 200ml 1,000개

< 서울지역 우유소비확대 캠페인 추진계획 >

일시	주관	장소	비고
'98. 5.27(수)	농림부	과천청사 및 시내	우유 및 리후렛 배부
'98. 5.27(수)	축협중앙회	광화문, 정부세종로청사, 축협중앙회앞	"
'98. 5.29(금)	"		
'98. 5.29~6.3	한국유가공협회	자체계획 수립추진	"
'98. 5.30	서울우유	자체선정 추진(3개소)	"
'98. 6.2.	낙농진흥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양재 전철역	"

보도자료

- 제 공 일 : 1998. 5.
- 제 공 자 : 농림부 축산경영과
- 과 장 : 김남철
- 담당사무관 : 최염순
- 전 화 : 500-2689~90

이 자료는 1998년 5월 일(석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우유값 10% , 원유(原乳)값 5% 수준 인하

<보도요지>

- 농림부에 따르면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우유값을 5~10% 인하고, 이에 따라 낙농가에 지급되는 원유(原乳)값도 5% 수준 인하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 IMF이후 경기침체로 우유소비가 크게 줄어 현재 분유재고가 1만 5천톤 수준에 달하여 유업체와 낙농가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빠른시기에 타개해 나기 위해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 흰우유의 소비자가격을 5~10%를 내려 받도록 하여 우유소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 낙농가에 지급되는 原乳代도 IMF체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5% 수준 인하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젖소 사육두수와 原乳생산 감축을 위해서 도태를 한 낙농가에는 경영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내년도 생산계약시 생산량(Quota) 배정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며
 - 젖소(육우)지육을 한시적으로 1일 50두 수준씩 시가수매를 해나간다고 밝혔다.

□ 농림부에 따르면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우유값을 5~10% 인하하고, 낙농가에 지급하는 원유(原乳)값도 5% 수준 인하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 IMF이후 경기침체로 최근 우유소비가 크게 줄어 현재 분유재고가 적정수준인 5~7천톤 보다 약 1만톤을 웃도는 1만 5천톤 수준에 달하여 유업체와 낙농가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빠른시기에 이를 타개해 나기 위해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 흰우유 소비자가격(200ml기준)을 400원에서 10%를 내려 360원 정도 받도록 하여 우유소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 낙농가에 지급되는 原乳代도 최근 사료값과 油類代와 인건비 등이 소폭 내렸기 때문에 IMF체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5% 수준 인하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젖소 사육두수와 原乳생산 감축을 위해서 젖소 도태 농가에 대해서 도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대신 도태를 한 낙농가에는 경영자금 지원과 내년도 생산계약시에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고

- 앞으로 육우가격(젖소 수소)이 한우 수매가격의 60%수준을 밑돌 경우 서울 3개도매시장에서 한시적으로 육우지육(젖소 수소)을 1일 50두 정도 시가수매하여 젖소값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서 젖소 도태를 촉진해나기로 했다.

□ 또한, 우유소비 확대와 분유재고 소진을 위해서는

- 축협과 유업체가 협력하여 TV광고 등을 통해 우유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시차를 두어 우유소비 캠페인을 펼쳐 나가며
-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원조에 가능한 분유가 많이 지원 되도록 추진하며, 분유를 많이 쓰는 식품제조 및 유업체에 재고 분유 사용을 적극 알선키로 했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 : 1998. 5. 29.
- 제공자 : 농림부 축산경영과
- 과 장 : 김 남 철
- 사무관 : 최 염 순
- 전 화 : 500-2690

이 자료는 1998년 5월 일 (조간·석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농·소·상·정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 IMF체제이후 우유소비 부진으로 우유재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의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유소비촉진대회와 무료 가두시음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우유 더 먹기 운동」에 들어갔다.
- 오늘 낮(11:50~13:00), 서울 송파구의 서울가동초등학교에서는 낙농농민, 소비자, 유통인, 정부 관계자, 이른바 농·소·상·정(農·消·商·政) 대표 500여명이 모여서 「농·소·상·정의 우유 유통협약」을 맺고, 각 대표들은
 - 공급과잉 시기에 原乳의 생산감축과 질 좋은 우유생산
 - 우유 소비 확대
 - 우유 유통 혁신
 - 그리고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 이 행사에 참석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최근의 축산업 특히,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낙농산업과 연관된 모든 종사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행사가 끝난 후, 이들 농·소·상·정 대표들은 서울가동초등학교에서 로데오 거리까지(1.2km) 가두행진, 농악놀이를 벌이면서 소비자들에게 우유 소비확대를 호소하는 한편,
 - 축협을 비롯 7개 유업체들은 서울 송파구 로데오거리에서 팜플렛과 우유를 무료로 나누어 주며 「우유 더 먹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 또한, 우유소비촉진 결의대회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우유글짓기대회에서 입상한 “우유 더 마시기” 낭송회와 우유 시음회도 가졌으며,
 -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초등학교에서도 5.30일 1교시후(10:00경) 「우유교실」을 일제히 열어 우유의 영양가치, 마시는 방법 등에 대한 급식 교사의 설명과 우유시음회도 열었다.

보도자료

- 제공일 : 1998. 6. 19 .
- 제공자 : 농림부 축산경영과
- 과 장 : 김 남 철
- 사무관 : 강 학 원
- 전 화 : 504-9434~5

이 자료는 1998년 6월 일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림부 장관, 학교장에게 우유 소비 확대 협조 진서 발송

우유가격을 대폭 낮춰 초·중·고등학생에게 급식 추진

- 농림부는 우유 소비기반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를 공장도 수준의 저렴한 가격인 200ml를 235원 이하(시중 가격 370~400원)로 공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극빈·불우학생에 대하여는 전액 보조로 무상공급하고 있다.
- 최근 IMF 영향으로 우유 소비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낙농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98. 6. 20일 전국 1만여 초·중·고등학교장에게 친서를 보내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협조 요청했다.
- 김성훈 장관은 친서를 통해 우유는 가장 완벽한 영양식품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가세성세에도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성장기 학생의 체위향상 도모와 농촌을 돕는다는 뜻에서 학교 우유급식 확대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도자료

- 제공일 : 1998. 6. 23
- 제공자 : 농림부 축산경영과
- 과 장 : 김 남 철
- 사무관 : 강 학 원
- 전 화 : 504-9434~5

이 자료는 1998년 6월 일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農 · 消 · 商 · 政 유통협약 위력 나타나다.

<우유 소비자가격을 최고 12.5%, 평균 6.7%인하>

- 6.23 유가공업계는 현재 과잉이 되고 있는 분유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농·소·상·정 협조정신에 따라 우유의 소비자가격을 평균 6.7% 인하하기로 하였다.
 -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한국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은 최근의 분유재고 누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유제품의 공장도 출고가격을 평균 5.1%(최고 10.9%, 최저 2.8%), 소비자 가격은 멸균유 1,000ml짜리를 12.5% 인하하는등 평균 6.7% 인하하여 판매기로 하였으며,
 -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는 유가공품도 평균 14.1% 인하하기로 하였다.
- 이번의 이와같은 인하조치는 지난 5월 30일 낙농가, 소비자, 유업체, 정부가 우유소비 확대에 의한 우유수급안정을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협약을 맺은 정신에 따른 것으로 낙농가들이 원유생산감축을 위하여 젖소노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상응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따라 IMF영향으로 위축된 가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소득탄성력이 큰 우유수요를 증대시키고 재고분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우유수급안정을 위해 소비확대, 생산감축, 재고분유 소진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대대적인 소비캠페인 전개, 단체급식확대, 홍보매체를 통한 우유의 우수성 홍보를 추진 하면서 저능력우 도태에 의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유도 하는 한편, 식품업계 및 유업체에 국산분유사용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다.
- 특히, 농림부관계자는 국민의 정부에서 농림행정 추진의 기본 방향인 농·소·상·정 유통협력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낙농가, 유가공업체의 고통분담 노력을 감안하여 어려움이 있겠지만 완전한 영양식품인 우유소비증대에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 : 1998. 6.
- 제공자 : 농림부 축산경영과
- 과 장 : 김 남 철
- 사무관 : 강 학 원
- 전 화 : 504-9434~5

이 자료는 1998년 6월 일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원유(原乳) 가격의 일부 인하

- 농림부는 젖소 저능력우의 도태를 촉진시키고 우유의 위생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 원유의 위생등급중 체세포 기준 3급(ml당 50만개이상)에 불과하고 있는 원유가격 감액폭(패널티)을 '98.7.1부터 kg당 30원에서 60원으로 확대·시행키로 함.
-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IMF 이후 우유소비가 감소하여 분유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유가공업계는 우유소비자 가격을 평균 6.7% 인하키로 결정한 바 있으나, 낙농가의 원유생산량은 감소되지 않아 취한 것임.
- 농림부는 IMF 이후 우유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우유소비 확대를 위하여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농·소·상·정 협약체결,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리후렛 배포, 학교우유 급식확대 요청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 현재 적체 되어 있는 세고분유 소진을 위해서 식품업계의 국산 분유 사용 확대, 대북분유지원 및 대일 분유수출을 적극 추진 하고 있음

○ 보도내용 스크랩

여 백

원유값 농가지급 “비상”

유가공조합 심한 경영난...지원대책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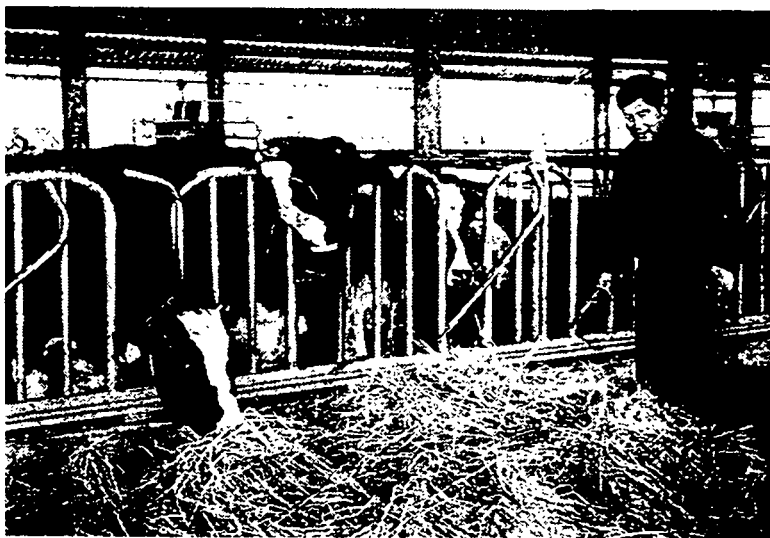
유가공조합들이 우유소비 부진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으로 낙농가에 대한 원유값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낙농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전국 유가공조합들은 지난 1월 원유값 인상으로 자금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여파와 계절적 요인으로 유제품 판매는 극도로 부진, 낙농가에 지급할 원유대금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전국 12개 유가공조합의 분유 재고량은 1월말 현재 3천1백10t(1백78억원어치)에 이르고 있을뿐 아니라 원유 재고량도 하루에 서울우유의 경우 4백t, 부산경남우유는 80t, 대구경북우유 11t 씩 늘고 있어 경영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조합들중 일부는 대출을 전면 중단한채 조합원들의 예수금 등으로 원유값을 지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남우유조합의 경우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전체 5백



◇유가공조합들이 낙농가에 원유값을 원활히 지급할수 있도록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80명의 직원 가운데 이미 70명을 줄인데 이어 앞으로 40명을 더 줄여 나갈 정도로 극단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조합을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

유가공조합 관계자들은 각 조합들이 현재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우수매자금을 일시적으로 전용, 유가공조합에 빌려주고 우유소비 성수기인 5월

이후에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현재 유가공조합들의 자금 동원능력이 한계에 다달아 이 상태를 그대로 둘 경우 낙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3일 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건의한대로 원유 구입자금 3백억원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채〉

社 說

최근 일부 유업체들의 원유대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의 원유대금지급 지연사태는 그 원인이 일시적 수급불안이나 소비부진으로 인한 과거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원유대금지급지연은 IMF한파이후의 고금리행진에서 보듯 유업체들의 심각한 자금난에서 비롯됐다. 환율폭등에 따른 사료값인상으로 촉발된 원유대인상과 이로 인한 유제품가격인상이 경기불황에 의한 소비부진을 더욱 부추긴 것도 주요원인이기는 하다. 은행권을 상대로한 정부의 자금지원독려에도 불구하고

사안이란 점에서 한가로이 책임만 떠질 제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낙농가들은 사료값등 각종 생산비상승으로 채산을 맞추지 못하는 가운데 전입이 속출하고 있다. 원유대지급이 장기화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유업체가 도산한다면 이는 불난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낙농기반은 급속히 붕괴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영세유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낙농가를 타유업체에 떠넘기는식의 대책을 강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백, 수천명의 낙농가들이 원유납유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작금의 상황

원유대금 미불사태는 막아야

시중의 자금난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데다 경기위축에 따른 가계지출이 움츠러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부 유업체들의 원유대금지급지연은 업계전반으로 확산되고 급기야는 지급불능상태마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신용사업을 통해 비교적 자금조달이 용이한 유가공조합마저도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유가공업계의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대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난은 기업 스스로의 책임이며 유업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원유대지급은 낙농가들의 생계문제와 낙농업의 존폐가 달려 있는

은 이러한 변통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는데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낙농업계나 유업체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작금의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낙농기반붕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가족계열화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지원을 유가공조합이나 일반 유업체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최근의 원유대지급 지연사태는 장기화될 경우 지급불능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조선신문(98.5.15, 11면)



경남도와 축협경남도지회는 최근 분유재고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낙농가와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우유소비촉진캠페인을 전개했다.

경남도와 축협경남도지회는 지난 9일 창원 공설운동장 옆 "만남의 광장"에서 최근 우유체화현상에 따른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5천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우유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경남도와 축협경남도지회가 공동주관하고

지역유업체가 협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우유소비 캠페인은 200ml우유 5천개를 나누어준 물론 인류에게 가장 안전한 식품인 우유를 마셔 건강을 유지해 나가자는 캠페인을 통해 낙농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시유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 지역에 유통되는 지역우유가 가장 신선하고 위생적이라며 지

경남도·축협경남도지회

우유소비촉진캠페인

역우유마시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우유는 동맥경화 및 고혈압 예방과 뼈의 노화방지(골다공증 예방), 음주전후 간장 및 위장을 보호하고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최고의 식품임을 소비자에게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들에게 나눠준 우유는 부산우유가 200ml 우유 2천개, 경남낙협이 1천개, 비락우유가 1천개, 빙그레가 1천개의 우유를 각각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 급증 분유파동 임박

‘마지노선’ 1만5천 t 에 1백80여 t 초과

올 우유생산량 6%늘어 하루 66 t 씩 누적

(연합) 분유재고의 마지노선이 결국 무너지면서 분유파동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15일 한국유가공협회등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국산분유 재고량이

업계에서 최후의 방어선으로 제시한 1만5천t을 1백81t이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3월말의 1만3천7백 44t에 비해 10.5%, 2월말 1만5백

5t에 비교해서는 44.6%나 늘어난 것으로 분유재고의 급증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예년의 경우 학교급식 재개등으로 우유소비가 늘어 분유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4월 이후에도 올해는 하루 66t씩의 재고가

누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월말 1만3백 74t, 2월말 1만2천1백27t으로 증가하던 재고량이 3월을 고비로 증가세가 주춤하다 4월에는 1만1천 6백55t으로 재고량이 줄어들면서 재고량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올해의 기현상은 지난해 연말이후 지속된 경제위축으로 평균 5% 가까이 줄어든 우유소비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은 반면 원유생산량은 젖소값 폭락에 따른 저능력 젖소의 도태지연등으로 오히려 6% 가량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 낙농가들이 젖소도태를 꺼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분유재고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분유 재고줄이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늦어지고, 낙농가들의 자포자기적인 방관양상이 계속된 경우 사상 유례없는 분유파동이 일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체별 분유재고량은 서울우유 3천8백48t, 매일유업 2천8백 8t, 한국야쿠르트 1천5백26t, 남양유업 1천2백67t, 부산경남우유 1천13t 등이다.

京 郷 行 報
5 月 17 日 9 日

우유값 5~10% 내린다

분유재고 감축위해

「분유 과동」을 막기 위해 시관 우유 소비자 가격이 5~10% 내릴 전망이다.

농림부는 올해 시관우유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3.5% 줄어든 반면 원유 생산량은 4.1% 늘어나 분유재고량이 1만6천t(적정재고량 4,000~6,000t)을 초과, 연말에는 2만5천t 이상까지 재고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원유생산 증가에 대한 유가공업체의 우질개선비 지급을 중단토록 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인하요인을 단가 가격에 연계시키기 위해 시관우유의 소비자가격을 5~10%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우유소비 비중이 가장 큰 소형포장

1.0ℓ의 용량을 10% 정도 늘리도록 유가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원유생산량이 줄어들고 낮은 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잦소를 대책하기로 했다. 홍인표기자

市乳 소비자값 5~10% 인하 유도

농림부는 최근 분유재고가 급증하고 유가공업체를 비롯한 낙농농가의 경영도 크게 악화됨에 따라 우유수급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시유소비량은 전년대비 18.6%가 감소한 반면, 원유생산량은 4.1%가 증가해 분유재고는 1일 60~80톤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최근 전체 분유재고량은 적정재고량의 4배에 가까운 1만6천톤을 초과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말 분유재고는 2만5천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우유소비의 확대를 위해 농·소·상·정이

「농·소·상·정」소비촉진 협약 체결 저능력우 도태에 '인센티브' 농림부, 우유수급안정대책 마련

참여한 우유소비촉진대회를 계기로 「농·소·상·정 협약」을 체결하고 TV·등 언론매체의 홍보 및 20만부의 리후렛을 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가공업체의 유질개선비 지급중단과 재료비 인하요인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시유의 소비자 가격을 5~10%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량이 많은 소형포장

(200ml)을 10%정도 증량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원유생산량이 떨어지고, 낮은 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저능력우의 도태를 촉진시켜나가기로 했다. 저능력우의 자율적 도태를 유도하되, 도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내년 1월 발족되는

낙농진흥회도 낙농가와 원유생산량 계약시 도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저능력우의 도태장려금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격지지를 위해 육우지육수매를 실시키로 하고 1일 50두 범위내에서 축산물공판장 등을 통한 수매에 착수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6월중 6백톤의 분유를 대북식량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식량지원계획에 분유지원 물량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배공면기자

농수축산신문 '98. 6. 4

농림부, 우유값 5~10%인하 촉구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우유, 축협중앙회,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가공업체에 우유(흰우유)값을 5~10%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부는 우유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할 경우 유가공업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낙농산업 자체가 붕괴되어 낙농농가의 도산이 우려돼 이 같이 촉구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IMF체제 이후 소비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낙농농가, 생산자단체, 유가공업계 모두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우유 임원들은 이에 앞서 29일 농림부를 방문해 우유값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유값 5~10% 인하 유도

농림부 수급안정 비상대책 마련

노·소·상·정 소비촉진 협약
도태농가 축산자금 우선 지원
분유 북한식량지원 확대 요청

최근 파동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시판우유 소비자가격의 5~10% 인하 등 비상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농림부에 따르면 올들어 우유 소비량은 18.6% 줄고 생산량은 4.1%가 늘어 분유재고량이 적정재고량 4천~6천 t의 3배가량인 1만6천 t을 넘어서는 등 우유파동 우려가 있다고 보고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 노·소·상·정 협약체결 및 우유소비촉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보와 함께 홍보전단 20만부를 제작, 배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유의 소비자가격을 5~10% 인하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우유소비 비중이 큰 2백 ml 소형포장 용량을 2백20ml로 10% 늘리도록 유가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부는 원유생산 감축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저능력우 도태를 추진하되 도태를 실시한 낙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해주는 한편 도태젖소 가격 유지를 위해 하루 50마리내에서 젖소지육을 축산물공판장을 통해 구매기로

했다. 또 99년 발족되는 낙농진흥회와의 원유생산량 계약은(1)도태마리수를 감안해 계약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원유의 품질향상을 위해 체세포등급 중 3급원유에 대해서는 현재 1kg당 30원씩 물리고 있는 차감지급액을 60원으로 상향조정해 생산농가의 원유가격에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분유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6월중에 분유 6백 t을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식량지원계획에도 분유 지원물량을 늘려줄 것을 대한적십자사 등에 요청했다.

이밖에 오는 7월까지 국내산 분유 5천~7천 t을 수출하기로 하고 유가공업체와 협의중에 있다. (김계홍)

농민신문

'98. 6. 26

우유 소비자가격이 다음달부터 평균 6.7% 인하된다.

유가공업체는 23일 현재 과잉되고 있는 분유재고량 감축 및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판우유의 공장도 출고가격을 평균 5.1%, 소비자가격은 평균 6.7%를 각각 내려 판매하기로 했다.

1천3백90원으로 4.1% 내린다.

일반우유 2백ml짜리의 소비자가격은 3백80원에서 3백60원으로 5.3%, 5백ml짜리는 7백90원에서 7백50원으로 5.1% 인하된다.

또 서울우유조합의 유가공제품 가운데 전지분유 20kg짜리 공장도가격이 한부대에

우유 소비자값 평균 6.7% 내려

내달부터... 일부 유가공제품도 인하

서울우유조합은 이와 함께 유가공품의 공장도가격도 7월1일부터 평균 14.1% 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조합의 1천ml짜리 멸균우유 공장도가격은 1천45원에서 9백60원으로 9.1%, 소비자가격은 1천6백원에서 1천4백원으로 12.5%가 내리고 일반우유 소

11만4천원에서 9만4천원으로 17.5%, 탈지분유 20kg짜리는 12만8천원에서 11만원으로 14.1%가 각각 내린다.

이번에 시판우유에 이어 유가공제품의 가격을 인하한 서울우유조합의 국내 우유시장 점유율이 32~35%에 달해 다른 유업계들의 유가공제품의 가격인하도 잇따를 전망이다.

위기의 낙농산업 해결책은 없나

농수축산신문

4 1998년 5월 21일 목요일
제 1817 호

IMF관리시대 원인을 찾는 데는 축산업계는 3.0% 축산물 수출액 감소로 인한 영향과 더불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영향을 알고 있다. 또한 IMF관리시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당장은 예측이 불가능해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단순한 경기침체의 현상이 아닌 구조조정 움직임이 체질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낙농산업에 예외없이 첫스텝인 폭락, 상신비의 과중, 우유의 유제품의 소비부진 등의 IMF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민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원유생산량의 감축, 농가조직제의 도입 등의 논의가 결실을 맺으면서 IMF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낙농산업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만 원유계약생산제도 정착 등의 분적의 낙농구조조정은 다소 미흡하다 지적이다. 이에따라 낙농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해 원유의 수급안정, 우유소비 및 분유소진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최근 분유재고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이미 1만5천톤을 넘어섰고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 들어 분유재고가 2만5천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원유생산량 감축을 위한 저능우의 조기도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유소비 격감 분유재고 '눈덩이'

유업체 자금난 악화 원유 쿼터제 도입·유질개선비 지급 유보·중단등 잇따라
낙협소속 낙농가들 자발적 젖소도태 운동 전개 원유 생산 감축 앞장

낙농산업 동향

뜻밖의 폭락에 이어 분유재고 가 적정재고량 5~7천톤의 배수준인 1만5천톤을 넘어지면서 낙농산업에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부와 낙농업계, 유가공업계에 따르면 전년보다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는 17%가량 감소한 가운데 원유생산은 4%가 증가해 이대로 지속되면 오는 연말 분유재고가 2만5천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예측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우유소비에 있어 연중 가장 상승기인 3월~3월 들어서도 개업 원유가 2월 7백20톤, 4~5월 4백톤이상이 넘어 분유로 가공된 것이 1.6만 톤을 넘는 1백10톤, 2월 2백70톤의 원유가 분유화 됐다.

분유재고가 늘어나면 원유생산량을 감축해야 함에도 반대로 원유 집유량이 늘어나는 기현상도 펼쳐지고 있다. 서울우유, 남양매일, 빙그레, 해태우유의 원유집유 실적에 따르면 전년

동기대비 1월 3.5%, 2월 5.3%, 3월 5.7%, 4월 상승 5.9%씩 늘어났다. 이에따라 올해 원유생산량이 지난해 1백98만여톤 보다 2.2% 낮은 1백94만톤을 생산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빛나갈 것으로 보인다.

분유재고의 심각성은 그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물량조차 새로운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이 곤란한 실정이다. 재고가 2만톤을 넘어설 경우 유가공업계의 저장능력도 초과해 보관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분유재고 2만톤은 원거리만 해도 1천만평역원이 넘어야 하는 부피라는 비유도 적지 않다. 이렇듯 무도설로 운영자금 확보조차 어려운 일부 유업체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낙농가의 유대체결과 집유거부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유대지급과 관련, 일부

업체에서 체물이 어렵고 있는 실정이다. 8년 연가 수입세별 유대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우유가 체세포수 불량목장 구제에 나섰으며, 유질개선비는 차등지급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쿼터제를 도입해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분의 20%에 대해선 현금과 분유를 3대 7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분유를 위탁판매하면 수시로 대금을 정산해주고 유질개선비는 kg당 12원을 지급하고 있다. 빙그레는 유대를 정상지급하면서 2백~4백kg 납유농가에 20kg 분유 1포, 4백kg이상 납유농가에 분유 2포를 지급하고 유질개선비는 타업체 지급동향에 따라 중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태유업은 2월 하반기 체물된 유대와 유질개선비를 5월로 유보해 놓고 있다. 포농법은 4월 하반기부터 유대의 유질개선비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 S1 Foods사는 인상전 유대로 지급하면서 쿼터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유질개선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부산경남우유는 납유량 1일 1백kg기준 전지분유 2kg씩 지급키로 하고 4, 5, 6월분 분유를

지난달에 이미 지급했으며, 유질개선비는 kg당 30원씩 지급하고 있다. 강원낙협도 4월 하반기 유대지급을 유보한 적이 있다. 남양유업, 전국유업, 연세우유, 삼양식품, 롯데우유, 비락과 경북·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제주우유 등 낙농조합들은 유대를 정상지급하고 있으나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경남낙협 등이 유질개선비 지급을 중단했다.

낙협소속 낙농가들도 각도별로 잇달아 협의를 갖고 낙농가 스스로 젖소 도태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하는 등 원유 생산량 감축에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같이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가 원유의 수급안정이 시급성을 인정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낙농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분유재고의 체화가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분유재고 소진책이 제시되지 않아 애근장을 녹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삼기자



우유소비 촉진 汎국민운동으로 확산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IMF체제이후 우유소비 부진으로 우유 재고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소·상·정 우유 유통협약」을 맺고, 공급과잉시기에 원유의 생산감축과 질 좋은 우유생산과 우유소비 확대 및 우유유통 혁신, 그리고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사진은

우유유통협약을 체결한 후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가두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부터 김영진 유가공협회장,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 이영래 농림부차관보, 송찬원 축협중앙회장, 노숙량 영양사회장, 박장순 청주우유조합장. 사진 김길호기자>

축산신문 1998년6월12일

우유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낙농육우협 전주·완산지회

무료시음등 홍보활동 전개

한국낙농육우협회 전주·완산지회는 오는 13일 전주 중앙시장앞 코아백화점 광장에서 우유소비 촉진 대회를 개최한다.

완주군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롯데(협)우유 전주공장·완산낙협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무료 시음과 판촉활동이 실시될 예정이다.

낙농육우협회 전주·완산지회 박순식회장은「유업체가 도산하고 원유대를 지급치 못하는 지역이 속

출, 목장 경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당면된 낙농과제 해결과 지역낙농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개최하는 우유 소비 촉진대회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회장은「IMF 한파로 사료비등 원유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이 폭등한 반면 소값 폭락과 분유체화로 낙농육우농가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되기 이전에는 분유재고가 심각하게 쌓인다해도 성수기에는 소진됐던 것이 올 재고는 경기위축에 기인, 심각하다」면서「그러나 경산우를 도태하고 싶어도 송아지 값보다 낮아 도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산지 젖소값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망했다. <조>

특별기고



이관용
<농림부 축산국장>

IMF이후 우유 소비위축으로 분유재고가 누증됨에 따라 분유재고가 1만6천톤을 상회하는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유업체는 경영난이 가중되어 일부 유업체가 도산하고 낙농가에 대한 원유대금을 체불하는 등 낙농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낙농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 감축과 유업체가 우유(시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체세포 등급중 하위등급인 3등급의 원유대 감액을 원유Kg당 현행 3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자구책을 건의해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반면, 유업체는 집유농가 확보 등을 위해 원유가격 이외에 낙농가에 지급하던 원유Kg당 12

따라서 유업체는 낙농가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선택한 원유가격 인하 건의와 소비자가 희망하는 우유의 소비자가격 인하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유가격을 10%이상 인하하여야 할 것이다.

유업체가 이러한 고통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낙농가 뿐만 아니라 유가공업체를 포함한 낙농산업 전체가 붕

우유가격 내려야 낙농산업이 산다

원~20원 수준의 유질 개선비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우유가격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 가격 인하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당연한 행동일 수는 있으나, 우유소비가 확대되어야만 지금의 어려운 낙농산업이 회생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고려할 때 유업체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처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낙농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이해와 참여없이 불가능함을 직시하여 낙농가, 생산자단체, 유가공업체 모두가 양보하여 우유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낙농산업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6月4日 函

우유값 인하

국내 생산 1위업체인 서울우유와 남양 매일 해태우유 등 한국유가공협회 13개 회원사는 오는 7월 1일자로 우유 제품 소비자 가격을 평균 6.7%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ml짜리 흰우유(서울우유 기준)는 380원에서 360원으로, 500ml짜리 저지방 우유는 880원에서 830원으로 내린다. 서울우유는 우유 가공품 공장도 가격도 평균 14.1% 내려 전지분유(20kg짜리) 1캔을 5700원에서 4700원으로, 업소용 버터(12kg짜리) 1개는 7만2750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한다. 함석진 기자

한국일보
6月4日 函

우유 소비자 가격 내달 6.7% 인하

우유 소비자 가격이 다음달 1일부터 평균 6.7% 인하된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한국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은 분유재고를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판우유 제품의 공장도 가격을 평균 5.1%, 소비자 가격을 평균 6.7%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每日經濟新聞
7月3日 函

야쿠르트 우유값 내려

한국야쿠르트(대표 이은선·李銀鮮)는 2일 팔도 우유가격을 평균 5.1% 인하했다.

이에 따라 팔도우유 라이브 180ml는 380원에서 360원, 450ml는 800원에서 750원, 플러스 180ml는 43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내렸다.

본면 의견·제보
mart@mk.co.kr

축산신문 98.6.26

우유급식 확대 요청

김장관, 초·중·고등학교장에 친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최근 IMF영향으로 우유소비가 크게 위축, 국내 낙농 및 유가공산업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지난 20일 전국의 1만여 초·중·고등학교장에게 친서를 보내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친서를 통해 「우유는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 무려 55가지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당부했다.

김장관은 특히 「겨울철 비수기에 위축된 우유소비가 IMF 등의 영향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분유재고가 급격히 증가, 국민의 식량공급원인 낙농기반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내 낙농산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유소비 확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농림부는 우유 소비기반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급식우유에 대한 가격을 공장도 수준인 200ml 2백35원 이하(시중가격 3백70원~4백원)로 공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극빈·불우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로 무상공급토록 하고 있다.

<장호열>

본·판·주·가

중 앙 일 보
7 月 14 日 18 面

“소값이 닭값 수준이더라”

D J, 수급대책 직접 지시

○13일 농림부가 발표한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金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후문.

金대통령은 12일 오후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장관은 송아지값이 개값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으나 내가 알아보니 닭값 수준에 불과하더라”고 운을 뗀 뒤 쇠고기값 안정대책을 일일이 따졌다는 것.

金대통령은 특히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유통마진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방송사와 공동으로 ‘남북한 어린이용 분유보내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치라고 지시했다는 게 농림부 고위관계자의 전언. 金대통령은 이어 군납(軍納)과 학교급식까지 꼼꼼히 챙긴 뒤 준비된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에 따라 농림부는 金대통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종합대책을 13일 오전 서둘러 발표. 한편 金장관은 “IMF사태 등으로 국민소득이 떨어져 축산물 소비는 지난 89년 수준으로 줄었으나 젓소는 89년 30만마리에서 6월말 현재 55만마리로 크게 늘었다”며 공급과잉을 걱정.

박의준 기자

< pakej@joongang.co.kr >

朝 鮮 日 報
7 月 14 日 18 面

송아지 10만원에 매입

수퍼-편의점-갈비집서도 식육판매 허용

농림부 수급안정 대책

농림부는 「버려지는 송아지」가 많다고 판단, 오는 18일부터 8월 말까지 축협을 통해 농가가 팔기를 희망하는 젓소 송아지 전량을 마리당 1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쇠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정육점뿐 아니라 수퍼나 편의점, 갈비집 등 식당에도 식육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부 기동대(수급조) 한과

표하고, 『약 2만마리에 달하는 송아지의 구입예산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사들인 젓소는 축협농장에서 2~3개월 기른 뒤 정육이나 가공육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착유 젓소의 10%에 해당하는 저능력 젓소 3만마리를 8월말까지 농가자율로 도태시키기로 하고, 마리당 10만원의 도태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전국 도축장에 대해 도태용 젓소

축사 도축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납용 한우매입육을 현재의 연 3천40t에서 7천1백20t으로 늘리기로 했다.

< 芮乘一기자·biyeh@chosun.com >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우 137-07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02)588-7035 / 전송(02)584-5144 / 담당 이윤창

문서번호 한낙육 98-1-121

시행일자 1998. 7. 28

수 신 농림부 장관

참 조 축산국장

제 목 우유와 쇠고기 광고 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

1. 낙농육우산업 안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 7월 27일(월)자 중앙일간지에 농업을 사랑하는 농림공무원들의 모임 명의 로 우유와 쇠고기 소비 확대를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한 건에 대해 소사육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소사육농가의 아픔을 대변하는 표현이며, 농림공직자가 앞장서서 소사육 농민의 입장으로 우유와 쇠고기 소비를 늘려줄 것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공직자의 책임의식이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금을 모아 광고를 게재하는 노력 등에 우리 낙농육우산업의 미래는 가능성이 엿보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4. 우리 낙농육우농가들도 자구대책 마련과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혀 드리오며, 다시 한번 농업을 사랑하는 농림공무원 모임과 농림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한국낙농육우협회



7월27일
월요일
1998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안경래** 세계일보 **김영** 외
서울경제 **제일경제**

“우유와 쇠고기는 영양가로 비교하면 값이 가장 쌉니다”

기르던 송아지를 거리에 버리고 가는
농업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자식같은 송아지를 버릴 수 밖에 없게한
IMF한파가 원망스럽습니다.

영국의 기원수장은 “정부가 나라의 강대국 위하여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게하는 일이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우유와 쇠고기 소비를 늘려주세요.

축산물 가격폭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IMF의 극복을 위해서도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유와 쇠고기 소비를 예전대로 늘려 주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농림공무원들의 모임”

※이 광고는 “농업을 사랑하는 농림공무원들의 모임”의 성금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입맛없는 사람 우유밥이 최고”

농림부장관, 본격홍보

『따뜻한 밥 한 공기에 우유 2백ㄷ를 붓죠. 우유는 차가워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김치 한 찢가락을 얹어 놓으면...』

김성훈(金成勳·오른쪽) 농림부 장관이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우유밥」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소하지요? 처음엔 좀 느끼하겠지만 동·서양 최고 먹

거리가 만난 완전 건강식입니다.』 김동태(金東泰·왼쪽) 차관, 비서실 송은정(宋銀程)씨는 『느낌이 부드러워 별미』라고 소감.

지난 6월부터 과천 정부청사 국무위원 식당 식탁에는 김 장관 건의로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가 오르고 있다. 현재 우유 재고는 1만6천여 t. 적정량의 3배다.

<글=朴鍾仁·seno@chosun.com / 사진=李鍾贊기자·jlee@chosun.com>

분유재고량 줄어들어 대북지원·제과업체 사용 늘어

분유재고량이 대북지원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유가공협회에 따르면 7월20일 현재 전국 26개 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분유재고량은 1만4천3백53 t으로 10일전인 7월10일 재고량 1만5천2백65 t보다 9백12 t이나 줄었다.

이처럼 분유재고량이 줄어든 것은 7월20일 북한에 분유 7백81 t을 지원한데다 6천5백원하

던 탈지분유값이 4천원대로 폭락, 국내 제과·제빵회사들이 국내분유 사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업체별 재고량은 △서울우유 3천6백64 t △매일유업 2천8백79 t △남양유업 1천2백99 t △부산경남우유 1천1백34 t △한국야쿠르트 1천54 t △롯데 8백30 t △빙그레 6백51 t △해태 3백45 t 등이다. <오영채>



김대중대통령(사진 중앙)이 김성훈장관(사진 왼쪽), 임창열경기도지사등을 대동하고, 경기도 화성군팔탄면 해창리 흥원목장(대표 신덕현·사진 오른쪽)을 방문, 젖소사육현황을 살피고 젖소의 생산성 등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 김성훈장관이 조사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축산인 애정갖고 도와줄 것”

김대통령, 흥원목장 방문 난관극복 노력 격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5일 농업인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산다면서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농가를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화성군 팔탄면 해창리 흥원목장(대표 신덕현)을 방문, 젖소 자동 먹이 시설과 자동 착유시설 현장을 둘러 보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다며 경영을 잘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젖소 송아지 수매 정책에 힘입어 젖소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낙농가들이 어려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신덕현

흥원목장사장이 고마움을 나타내자 김대통령은 젖소 송아지 수매정책은 정부의 잘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풀사료를 먹인 젖소와 배합사료 먹인 젖소와의 유질 차이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젖소가 수입소인지 국내젖소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농가 소득에 대한 관심도 빼놓지 않으면서 생산성과 소

득정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벼베기 현장도 방문,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격려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쌀은 반드시 자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농가 지원을 위해 농산물유통구조개혁과 수매정책 등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김대중 대통령 홍원목장 방문

현장 스케치

“여러분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낙농가 격려

IMF이후 농가소득에 관심

○...김대중 대통령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5분정도 일찍 홍원목장(대표 신덕현)에 도착, 곧바로 자동 착유현장을 둘러보면서 국내 낙농 산업에 남다른 애정을 표시.

김대통령은 착유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정도의 젖소에서는 1마리당 어느 정도의 젖이 나오느냐고 묻자 신덕현 사장은 1마리당 1일 보통 15-30kg의 젖을 짜내고 있는데 「저의 목장소는 대부분 30kg정도의 젖을 짜고 있다」고 설명.

○...김대중 대통령은 이 목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젖소가 국내젖소인지 수입젖소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수입소와 국내소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질문.

이에 대해 신사장은 80년대이후부터 젖소수입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소보다 국내소가 오히려 능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

○...김대중 대통령은 역시 농가 소득에 대한 관심도 빼놓지 않으면서 이 목장의 매상과 생산성이 어느정도냐고 묻기도.

IMF이전에는 적절한 수요 공급과 생산성이 좋아 연간 1억원을 상회했는데 IMF이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 8천만원정도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

이말이 끝나자 김대통령을 수행한 김성훈 농림부차관과 풀사료를 많이 먹이는 소는 유량이 많이 생산된다면서 풀사료를 많이 먹이는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김장관은 그러나 국내 축산업 구조상 풀사료만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하는 농가를 위해 울들어 사료값을 5번이나 인하. IMF이후 9-10%의 사료값을 인상한 셈이 됐다고 강조.

젖소별 자른 이유 묻기도

○...김대중 대통령은 풀사료를 먹인 젖소와 배합사료를 먹인 젖소와의 유질 차이는 어느정

도인지도 물으면서 착유한 것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피력.

이에 신사장은 풀사료와 배합사료를 적절히 조합해야만이 유질이 향상되고 유량이 많아진 다며 이는 생산기술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설명. 또 신사장은 「저의 목장에서는 경산우 45마리, 육성우 45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1일 1천2백kg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충 설명하면서 이렇게 착유한 원유는 매일 아침 8시경에 우유회사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집유하러 오는 동안 섭씨 4도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상세

생산성·유질·풀사료등에 특별한 관심 국내소와 수입소 차이점에 대해 묻기도 “젖소송아지수매 소값안정에 크게 기여” “대통령 방문 이례적인 일” 양축가 감명

히 설명하기도.

이어 김성훈 농림부차관은 배합사료 위주로 먹이는 소는 풀사료 위주로 먹이는 소에 비해 수명이 반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마치 이는 어린아들이 햄버거와 같은 것을 많이 먹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 그러나 이 목장은 풀사료 위주로 먹고 있는 모범농가인 점을 부각시키기도.

○...착유시설을 둘러본 김대중 대통령은 자동급이시설도 둘러보면서 젖소빨을 자른 이유를 묻기도. 이에 신덕현 사장은 빨을 자른 이유는 혹시 서로 부딪혀 유산할 염려가 있어 안전성 때문이라고 답변하며 낙농산업에 애정을 보여준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인사.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여러분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애정을 갖고 농가를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젖소 송아지 수매 정책에 힘입어 젖소 값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어 감사하다는 신

덕현 사장의 말에 젖소 송아지 수매 정책은 잘 된 정책이라고 김대통령은 평가한후 이 목장의 가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목장을 떠나.

목장 하루종일 축제분위기

○...김대중 대통령이 빠져나간 홍원목장은 마치 잔치집을 방불케할 정도로 축제 분위기 바로 그것. 김성훈 장관을 비롯 김강권 농촌진흥청장, 안중운 청와대 농림해양비서관등 관계관들은 대통령의 축산현장 방문은 유사이래 없

었던 일로 역시 농민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자랑.

앞으로도 대통령의 농민에 대한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가 맡은 바에 충실하자고 서로 다짐하기도.

○...홍원목장의 신덕현사장은 대통령이 방문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방문한 기념으로 방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면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의 방명을 받기도.

신사장은 최근 축산업계, 특히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적은 건의문을 서면으로 경호실에 제출했는데 내용인즉 각급 학교와 불우시설 아동에 대한 우유 급식 확대를 요망함과 아울러 촉발기금 확보를 위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조치 마무리를 요망했고, 도산위기의 해태유럽 납유농가 지원도 요망.

<김영란>

젖소 송아지 수매 실보다 득이 많았다

폐사 유감스럽지만, 우유 수급 안정 등 효과 많아

낙농육우협 정부정책 적극 지지 입장 밝혀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젖소 송아지 수매정책과 관련 정부의 송아지 수매는 애초부터 송아지 자체의 퇴출을 목적으로 한 정책인

만큼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5면 특별기고 참조 협회는 수매 대상이 간난 송아지였던 관계로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많은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불상사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감이나 이를 수매할 당시는 송아지 값이 두당 3만원도 안 돼 사료비조차 건지기 힘든 것은

물론 버려도 가져가기조차 꺼려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정부가 송아지나마 수매하게 되자 사육두수 감축과 이로 인한 원유(原乳)생산량의 감소로 송아지 및 큰소값이 상승하게 되었으며 우유수급도 어느정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협회는 또한 거저준다해도 외면하던 것이 송아지였지만 이제는 구매의욕을 되찾아 반전된 것은 송아지 수매정책의 결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거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수매한 간난 송아지 1만7천6백95마리 중 70%가 폐사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등 송아지 수매가 정책자금 남용으로 오도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한웅 기자

여 백

○ 기 고 문

여 백

낙농업무 담당자로서의 독백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아침일찍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계절에 대한 감각도 무디어가고 있었으나 오늘은 퇴근하는 시간에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옆을 보니 내키보다 큰 코스모스에 꽃이 활짝 피어있지 않은가? 그것이 반가워 꽃밭속에 들어가 보았다. 잠시나마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잊으려고 하는 사무실 일이 자주 연결되어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특히 며칠전의 일이 더욱 괴롭게 했다. 우리부의 과장급까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리고 전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석상에서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우유수급 문제에 대하여 장관님께서 걱정하는 말씀을 들을때 담당자로서 창담한 심정이 되어 얼굴을 들수가 없었고 또한 위 아래분께 죄송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본인이 낙농업무를 다시 맡은 것이 94년 12월이었으나 벌써 3년9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낙농산업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항상 문제를 안고 넘어왔다. 95년도에는 낙농진흥법 개정 추진, 우유 위생논쟁인 고품우유사건, 이차페트 유업체간 광고전 및 고발사건, 96년도의 우유수급 불안 및 산업피해구제신청, 착유기 파이프라인의 발암물질 검출, 14대 국회의 입기만으로 따른 낙농진흥법 자종 폐기, 97년도에 들어 어느정도 수급은 안정되었으나 조사료 수입자유화의 요구, 연말에 불어닥친 IMF한파와 사료가격 폭등에 의한 낙농경영 어려움과 아플 해소하기 위한 금년도 1월의 원유가격 인상, 이것과 IMF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한 우유소비 감소에 따른 우유수급 불안과 연유의 급증등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장·차관 우유소비홍보요원 자처

오늘은 그동안 낙농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소감을 솔직히 말해서 낙농가에게 설심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한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전부 잘했다는 받아들여는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판단을 할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그 목소리는 정부가 무책임임을 써야 한다는 것으로 환속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언이 노력해가 한다는 것은 알고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노력만으로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될수 있겠는가? 서로 맡은 분 각자 낙농가, 유업체, 유광업,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하는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먼저, 낙농진흥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보자. 개정 목적이 개방화시대에 불합리한 원유 유통구조를 개선하면서 수요에 맞맞는 그러면서도 경쟁적인 원유를 생산하여야 국제경쟁력에 뒤처져 있는 우리낙농업을 그래도 유지할수 있다는 생각은 낙농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고 그것은 두차례에 걸친 장기간의 토론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의 조합에서는 겉으로는 민주화와 시장경쟁을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조합의 운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개정반대를 주장하면서 정치인을 동원하여 개정법률안의 국회심의의 마저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래도 원유가격은 정부에서 계속 결정해주기만 바라보는 모순되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격론은 거쳐 결정된 사항은 서로 합심하여 순항되도록 하는것이 민주주의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안이 확정되었고 시행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

금도 원론적인 사항은 논의하자고 한다면 개혁은 표류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 낙농업이 급진정화였고 앞으로도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심정이겠으나 미래는 그렇지만 양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세계 낙농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생산의 자유화, 정부에서의 가격결정, 무질서한 집유제도, 검사의 불공정성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낙농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조금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전체 낙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결정된 사항은 같이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성숙된 민주시민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주체성을 가진 적극적인 입장에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유업체들도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두번째,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다. 우유수급안정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앞선다. 최근에는 성수가 도래로 원유가 부족하다고는 하나 소비 주중품목인 백색시유의 소비량이 지난해 대비 10%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할수 있는 것은 아닐에도 벌써 수급안정이 되었다고 하고 있으니 걱정이 많으며 걱정이 걱정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과거의 수급안정 문제는 차치하고 금년도에 수급안정

**초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아
다 죽어가는 송아지를 내놓고
지원금을 받겠다고 하는 양심
낙농가의 의식전환이 없는한
위기극복은 요원하기만 하다.**

을 위해 추진하면서 느낀점을 적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유수급 문제에 대하여 내외의 모든 상관이 요즘처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적은 없다. 장·차관님이 홍보요원처럼 뒤설때 보좌하는 실무자의 심정은 어떨지 누가 알겠는가? 원유위생 문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생산자와의 의무임에도 일부 낙농가가 구태의연하게 원유에 물을 타고 이것에 대하여 모방수사에서 취재하고 있음은 알았을때 직접 방송사등을 다니면서 보도되던 낙농이 끝장 날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면서 설득하였고 낙농경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반박하는 사료업계에 가격인하를 종용하여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축박기금이 바닥이나 있는 상태에서도 젖소 도태경비로 두당 10만원의 보조지원과 개갈 보기도 하락한 젖소송아지 가격인정을 위하여 송아지 값 두당 10만원에 매일토록 결정해 주었고 민간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에 부탁하여 37일동안 1만5천 Km의 국토순례도보행전에서 모금되는 성금은 남북한 어린이에게 분유를 보낼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병진소니 신문집지의 특집에서 우유업을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주었고 대통령께서 참석하여 국무회의 의상에서까지도 모든 공직자가 우유소비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주었다.



김남철 과장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낙농가 단체 그리고 유업체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가? 동네에서 그래도 우지로 통하기 때문에 유업체는 자체 노력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적극성이 없어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직접적인 손익과 관계되면 그렇거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가? 낙농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들도 낙농가를 위하여도 모순례를 해 주는데 우리 낙농가, 단체, 유업체는 과연 모금운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정말 부끄러움의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낙농가들이 ARS모금에 농가당 2동화씩(4,000원)만 하여도 지금까지 실적의 배가될 터인데 참여가 저조하였고, 또한 모건문지에서 모금하고 있는 운동에 낙농가들은 물론 업체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간단히 내용을 물었다는 핑계만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의 책임이다 할수 있는 것을 회피할수 있는가 묻고 싶다

이기주의에 밀린 자조금제

그리고 우유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는 자만해들어 협조요청 했을때 가격인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소비자들은 우유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여론이 일뿐만 아니라 사료가격도 인하되었기에 원유가격 인하조정을 검토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축협등 생산자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자조금 조성도 축소돼 추진을 자율적인 노력을 할것이니 원유가격 인하를 유보해 줄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고 추진결과를 보아 인하여부담 결정으로 한바 있다. 그런데 자조금도 서로 핑계를 대면서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어느조합의 경우는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참여 여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젖소도태 역시 계획대로 미달된 상태이다.

물론 부산물로 취급되고 있는 송아지 가격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유수급의 조기인정을 위해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낙농관련산업인이 모두 참여해야 될 것인데도 나는 손해볼 보아서 안되고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것을 제3자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시유가격 인하문제에도 1개월이상의 시간을 쏟고서야 결론을 내린바 있다. 송아지 매입사업은 추진하면서는 정말로 실행할수 밖에 없었다. 초유도 제대로 급여하지 않은 다 죽어가는 송아지를 내놓고 10만원을 지원받겠다고 하는 양심, 매일한 송아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폐사되도록 하는 처사등은 한심하다는 표현밖에 할수없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근 우유수급이 어느정도 안정되고 있다. 우유수급이 안정된다면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등이 느껴져서라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특별기고



이상수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음매, 음매... 여의도에서, 과천에서...

지난 6~7월경 도심에서의 때아니 송아지 울음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아파 했는가? IMF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우유와 쇠고기 소비가 감소하여 공급과잉 상황을 보임에 따라 분유 재고는 사상유래없는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산지 소값도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젓소 송아지의 경우 관로마저 막혀 낙농가들이 도심의 한 복판에 송아지를 내다 버린 것이다.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소비를 늘리든지 생산을 감축하든지 2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의 조기안정을 위해 2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고 생산감축지원의 일환으로 축협을 통해 젓소송아지를 마리당 10만원씩 매입하는 젓소송아지 매입사업을 7월18일부터 8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1만6천이상이었던 분유재고가 1만 수준으로 감소되고 산지소값도 어느정도 회복되고 있으며

관단을 기대하면서 정부에서 그와 같이 밖에 처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젓소송아지 수매사업의 본질은 우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낙농육우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일시에 수매하여 시장에서 완전 격리를 시켜야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폐사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농가들로부터 수매하는 관계로 질병유입을 차단할 수가 없었고 많은 두수를 수매하여 밀집사육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업추진기간이 하절기와 겹쳐 질병 발생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농가에서는 초유도 제대로 급여하지 않고 수매에 응하는 등 농가에서 출하한 송아지의 건강상태도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것도 폐사율이 높은 원인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다면 개체별 사육시설을 사전에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면

젓소 송아지 수매사업의 성과

특히 젓소송아지가격은 초유편기 11만원, 분유기폐기는 18만원 수준까지 회복함으로써 낙농산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언론에서는 문제점만을 지적 기사화하고 있어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업추진기간동안 수매한 송아지는 총 17,695두로써 그동안 9,291두가 폐사되고 3,717두는 무상제공하여 도축후 불우시설에 기탁하는 등으로 처리하여 10월7일 현재 4,687두만 사육되고 있으며, 현재 사육되고 있는 송아지도 육골중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10월 중순까지는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서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3가지이다. 첫째, 왜 이렇게 폐사율이 높은가?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 후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와 같이 많은 두수가 폐사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둘째, 정부에서 마리당 10만원씩 돈을 주고 산 송아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셋째, 생산감축을 위한 시책이라면 외국에 수출하면 될 것 아닌가? 등이다. 그렇다면 국민여러분들의 냉철한

수급이 가는 면도 없지 않으나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우리국민 어느 누구도 예측치 못했으며, 사전준비를 위해서는 송아지 사육 케이지를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을 하다보면 시기를 잃을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고정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매송아지를 무상 제공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당초 정부는 젓소송아지 수매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매한 송아지는 2~3개월 사육후 국내 육류 수급동향이나 우유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축 처리코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따라 수매개시의 함께 처리방안 수립을 위해 1차 시험도축을 하였으나 골격 및 근육발달이 미약하고 송아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있어 식육이나 가공육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도축시 상품가치는 지육 마리당 13~28천원에 불과 1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결손이 예상되고 있었다.

▶ 10면으로 계속됩니다

특별기고

5면에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협을 비롯한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수매송아지 처리와 관련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생산자단체의 건의중 일부를 수용하여 수매조합장 책임하에 도축 등으로 무상제공토록 하는 등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재량처분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잔혹한 도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중지토록하고, 전량 수출을 위해 외국수입업자 입회아래 2차 시험도축을 실시하였으

나 이미저도 여의치가 없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경남 하동소재 육골즙제조업체인 (주)코리안헬트에서 송아지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운송비와 도축비 등 제비용은 자체에서 부담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생산감축을 위한 사업목적 달성과 결손 최소화를 위해 육골즙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처리토록 조치한 것이며 10월중순까지는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수출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외국수입업자 입회아래 실시한 시험도축 결과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가지 우리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생산감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WTO규정상 폐기하는 것

이 원칙이므로 수출시 국제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젓소송아지 수매사업을 시행하면서 장·차관님을 비롯한 윗분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담당사무관으로써 죄송한 마음도 많지만 배운것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언제 송아지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가? 큰소는 여러차례 수매한 경험이 있지만 송아지는 유사 이래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준비 소홀도 있었을 것이고, 관리부실도 있었으리라 생각도 되지만 밤낮 구별없이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 분유재고가 감소되고 소값이 올라 낙농육우산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보고 가

슴 뿌듯함을 느낀다.

다만, 한가지 무릇 언론의 생명이 진실보다와 공정성에 있다는 생각에 미치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우리사회에서는 지금 한창 「제2의 건국」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잘잘못을 가려서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건국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IMF 상황하에서 가득이나 어려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여 백

3.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여 백

목 차

I. 사업추진실적	287
1. 사업추진배경	287
2. 추진일지	288
3. 송아지생산안정제시범사업 개요	290
4. 향후 전망 및 계획	299
II. 공문 모음집	301
1.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확정 및 계획 통보	303
2. 도상연습추진계획 통보	315
3.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	333
4.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345
III. 홍보 및 보도자료	365

여 백

I. 사업추진 실적

1. 사업추진 배경

-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은 감소, 반면 선진국형 육류소비 증가추세에 따라 축산업의 비중은 증가
- '93년 UR이 타결되고 WTO체제가 출범되면서 우리축산물도 수입개방화와 자유화로 2001년 1월1일부터 생우와 쇠고기가 전면개방
- 개방과 동시에 외국의 값싼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하락 하고 동시에 큰소가격과 송아지가격이 하락할 것임
 - 양축가들은 가격하락으로 사육심리가 위축되는 한편 비육농가들은 수입쇠고기와 경쟁을 하기 위해 한우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축비(표1참조)를 낮추기위해 번식농가로 부터 송아지를 싸게 구입하려 할 것임

표1) 최근 10년간('88~'97) 육성장기비육우 생산비 내역

경 영 비				자가노력비	합 계
가축비	사료비	기 타	소 계	자본이자	
49.6%	24.7	3.3	77.6	22.4	100
(51.1%)	(25.9)	(3.8)	(80.8)	(19.2)	(100)

※ ()내는 '97생산비 구성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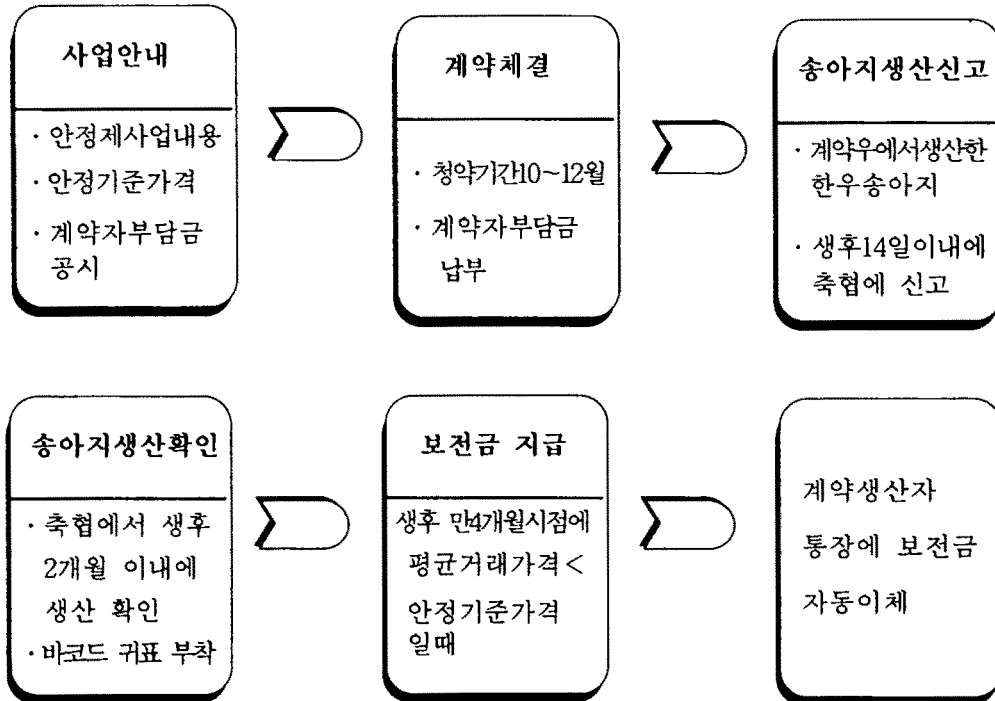
-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한 번식농가는 최종 소비자인 비육농가에게 송아지를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송아지 가격 하락이 직접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송아지 생산 의욕이 저하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우사육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번식농가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단순 재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추진일지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94.6	○ 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방안 검토	
'94.12.31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마련	○ 축산법 및 축협법 개정
'97.7.14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계획 발표	○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일환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발표
'97.8~12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준비단 발족	○ 설치장소 : 축협중앙회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및 제규정 마련
'98.2.11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계획 확정	○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도상연습('98.3~6월)과 시범사업('98.7~12월)을 거쳐 본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키로함
'98.3~6	○ 도상연습실시	○ 경기도 여주군·안성군 - 기초환경조사, 제서식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현장적응연습
'98.6.29	○ 송아지생산안정제 심의위원회 개최	○ 시범사업기간중 적용할 안정기준가격 및 계약자 두당 부담금등 심의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98.7.7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	○ IMF이후 송아지생산기반 안정과 한우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송아지생산안정제시범사업을 '99.7.16~'99.9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 각도별 2개씩 16개 시·군에서 실시
'98.9.29	○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 지역 확대 실시	○ 소 수매중단이후 침체된 송아지 번식농가의 송아지생산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10.20일부터 8개도 16개 시·군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확대
'98.9.30	○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청약기간 연장	○ 9월말로 끝나는 1차 시범사업의 청약기간을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미가입한 축산농가에게 가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달간 연장

□ 업무추진절차



- 계약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내 한우암소 사육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및 그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는 제외
- 계약대상우 : 바코드귀표를 부착한 국내산 한우암소
 - 귀표 미부착우는 부착후 계약체결 가능
- 청약기간 :
 - (1차) '98.7.16-10.31
 - (2차) '98.10.20 ~ 12.30
- ※ 계약장소 : 사업장소재지 지역축협(또는 지정장소)
- 계약자 부담금납부 : 계약생산송아지1두당 10천원

□ 계약체결

- 계약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축협을 방문하여 청약서에 (양식1) 계약우별로 계약생산송아지두수 등 계약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계약자 준비사항과 함께 제출하고 계약자부담금을 납부
 - 계약자부담금납부액 : 계약생산송아지두수 × 10,000원
 - ※ 납부한 계약자부담금은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라든가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계약자 준비사항
 - 계약자부담금, 주민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축협통장(계좌번호))
 - 계약대상우별로 바코드귀표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 임신중이면 임신개월수, 임신 예정우면 수정예정월을 기록하여 지참
 - ※ 귀표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귀표미부착우는 부착후 계약(추가) 가능

□ 계약자보관용 계약(청약)서 수령

- 계약자부담금 납부후 조합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자보관용 계약(청약)서 수령 보관관리

□ 계약후 계약자가 할 일

- 바코드귀표번호의 현지확인 협조
 - 확인기한 : 계약체결일 ~ 청약기간 종료후 7일 이내
 - 확인자 : 계약조합 직원
 - 확인내용 : 계약자가 기록하여 제출한 동일귀표번호 계약우의 존재여부
 - 협조사항 : 계약자보관용계약(청약)서를 지참하고 현지 확인에 동참

□ 송아지생산신고

- 내용 : 계약우가 계약기간중(계약체결일~'99. 12. 31까지)에 계약우별 계약생산송아지두수 내에서 한우송아지 생산시, 계약자는 그 사실을 송아지생산후 14일 이내에 계약 축협에 신고

※ 기간내 송아지생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방법 : 지역축협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어미소의 바코드귀표번호, 송아지생산일자, 성별 등을 통보하고 접수번호 수령

□ 송아지 생산확인 및 바코드귀표 부착

- 내용 : 생산신고를 받은 지역축협은 송아지 생후 2개월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계약우로부터의 송아지생산여부를 확인하고 바코드귀표를 부착

- 조건 : 계약우와 송아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바코드귀표부착시 계약우가 없으면 계약우로부터의 송아지 생산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송아지에 귀표를 부착하지 않으며 그 송아지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됨 단, 계약우의 폐사로 계약우가 없을 경우 계약자가 그 사실을 수의사의 진단서 또는 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의 제출로 사실을 증명하면 그 송아지는 귀표부착대상이 됨

※ 쌍자이상의 경우 계약우 개체별 계약생산송아지두수 범위 내의 송아지만 귀표부착

※ 바코드귀표부착시 계약우 바코드귀표의 탈락 또는 심각한 훼손으로 계약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귀표를 부착하지 않음

※ 현지확인 귀표부착시 생산송아지의 정액번호나 아비소의 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 산업 정보화실시요령에 의거 귀표장착우 조사표에 기재관리토록 협조

□ 계약의 변동신고

-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중 소유자, 계약우, 계약생산송아지두수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 동일 시·군 지역내에서 계속사육시 승계를 인정
 - 계약자사망시 피상속인은 사유발생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의 승계신청
 - 기 계약우 이외의 다른소를 추가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약기간내에 동요령에의거 계약가능

□ 바코드귀표의 훼손 및 탈락 통지

- 내용 : 계약우 및 계약생산송아지에 부착한 바코드귀표가 탈락하였거나 심각한 훼손을 입었을 경우 계약조합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
- 방법 : 계약자는 계약조합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당초의 바코드귀표번호 등을 통지하고 접수번호 수령
- 조치 : 조합은 통지사항을 기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후 한국 종축개량협회에 재발급을 요구하여 발급받은 바코드귀표를 재부착(당초번호와 같은번호)

□ 계약자의 주소 등 변경 통지

- 내용 : 계약자의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계약조합에 14일 이내 통지
- 방법 : 계약자는 계약조합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변경사항 등을 통지하고 접수번호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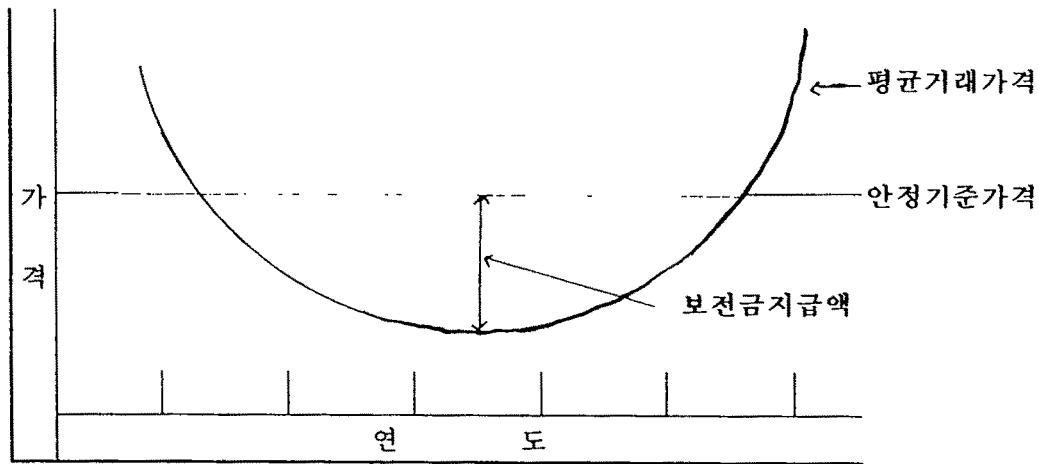
- 조치 : 조합은 통지사항을 기록하고 접수번호 부여후 변경내용을 전산 등록

□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의 지급

◦ 보전금의 정의

분기별 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

☞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자동이체



◦ 지급사유

- 계약자의 송아지생산신고에 의거 바코드귀표부착 및 등록이 완료된 송아지가 만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가격 미만인 때

◦ 지급절차

- 축협중앙회장은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송아지평균거래가격을 고시 또는 공고하고, 고시 또는 공고후 20일 이내에 지역축협을 통하여 계약농가의 계좌에 보전금을 이체

□ **지급액** = 지급대상두수 × (안정기준가격 - 분기별 평균거래가격)

-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은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
- 시범사업기간중의 **안정기준가격은 700천원**으로 운용
 - 송아지 1두당 **보전금지급액의 한도는 100천원** 임
- 쌍자 이상의 경우는 계약우별 계약생산송아지두수 범위내에서만 지급대상 송아지두수로 계산

< 보전금 지급 예시 >

- 안정기준가격 : 700천원
- 송아지분만일 : '99. 12. 21
- 만4개월령 도달일자 : 2000. 4. 20 (2/4분기)
- 2/4분기 4~5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 550천원
- 보전금지급액 : $700 - 550 = 150$ 천원이나, 두당 보전금지급한도액인 100천원 지급

□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회복시까지 유보할 수 있음
- 자치단체부담금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납입시까지 보전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보전금의 지급중지 및 회수

- 다음과 같은 경우 축협은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전금은 회수함
 - 계약우 및 계약생산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 생산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자가 본사업에서 제한하는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생산 송아지에 바코드귀표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우 또는 계약생산송아지에 소유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계약우의 폐사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의 제출시는 제외함

□ 안정기준가격

- 내 용 : 송아지의 생산여건 및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송아지의 단순재생산 기반을 확보·유지하기위해 설정하는 가격
- 결 정 : 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
 - ※ 심의시 참고사항
 - 송아지 생산경영비 및 자가노력비
 - 생산동향 및 향후 추정두수
 - 큰소 및 송아지 가축시장거래가격
- 공시 : 축협중앙회장이 사업개시전까지 고시 또는 공고
 - 시범사업기간중의 잠정적인 안정기준가격 : 700천원

나. 평균거래가격

- 내 용 : 송아지의 시장 실제거래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격으로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산출하는 가격
- 산 출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내에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
- 현재 전국 140개의 가축시장중 80개소

- 공 시 : 축협중앙회장이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천원 단위로 고시 또는 공고

□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액

- 시범사업기간중 재원의 과다소요 방지와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시·군의 농가와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계약생산 송아지 마리당 보전금 지급상한선을 설정
- 지급한도액은 계약참여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에서 10만원으로 결정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약자가 준수할 사항
 - ① 계약서 작성, 계약암소 귀표확인 또는 귀표부착
 - ② 계약자부담금납부(두당부담금×계약생산송아지두수)
 - ③ 송아지생산신고(생후 14일 이내, 계약지역축협)
 - ④ 생산송아지 확인(생후 2개월 이내 확인 귀표부착)

□ 계약자부담금

- 내용 : 사업계약시 계약자가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부담하는 금액
- 결정 : 안정기준가격의 1~3% 범위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
- 공시 : 축협중앙회장이 사업개시전까지 천원단위로 고시 또는 공고
 - 시범사업 기간의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부담금 : 10천원

□ 지방자치단체부담금

-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관할지역 한우암소 사육자가 계약시 축협에 납부한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
- 결정 : 지역축협이 청약종료후 체결결과에의해 해당시·도(시·군)에 통보한 금액 (통보시기 : 청약종료후 10일 이내)
- 납부 : 청약기간 종료후 2개월이내에 해당지역축협에 납부

4. 향후전망 및 계획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전국확대 실시 대비

- 시범사업 시행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98.11-'99.12)
 - 시범사업 시행중 발생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 전산프로그램 보완('98.9-12월)
 -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업무내용 분석, 입출력 설계 프로그램 및 종합테스트 등 실시

□ 시범사업기간동안의 안정기준가격은 잠정기준가격으로 산정식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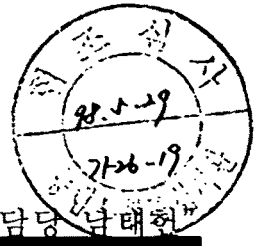
여 백

Ⅱ . 공 문 모 음 집

여 백

1.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확정 및 계획 통보

여 백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427-760/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504-9436/전송 507-3966 “담당 남태현”

문서번호 축통51550- 71

시행일자 1998. 2. 11. (3년)

(경유)

수 신 축협중앙회장

참 조

제 목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계획 통보

1. 2001년 생우와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계획(안) 및 시범사업실시계획(안)을 통보하오니

2. 축협중앙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상연습 및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소요예산 파악, 세부추진일정, 관련규정 마련 등)을 검토하여 도상연습계획은 '98. 2.21까지 시범사업 실시계획은 '98. 5.9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계획(안) 1부
 2.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실시계획(안) 1부
 3.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규정(안)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제 2 안)

수 신 : 각 도

제 목 : 같은 건

1. 2001년 생우와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계획(안) 및 시범사

업실시계획(안)을 통보하오니

2. 귀도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시범사업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 시.군을 선정(도별 2개 시.군)하여 '98.5월말까지 우리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계획(안) 1부
2.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실시계획(안) 1부
3.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규정(안)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받는곳 : 410-18.

(제 3 안)

수 신 : 축산정책과장

제 목 : 같은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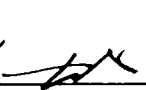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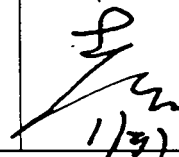

1. 2001년 생우와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계획(안) 및 시범사업실시계획(안)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과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예산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계획(안) 1부
2.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실시계획(안) 1부
3.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규정(안) 1부. “끝”.

축 산 물 유 통 과 장

농정실장 83
 기획관리실장 84
 축정과장 887

국 장	차관보	차 관	장 관	보
				

보고자 : 축산물유통과장 최 상 태



문서번호	축통 51550-45		
보존기간	5년	간제실시	21.1.1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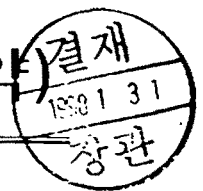


('98. 1.)

축 산 국

여 백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계획(요약)



I. 도입목적

- 2001. 1 생우 및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시 한우쇠고기가격 하락으로 비육농가의 한우송아지구입 기피 및 송아지가격 하락 예상
 - 이로 인해 번식농가의 경영악화로 암소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한우번식기반이 붕괴될 우려
- 한우 송아지생산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 주기 위해 송아지의 시장거래가격과 안정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번식농가에게 보전
 - 수입개방이후에도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함으로써 한우산업이 농가의 소득기반으로 발전 도모

II. 추진경위

- '94. 6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방안 검토
- ✓ '94. 12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및 축협법 개정
 - 축산법 제 35조(육용송아지의 생산안정조치)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 53조(지역축협 사업의 종류)
- ✓ '97. 7 송아지생산안정제 추진계획 확정 발표(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 '98.3~6 시범사업, '98.7부터 본사업실시



Ⅲ.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계획(안)

1. 시행기간 : 2000~2006(7년간) 기간중 한시적으로 실시

✓○ 도상연습 : 98. 3~6월, 시범사업 : 98. 7~99. 12

✓○ 본사업 : 시범사업실시후 사업평가 및 농가호응도에 따라 결정

2. 사업시행기관 : 축협중앙회장 및 지역축협

○ 협조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종축개량협회, 시.군 전산화추진위

3. 소요재원

가축시장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금으로 지급할 재원 및 관리비등 약4,400억원 소요 추정

※ 도상연습. 시범사업 실시후 재산정예정

재원별 조성

○ 축산발전기금 출연(총재원의 80%)

○ 계약농가부담금(총재원의 10%)

○ 지자체부담금(총재원의 10%)

※ 축산발전기금 출연금은 WTO 농업협정상 De-minimis 규정을
원용하여 지원 가능

-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하더라도 해당품목의 년간 총생산액의 10%(개도국)까지 지원을 인정(농업협정 제6조 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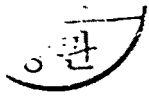
4. 계약절차

- 계약대상농가 : 국내 한우번식우 사육농가
- 계약대상우 : 소 전산등록을 필하고 바코드번호 및 전산등록증이 부여된 국내산 한우 암소(임신우포함)
- 농가 계약기간 : 2년
 - 청약기간 : 매년 1 ~ 3월
- 계약신청 및 체결
 - 계약대상자는 청약기간내에 별도의 서식(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청약서)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의 축협에 계약을 신청
 - 계약자는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부담금액에 계약 생산송아지 두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관할 지역축협에 납부함으로써 계약 성립

5. 안정제 기준가격의 결정 및 보전금지급

안정기준가격

- 송아지의 생산조건 및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매년 계약모집기간 2개월전)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가격
- 번식농가의 송아지생산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를 고려하여 송아지 재생산 및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경영합리화가 가능한 수준(재생산 가능수준)까지 연차별인하 유도
 - 2006년 안정기준가격은 '98 가격의 80% 수준으로 유도



< 98년 안정기준가격 예시 >

(단위 : 천원)

구분	'96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산비	1,375	1,375	1,348	1,306	1,238	1,196	1,169	1,141	1,114	1,100
경영비	610	610	598	580	549	531	519	506	494	488
안정기준가격 (잠정)	-	833	812	791	771	750	729	708	687	666

※ 안정기준가격 산출 : 경영비+자가노력비의 70% 수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축산물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와 축산물유통 및 가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15~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균거래가격

- 송아지 주요생산지역의 가축시장(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4~5월령 송아지가격을 기준
- 지정가축시장에서 분기내 거래된 암·수송아지의 거래가격을 암·수송아지별로 가중평균하여 암수별 거래가격을 설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

□ 농가부담금 및 지자체부담금

- 매회계년도 개시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
 -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시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안정기준가격의 3% 이내 수준에서 결정
- 지자체부담금은 매년 지방비예산으로 편성



보전금 지급

-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가 만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인 때 보전금 지급
 - 보전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환급 불인정

- 지 급 액
 - 해당연도 안정기준가격에서 분기평균거래가격을 차감한 금액
 - 보전금 과다발생시 두당 보전금 한도액(예 : 25만원) 설정
재원의 일시적 고갈 방지를 위해 한도액 설정

- 지급방법
 - 보전금 지급금액을 공시한 후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농가의 통장에 자동이체

- 지급시기 : 평균거래가격 고시후 20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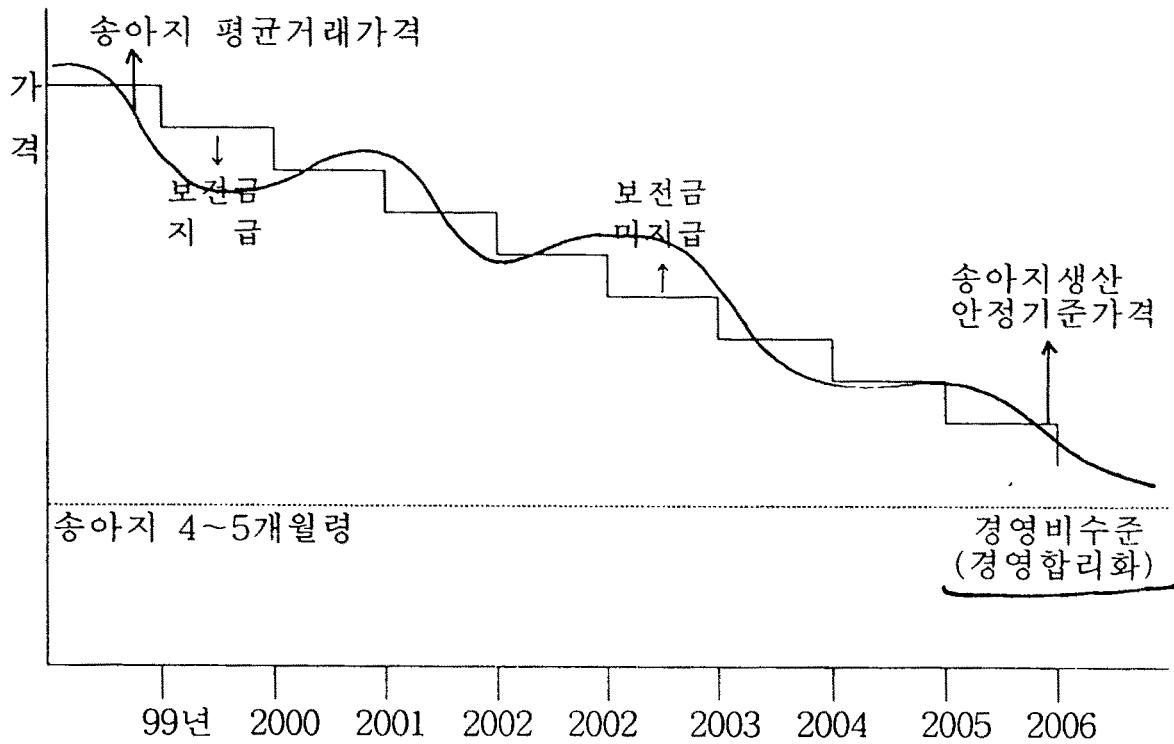
6. 시행요령제정 : 농림부훈령

7. 전산개발 추진

-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관한 사항 전산화 추진
 - 기본적인 사항은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과 연계하되
 - 축협 자체 고속통신망에 접속하여 자료수집체계 안정 도모
- 도상연습기간에 시범사업용 전산 S/W 개발하여 적용, 보완
- 전산개발항목
 - 7~8개 상위프로그램과 3~4개 하위프로그램 개발 예정



< 참고 : 보전금 지원방법 >



-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 그 차액에 대해 보전금 지급
 (기금지원 80%, 지자체부담 10%, 농가부담 10%)

2. 도상연습추진계획 통보

여 백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427-760/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504-9436/전송 507-3966 “달달 남태희”

문서번호 축통51550-124
시행일자 1998. 3. 5. (3년)
(경유)
수 신 축협중앙회장
참 조

제 목 :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상연습 추진계획 통보

1. 축통 51550-71('98.2.11)호, 축기 31209-89('98.2.23)호와 관련됨.
2. '98. 3~6월간 실시예정인 도상연습 추진계획을 통보하오니
3. 귀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상연습 세부추진계획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제 2 안)

수 신 : 축산정책과장
제 목 : 같은 건

1. 축통 51550-71('98.2.11)호와 관련됨.
2. '98. 3~6월간 실시예정인 도상연습 추진계획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과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예산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상연습 세부추진계획 1부. 끝.

축 산 물 유 통 과 장

여 백

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상연습 세부추진계획

1998. 3

축 산 국

여 백

1. 목적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의 시범사업 및 전국실시에 앞서 우선 경기도 2개 시·군을 선정, 도상연습을 실시하며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서식적용,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 제반사항을 현장에 적용, 보완하여 시범사업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함

2. 실시기간 : '98. 3 ~ '98. 6월

3. 추진기관

- 사업시행기관 : 축협중앙회(지역조합)
- 협조기관 : 시·도(시·군·자치구), 종축개량협회,
시·군 전산화추진위원회

4. 실시지역 : 경기도 안성군, 여주군

5. 소요예산 : 32,378천원

※ 시범사업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등 관리비용은 추후 결정

6. 도상연습 세부추진계획

가. 기반구축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단 구성(축협중앙회내 전담조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축협중앙회내 15~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 심의위원 위촉 및 통보
 - 심의위원회 개최
 - 업무보고
 - 시범사업 규정(안) 심의
 - 안정기준가격, 부담금심의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특별회계 설치
 - 특별회계 계정, 세무등 검토
 - 회계지침 작성
 - 협의회 개최
 - 회계장부, 서식 개발
 - 축협 이사회 부의(확정)
- 축산법개정 검토
- 전산시스템 구축
 - 전산개발 기본계획 수립
 - 기초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시스템구성도 확정
 - 주전산기 설치(기존 전산기기 공동활용방안 검토후 결정)
 - 기종선정
 - 기기설치

- 프로그램 개발
 - 생산안정제 업무분석
 - 입력/출력 설계
 - DB 외부 및 내부설계
 - MODULE 설계
 - 프로그램구현 및 단위테스트
 - 종합테스트
- 실행
 - 최종검토회
 - 사용자교육 및 실행

나. 시행제도 마련

시범규정

- 소 전산화사업 현장확인
- 시범규정(안) 작성
- 협의회 개최 및 확정
- 안정기준가격 검토

계약서(약관)

- 계약서(안) 작성
- 법률상 검토
- 협의회 개최 및 확정

장표 및 관련서식

- 장표 및 관련서식(안) 개발
 - 계약농가 관리대장
 - 생산신고 및 접수대장등
- 협의회 개최 및 확정
- 장표 및 서식 제작·배포

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홍보

홍보유인물 제작·배부

- 팜플렛
- 리플렛

라. 도상연습

대상자 선정

- 대상 시·군 확정(여주군, 안성군)
- 참여농가 선정(군당 20농가)

도상연습 설명회

- 자료작성 및 설명회개최
 - 대상 : 축협, 시·군담당자, 양축가

도상연습 실시

- 규정 및 서식 현장적용
 - 청약서 접수
 - 계약대상우 확인
 - 송아지생산 신고
 - 현지확인, 귀표부착
 - 보전금지급 등

도상연습 참가농가 사례비

- 사례비 지급기준 확정
- 사례비 지급

도출문제보완, 시범규정확정

- 협의회 개최
- 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마. 시범사업 준비

대상자 선정

- 시·군 선정 문서발송
- 대상 시·군 확정

시범사업 설명회

- 자료작성 및 설명회 개최
 - 대상 : 축협, 시·군, 양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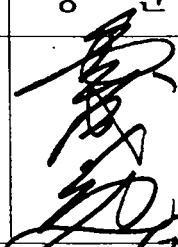
청약기간 공고

- 안정기준가격, 부담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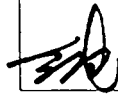
시범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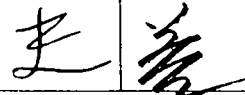
- 계약체결
 - 청약서접수
 - 계약자, 대상우 자격확인
 - 계약자 부담금 수납
 - 계약사항 등록
-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수납
- 계약우 관리
 - 송아지생산신고 및 확인
- 평균거래가격 공고
- 보전금 지급
 - 보전금 지급게시 및 안내
 - 계좌입금

여 백

국 장	차관보	차 관	장 관	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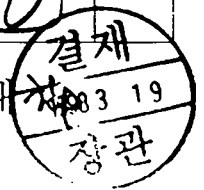
추경과장 887





문서번호	1450-28		
트존기간	3	결재일자	1998.3.19

보고자 : 축산물유통과장 최 상 태



송아지생산안정제 추진상황(보고)

'98. 3.

축 산 국

여 백

I.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개요

□ 실시배경

- 개방전후 급격한 소값하락으로 인해 송아지 거래가격이 번식기 반유지를 위한 안정기준가격이하로 하락시 기준가격과 평균거래 가격과의 차이를 번식농가에 보전해 줌으로써 번식농가의 소득 보호와 송아지생산기반 유지

□ 농가계약 및 보전절차

- 대상 : 한우번식농가
- 축협중앙회(조합)가 암소사육농가와 계약 체결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
- 매년 1/4분기중 계약체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농가부담금은 계약체결시 납부
- 연도별 안정기준가격 결정·고시
 - 농가, 학계, 소비자단체, 축협, 행정기관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안정기준격가격 심의위원회(가칭)에서 송아지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 송아지가격 및 사육동향, 자가노력비 등을 감안하여 기준가격 심의



- 심의절차를 거친 기준가격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

	송아지 월령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준가격고시 (전년도10~12월)										위원회심의→농림 부장관 결정·고시		
절 차	←농가계약신청→			←개체확인 및 이표부착→			←————— 생산신고 및 확인 —————→					
보 전 금 지 급				←————— 평균거래가격 산정 공포 —————→			←————— 보전금 교부대상두수 확정 —————→ 생산자 보전금 교부					

□ 안정기준가격 수준

- 번식농가의 송아지생산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를 고려하여 송아지 재생산 및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경영합리화가 가능한 수준(재생산 가능수준)까지 연차별 인하 유도
- 2006년 안정기준가격은 '98 안정기준가격의 80% 수준으로 유도

□ 소요자금 및 조성계획

- 소요재원은 축발기금 80%, 지방자치단체와 참여농가가 각 10% 씩 부담토록 함
- 보전금은 2000년 ~ 2006년까지 약 4,400억원 소요(추정)
- ※ 축산발전기금 출연금은 WTO 농업협정상 De-minimis 규정을 원용하여 지원 가능
-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하더라도 해당품목의 연간 총생산액의 10%(개도국)까지 지원을 인정(농업협정 제6조 4항)



- '97.12.2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기본계획 정책심의회 상정
 - 원칙적으로 농민 스스로 추진하도록 민간 자조금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정기준가격 설정 및 시행 메카니즘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추가 검토후 실무정책조정협의회 및 정책심의회에 재상정

- '98.1.14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기본계획 실무정책조정협의회 상정
 - 한우산업 경영안정대책의 한가지 대안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 검토가 필요
 - 도상연습기간, 시범사업기간을 각각 1년씩 시행하고 실시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98.1.23~24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기본계획 정책심의회 상정
 - 도상연습(98. 3~6월) 및 시범사업(98.7~)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 99년 말까지 실시
 - 시범사업 실시후 사업평가 및 농가호응도에 따라 본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

- '98.2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계획발표(한우산업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
 - '98.2.6~7 : 시·도별 설명회 및 의견접수(축협, 농가, 시·군 공무원, 농촌지도사등 1,055명 대상)

II. 추진경위

- '94. 6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방안 검토
- '94. 12 축산법 및 축협법 개정을 통해 육용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95년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에 필요한 자금확보 추진
 - 촉발기금 반영('96년 900억, '97년 1,300억)
- '97. 7.14 송아지생산안정제 추진계획 발표(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 '98.1~6 시범사업, '98.7부터 본사업실시
- '97.8~12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준비단 발족(축협중앙회)
- '97.11.20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기본계획 실무정책조정협의회 상정
 - 98.1월부터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
 - 기존 프로그램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의 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 및 시행여건상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분석 필요
- '97.11.28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기본계획 정책심의회 상정
 - 일관사육농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되어야 함
 - WTO 농업보조금규정 합치여부(특히 De-Minimis 규정)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
 - 정책심의회 재상정하여 추가 논의 필요

3.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

여 백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상태 담당자 남태현

문서번호 축통51550- 283

시행일자 1998. 7. 7. (3년)

(경유)

수 신 받는곳 참조

참 조

제목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

1. 축통 51550-71('98.2.11)호와 관련됩니다.

2.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98.7월~'99.12월간 실시될 예정인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확정, 시달하오니 귀도(회)에서는 사업홍보 및 내용설명, 시행체제점검 등 시범사업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전산교육 및 사업내용 설명을 위해 7.16부터 개시 예정입니다

3. 시범사업 실시예정인 16개 시·군에서는 축협중앙회가 실시할 예정인 농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1.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실시계획 1부.

2.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요령 1부. 끝.



농 립 부 장 관

받는 곳 : 나10~17, 가 60, 농병04, 한국종축개량협회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상태 담당자 남태현

(제 2 안)

수신 : 축산정책과장

제목 : 같은 건

1. 축통 51550-71('98.2.11)호와 관련됩니다.

2.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전국시행에 앞서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98.7~'99.12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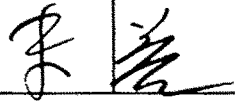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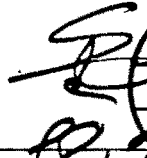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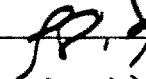

3. 귀과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실시 관련 장관방침 1부. 끝.

축 산 국 장

축산정책과장 887

공시일	1998. 6. 10		
보존기간	결재일자	1998. 6. 10	

국 장	차관보	차 관	장 관	결
				

보고자 : 축산물유통과장 최 상 태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계획

'98. 6.

축 산 국

여 백

I.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현황

1. 추진경위

-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 발표('97.7.14)
 - '98.7월^{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 전국 시행
 -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세부실천계획 수립('97.9)

-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기본계획 수립 발표('98.2)
 - 도상연습(CPX)과 시범사업 실시후 농가호응도와 평가결과에 따라 전국시행여부 결정.
 - 축협중앙회에 『송아지안정제 실시준비단』 발족

- 도상연습실시('98.3~6)
 - 경기도 여주·안성 2개군을 선정 실제 도상훈련 실시
 - 제규정서식 및 전산처리 프로그램 개발, 실제적응훈련

- 시범사업 대상시·군 선정지시 및 접수('98.4~5)
 - 각도별로 2개군씩 도합 16개군 선정

2. 도상연습(CPX) 실시결과(세부내역 붙임1 참조)

- 대상시군 : 경기 여주군, 안성시(2개 시.군)

- 도상연습 내용
 -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규정(안)의 현장적용(4.15~24)
 - 계약농가 청약서 작성, 접수·심사 및 계약체결
 - 바코드 귀표 등록확인, 송아지 생산신고 및 귀표부착, 보전금지급등
 - 제규정서식 및 전산처리프로그램 개발, 실제적응훈련

II. 시범사업 세부실시계획

1. 시범사업 실시목적

-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U1} ~~향후~~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 16개 시·군을 선정하여 전산운용 프로그램, 제규정 서식과 농가계약·개체확인 및 보전금 교부절차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농가호응도 및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여부를 결정코자 함

2. 실시기간 : '98년 7월 ~ '99년 12월까지 18개월간 실시

3. 기본방향

- 사업시행기관은 축협중앙회로 하며, 사업운영총괄과 보전금 관리 및 지급업무 담당
 - 지역축협은 농가와 계약체결과 보전금 지급업무 대행
 - '98.7~9월중 시범사업 지역축협조합장은 희망농가와 계약을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
 - 보전금 지급은 '99.1월부터 2000년 7월로 한정
- 안정기준가격은 축협중앙회장이 농·소·정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경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고
- 개체식별 및 확인시 소 전산화사업의 개체등록자료 공용
- 동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강구를 위하여 『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사업 별도 실시 추진

4. 시범사업 추진기관 및 업무추진절차

가. 추진기관

□ 중앙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시범사업 실시기본계획 수립, 안정기준가격 및 두당 농가부담금 승인, 국고예산의 확보 및 지원
- 축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단
 - 시범사업의 실시·보완 및 보전금 관리·지급
- 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 : 안정기준가격, 두당 농가부담금 심의
- 종축개량협회 : 계약우 귀표장착 및 전산등록사항 확인 협조

□ 지방(시범사업 시행 16개 시·군)

- 지역축협 : 농가홍보, 계약체결 및 현장확인
- 시·군 : 계약우 전산등록정보제공 및 귀표장착업무 협조

나. 업무추진절차

업 무 내 용	
어미소등록	○ 소 수급관리전산화에 의함
↓	
계약체결	○ 농가 청약에 의거 계약
↓	
송아지생산신고	○ 계약우 확인 - 계약체결전 까지
↓	
생산확인·등록	○ 농가 신고시 소 전산화추진위 통보 - 생후 2주 이내
↓	
보전금 지급	○ 현지확인 및 등록 - 생후 2개월 이내
	○ 보전금 교부신청 농가에 지급 - 생후 4개월령 도달일 기준

5. 시범사업 대상 시·군

□ 한우번식우 집산지 위주로 8개도 16 시·군 선정

- 선정기준 : 한우개량단지 보유, 한우암소사육두수, 지방비 확보 여부, 소 전산화 보급수준, 지역축협 업무협조 여부
- 가입대상우는 220천두로 추정(전국 1세이상 가입암소두수의 16.2% 해당)
- 시범사업 시·군 암소두수 294천두중 1세이상 가입암소비율 75% 적용

< 시범사업대상 시·군별 내역 >

도별	대상 시·군	한우사육 농가수(호)	한우사육두수			선정근거
			임소	수소	계	
경기	안성시	1,992	10,770	19,272	30,042	경기도 축산
	여주군	1,170	7,193	3,079	10,272	51550-967(5.20)
강원	춘천시	2,480	12,575	7,926	20,501	강원도 축산
	횡성군	3,303	15,363	7,612	22,975	51550-553(5.18)
충북	청원군	5,278	27,839	6,475	34,314	충북도 축산
	보은군	3,802	16,274	3,642	19,916	51550-369(3.7)
충남	공주시	6,829	32,473	8,366	40,839	충남도 축산
	홍성군	5,739	31,525	21,972	53,497	51550-700(4.21)
전북	임실군	3,441	12,351	3,443	15,794	전북도 축산
	정수군	2,741	8,728	4,279	13,007	51551-889(6.2)
전남	순천시	6,091	20,487	2,633	23,120	전남도 축산
	상항군	5,744	24,418	19,596	44,014	51550-687(5.15)
경북	영주시	3,904	16,801	16,663	33,464	경북도 축산
	영천시	4,438	17,813	9,523	27,336	51550-461(3.24)
경남	남해군	6,233	19,601	6,339	25,940	경남도 축산
	하동군	5,257	19,397	4,665	24,062	51550-102(3.25)
합계	16개시·군	68,382	293,608	145,485	439,093	

6. 송아지생산안정제 적용가격수준 및 두당보전소요액 산정

가. 보전금 ~~상장절차~~

청약이후 계약우(가임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시점(해당분기)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분을 보전금으로 지급

- 보전금 = 안정기준가격 - 시장평균거래가격
(안정기준가격 > 시장평균거래가격)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액 설정

- 재원부담 등을 고려, 보전금액이 두당보전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두당 보전한도액 전액을, 그 이하일 경우 보전금액만 지급

나. 안정기준가격

송아지의 생산조건 및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 송아지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

- 축협중앙회장이 시범사업 개시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경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고시

산정식 : $PS = [(Oa \times OVR) + (FL \times FLVR \times GR)] \times Ic$

Ps : 안정기준가격(가격 적용연도)

Oa : 최근 7개년(또는 최근 5개년 또는 직전년도)의 평균 경영비

OVR : 최근 7개년간(또는 최근 5개년간) 경영비 변화율

FL : 최근 7개년(또는 최근 5개년 또는 직전년도)의 평균 자가노력비

FLVR : 최근 7개년간(또는 최근 5개년간) 자가노력비 변화율

GR : 자가노력비 보장을

Ic : 경영개선 목표계수

※ 상세내용 <붙임 2> 참조

여 백

4.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여 백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총공통 18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이흥철

문서번호 축통51550-510

시행일자 1998. 9. 2. (3년)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제목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확대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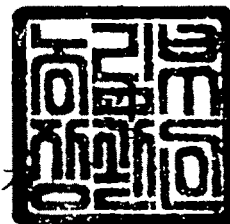
1. 축통51550-71('98.2.11)호, 동 187('98.4.11)호, 동383('98.7.7)호와 관련
됩니다.

2. 사료값인상과 소값하락으로 번식우 농가의 송아지생산기피와 가임
암소 도축증가등으로 한우 사육기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전
국 16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 대상 시·군을 32개 시·군으
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대상 시·군이 확정되는 대로 농가 및 관
련담당자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축협과 안정제 가입 희망농가의 청약이 조
속히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3. 각도에서는 관련호로 통보한 시범사업 실시요령을 참고하여 한우
번식우 사육이 집단화 되어있는 시·군과 지자체 부담금 확보가 가능한 2개
시·군을 선정하여 9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립 부 장

전결 축산국장 김옥기



받는곳 : 나 10~17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이홍철

문서번호 축통51550-55P
시행일자 1998. 9. 29. (3년)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제목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1. 축통51550-383('98.7.7)호 및 동 510('98.9.2)호와 관련됩니다.

2. 전국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확정, 시달하오니 귀도(회)에서는 기 실시하고 있는 1차 시범사업 실시요령을 준용하여 사업홍보 및 내용설명, 시행체제점검등 시범사업 확대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전산교육 및 사업내용설명을 위해 10.20부터 개시에정임
- 계약기간은 10.20~12.31일까지며,
-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요령중 소 수급관리전산화사업은 소산업 정보화사업 실시요령으로 변경

3.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예정인 16개 시·군에서는 축협중앙회가 실시할 예정인 농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확대 시·군 선정내역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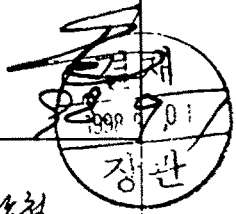
농 립 부 장 관



받는곳 : 가60, 나10~17, 농병04, 한국종축개량협회

문서번호	축통51550-52
보존기간	10년
보고일자	'98.9.1

★ 담당	● 축산물 유통과장	축산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
최이주	최형규	김우경	김우경	김우경	김우경
협조	축산정책과장 김우경, 축산경영과장 김우경				



송아지생산안정제 확대실시방안 검토

'98. 8.

축 산 국
축 산 물 유통 과

여 백



1. 검토배경

- IMF이후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으로 번식농가들이 송아지생산을 기피하고 가임암소를 투매하는 등 소사육 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
- 최근의 과잉두수 감소책이 한우산업의 원만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2001년 개방시 한우산업기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의 확대 내지는 전면실시를 검토
 - 다만, 전면실시는 송아지생산농가에 대한 일정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따른 한우산업구조조정속도의 지연 내지는 과잉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 최근 한육우 사육동향 >

- 사육두수는 '97.6월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98.7월에 234천두 감소
- 산지소값이 최고조에 달했던 '95.12월(323만원)에 비해 '97년과 '98년의 큰수소·암소의 사육두수대비 출하비율이 높고 특히 암소출하량이 많음
 - 1~2세의 경우 한육우사육두수가 정점인 '97.6월보다 '98.6월에 94천두가 많아 향후 1년내 출하량 증가 예상 (단위: 천두)

		'95.12	'96.12	'97		'98			증감 (B-A)
				6월	12월	3월	6월(A)	7월(B)	
한육우 사육두수		2,594	2,844	2,927	2,771	2,762	2,750	<u>2,693</u>	<u>△57</u>
	가임암소	1,217	1,339	1,344	1,298	1,268	1,235	<u>1,194</u>	<u>△41</u>
	1~2세	436	488	494	535	580	588	<u>584</u>	<u>△4</u>
출하량	수소	8,683	9,927	13,438	15,071	15,681	14,788	<u>11,000</u>	<u>△3877</u>
	암소	13,336	14,237	18,097	22,450	14,745	17,881	<u>18,683</u>	<u>802</u>

2. 전면 실시 여건 검토

가. 산지 소값동향 및 전망

□ 그동안의 소수매로 산지출하 대기물량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쇠고기 소비자 가격인하 등을 통한 소비확대능으로 최근 산지 소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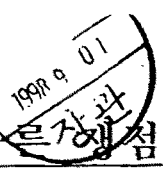
-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소보조한도 준수 의무 때문에 8월 말에는 불가피하게 수매를 중단할 계획이나
- 추석과 연말연시를 겨냥한 수요와 소비자 가격인하, 자가도축 등으로 8월말 수매중단으로 인한 가격하락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지금 추세로 이어질 경우 연말이 되면 출하농가들의 가축비(907천원)와 사료비등 제경비(1,003천원)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인 200만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한육우 사육두수 전망('98.말) : 230~240만두
- 다만, 수매중단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예상외로 커지고, 하반기 경기가 침체되어 살아나던 소비가 다시 위축될 경우 추석이후 소값은 다시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 우려가 있음

< '98 하반기 및 '99 경제전망 >

(단위 : %)

	'97	1998				'99
		1/4	2/4	3/4	4/4	
<u>국내총생산</u>	5.5	△3.8	△4.7	△4.5	<u>△3.9</u>	1.8
<u>총 소비</u>	3.5	△9.5	△11.9	△11.7	<u>△6.1</u>	1.8
<u>총고정투자</u>	△3.5	△23.0	△34.7	△33.7	<u>△25.0</u>	△1.1
<u>소비자물가</u>	4.5	8.9	8.2	7.2	6.0	3.2

※ KDI 자료(7.24)



3.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검토

가.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 산정기준

□ **현행** :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은 10두이상 규모의 양축 농가의 송아지 1두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송아지 재생산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산출한 것임

- 시범사업기간중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안정기준 가격 70만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심의위원회(위원장 : 조석진교수)의 심의와 농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고시
- 적용기간은 가격 cycle을 고려, 7개년으로 정함. 또한 시범사업 전의 송아지가격('98년 5월평균 546천원)이 경영비수준 정도이며 여기에 '97송아지 판매소득(20~25만원)을 얻으면 적정 수준이라는 양축농가들의 여론 감안

< 안정기준가격 산정식 >

$$P_s = [(O_a \times OVR) + (FL \times FLV_R \times G_R)] \times I_c$$

P_s = 안정기준가격(699,139원)

O_a = 최근 7개년의 평균 경영비(471,011원)

OVR = 최근 7개년의 평균경영비 변화율(1.09436)

FL = 최근 7개년의 평균 자가노력비(362,587원)

FLV_R = 최근 7개년의 평균자가노력비 변화율(1.01319)

G_R = 자가노력비 보장율(50%)

I_c = 경영개선목표계수(100%)

※ 경영개선 목표계수는 '98년을 기준(1)으로 하여 매년 2.5%p씩 인하 (경영비 절감 지수)



□ 검토의견

- 안정기준가격의 산정은 기준연도의 송아지생산을 위한 경영비에 최저소득(자가노력비의 40~50%)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정
 - 또한 국제경쟁이 가능한 송아지 가격도 고려해야함(경영개선 목표계수는 이를 고려한 것임)
-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을 시범사업기간동안은 70만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나, 전면실시를 위한 시범사업평가시 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재검토

< 송아지 가격전망('99년초) >

최근의 송아지 가격은 암·수 평균 405천원(7.20)을 최저점으로하여 8.12일 현재 433천원으로 오름세로 반전됨에 따라 16개 시범지역에서 실제 보전금이 지급되는 '99.1월에는 500~550천원 수준으로 전망됨

< 안정기준가격 산정예시 >

□ 암소 생육 Cycle에서 계산

- 암소 성우를 판매한 가격에서 송아지 3마리를 낳는데 소요되는 기간(5년) 동안의 경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송아지 3마리가 보전해 주는 가격

※ 송아지 가격 = {암소성우판매가격-경영비-자가노력비(50%)-송아지구입비}÷ 3

< 계산 예 >

① '97년 : 837천원

$$[2,159\text{천원}('97\text{암소평균판매가격})-2,380('93\sim'97\text{경영비})-929('93\sim'97\text{자가노력비 } 50\%)-1,361('92\text{ 암송아지 가격})] \div 3 = 837\text{천원}$$

||
(암·수평균)

② '96년 : 511천원

□ 경쟁가능한 큰수소 가격에서 계산

- 수입쇠고기 가격에 품질격차 계수를 감안하여 경쟁가능한 큰수소 가격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경영비 등을 공제하여 송아지 가격 산출

국산 쇠고기 부분육 가격

$$\text{※ 송아지가격} = \{ \text{수입쇠고기가격} \times \text{관세 및 제경비계수} \times \text{품질격차계수} \} \times (\text{비육우 환산계수}) - \text{경영비} - \text{자가노력비}(50\%)$$

< 계산 예 >

- ① '97년 : 2,000천원-1008-176=816천원(수컷) ⇒ 734천원(암·수평균)
⇒ 안정기준가격은 이두가지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

< 일본의 사례 >

□ 육용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1990.4.1시행)

- 지정 육용송아지의 평균매매가격이 보증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생산자 보급금 교부

(1) 보증기준가격 > 평균매매가격 ≥ 합리화목표가격

$$\Rightarrow \text{보증기준가격} - \text{평균매매가격} \times \text{계약두수}$$

(2) 합리화목표가격 > 평균매매가격

$$\Rightarrow \text{[(보증가격기준} - \text{합리화목표가격)]} + \text{(합리화목표가격} - \text{평균매매가격)} \times 9/10 \times \text{계약두수}$$

* 보증가격기준은 육용송아지의 생산조건,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육용송아지의 재생산을 확보하는 취지로 설정

* 합리화 목표가격은 육용우 생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의 합리화에 의해 실현해야 할 육용송아지의 생산비를 기준

-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한 송아지 생산가격



나. 농가보전금 상한액의 상향조정 내지는 폐지 여부

현행 : 안정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중 시범사업이외 지역 양축농가와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 10만원까지만 지급

- 시범사업 기간중 지급한도액은 비가입자와외의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안정제 가입농가가 부담하는 계약서 작성, 귀표장착, 송아지생산 신고등 기회비용으로 환산하여 설정(실비보상 차원)

	유 지	폐 지
장 점	재원부담 경감	송아지생산 안정적으로 보장
단 점	<u>안정기준가격 퇴색</u>	<u>De-Minimis한도 초과 가능</u>

검토의견

- 전면실시할 경우 De-Minimis 한도내에서 소수매등 다른 정책 수단외의 여지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전금 상한액 존치 필요
- 다만, 보전금상한액 설정은 송아지가격동향과 예산확보액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

다. 젖소 포함여부

현행 : 1세이상 한우가임암소(젖소제외)

젖소제외이유

- 젖소는 우유생산을 주소득원으로 하며, 송아지는 부산물에 불과
- 젖소송아지는 초유떼기(생후 2주령)에 거래되어 생산확인이 곤란



검토의견

- 따라서 젓소송아지 전면 확대 지난
- 단, 젓소수송아지는 한우송아지를 전면 실시한 후 검토
 - 축산법 제35조에서도 육용송아지로하여 젓소 암송아지는 제외
- 젓소 포함시 추가재원 소요
 - 국비(지방비 포함) : $382\text{천두} \times 0.9 \times 0.5(\text{숫송아지 출생비율}) \times 40\text{천원} = 68\text{억원}$

4.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소요액 추정

- 8개시·도에서 2개 시·군씩 추가 확대할 경우 소요액 추정
 - 현재 보다 202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내년도 축산업발전기금에 계상 예정(총 약 404억원)
 -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시·군을 우선 선정

재원확보

- 축산발전기금 : 소요금액의 80%
-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계약자부담금 : 각각 소요금액의 10%

5. 추진일정

시범사업 시·군 확대('98.8)

- 8개 시·도별 2개씩 시·군 추가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98.8~9월)

- 취급자, 관계공무원, 양축농가 실무교육
- 신문, 방송, 팜프렛 제작·배포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확대 시군 선정

1. 추진 배경

- 소 수매 중단에 따른 농가의 심리적 안정과 2001년 개방시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시범사업지역을 확대

2. 시범사업 확대 시·군 선정

- 선정절차
 - 8개 도가 각각 해당 시·군의 신청을 받아 우리부의 선정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2개씩 16개 시·군을 선정하여 당부에 보고

< 우리부의 선정기준 >

- 한우 번식우 사육이 집단화되고 소 전산화사업 실적이 양호한 시·군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확보가 가능한 시·군을 우선 선정

3. 도별 선정내역

도별	대 상 시·군	한우 농가수	가임암소수 (1.5세이상)	한 우 사 육 두 수			선정근거
				암 소	수 소	계	
경기	화성군	2,231	6,337	11,261	10,944	22,205	경기축산 51550-1833(9.11)
	양평군	2,221	6,226	9,730	8,330	18,060	
강원	삼척시	2,356	6,084	8,224	5,027	13,251	강원축산 51550-1025(9.10)
	홍천군	3,096	13,035	18,114	5,862	23,976	
충북	충주시	3,633	10,402	16,050	6,570	22,620	충북축산 12151-1441(9.12)
	제천시	2,687	7,793	11,816	3,291	15,107	
충남	서산시	4,597	14,119	22,898	10,651	33,549	충남축산 51550-1667(9.12)
	부여군	4,281	11,237	18,491	5,542	24,033	

도별	대 상 시·군	한우 농가수	가임암소수 (1.5세이상)	한 우 사 육 두 수			선정근거
				암 소	수 소	계	
전북	정읍시	5,446	20,502	37,089	12,659	49,748	전북축산 51550-1562(9.10)
	김제시	2,740	9,440	20,736	7,249	27,985	
전남	나주시	4,094	5,897	20,942	19,757	40,699	전남축산 51500-1407(9.16)
	함평군	3,720	12,430	18,841	6,586	25,427	
경북	상주시	8,465	20,821	28,410	15,392	43,802	경북축산 51550-1557(9.12)
	구미시	3,361	11,773	16,839	10,110	26,949	
경남	함안군	3,246	8,580	11,848	3,966	15,814	경남축산 51551-242(9.10)
	합천군	8,598	24,005	33,878	9,129	43,007	
합계		64,772	188,681	305,167	141,065	446,232	
평균		4,048	11,793	19,073	8,817	27,890	

※ '98.6월 가축통계기준 전국 한우암소 대비 추가 시범사업지역의 한우 암소 사육비중 : 16.5%(전국 한우 암소 1,847두 기준)

- 1차 시범사업대상 지역 포함시 : 31.6%

※ 시범사업지역내 호당 암소 평균사육두수 : 4.7두(수소 포함시 6.9두)

- 전국 암소 평균사육두수 : 4.0두(수소포함시 5.9두)

4. '98 추가소요 예산 : 22,000천원

○ 주 전산기 메모리 확장 : 4,000천원

○ 시범사업확대 시·군 순회 홍보·교육비등 : 18,000천원

※ '98 추가소요예산은 송아지생산안정제자금(30억원)에서 전용

※ 농가 보전금 및 조합취급 수수료(3,400원)는 '99년도 촉발기금 예산에 편성

5. 향후 추진일정

- 축협 담당직원 교육 및 시·도 순회 교육 : '98.9.28-10.19
- 농가 계약 : '98.10.20-12.31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및 축발기금 송아지생산안정제 특별회계 납입 : '98.11-'99.2
-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농가 보전금 지급개시 : '99.1.15이후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평가 및 전면실시 검토 : '99 하반기

“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

농 립 부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이흥철

문서번호 축통51550-56P
시행일자 1998. 10. 7. (3년)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제목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확대 시·군 순회 교육 홍보 실시

1. 축통51550-559('98.9.29), 동 561('98.9.30) 및 축기 31209-1045('98.9.30) 호와 관련됨
2. 소 수매중단에 따른 양축농가의 심리적 안정과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1차 시범사업 16개 시·군 이외에 추가로 확대한 16개 시·군에 대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순회교육 및 홍보를 붙임 일정과 같이 실시하오니 시·도에서는 관련 공무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도(시·군)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가입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에 대하여 시·군지, 반상회지, 지역신문, 마을방송등 각종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하고, 축협도지회, 지역축협과 합동으로 농가 순회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시범사업 확대 시·군 순회홍보 교육계획 1부.



받는곳 : 나10~17

우 427-760/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504-9436/전송 (02)503-0020
축산물유통과 과장 최형규 담당자 이홍철

(제 2 안)

수신 : 축협중앙회장

제목 : 동 건

1. 축기31209-1045('98.9.30)호와 관련됨

2. 관련호로 보고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교육계획에 대하여는 붙임 공문사본과 같이 각 도(시·군)에서 교육 홍보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참여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련공문사본 1부



농 립 부 장 관

시범사업 확대 시·군 순회 홍보교육계획

1) 일시 및 장소

도 별	시군별	일 시	장 소	
A 조	전 남	나주시	'98.10.12(월), 14:00 ~	나주축협영산포지소회의실
		함평군	'98.10.13(화), 09:30 ~	함평축협회의실
	전 북	김제시	'98.10.15(목), 09:30 ~	김제축협회의실
		정읍시	'98.10.14(수), 09:30 ~	정읍축협상동지소예식장
	충 남	서산시	'98.10.17(토), 09:30 ~	서산축협회의실
		부여군	'98.10.16(금), 09:30 ~	부여축협회의실
	경 기	양평군	'98.10.20(화), 09:30 ~	양평축협회의실
		화성군	'98.10.19(월), 09:30 ~	수원축협회의실
B 조	경 남	함안군	'98.10.12(월), 09:30 ~	함안축협회의실
		합천군	'98.10.13(화), 09:30 ~	합천군 화원예식장
	경 북	상주시	'98.10.15(목), 09:30 ~	상주축협회의실
		구미시	'98.10.14(수), 09:30 ~	구미축협회의실
	충 북	충주시	'98.10.16(금), 09:30 ~	충주축협회의실
		제천시	'98.10.17(토), 09:30 ~	제천축협회의실
	강 원	홍천군	'98.10.19(월), 09:30 ~	홍천문화예술회관
		삼척시	'98.10.20(화), 09:30 ~	삼척축협회의실

2) 참석대상자 : 시·군별 각 100명 내외

- 농 가 : 마을이장(가급적 한우 암소사육자 위주), 한우관련 축산 계장등 사업에 대한 홍보능력이 있는 농가 위주로 선정
- 축협직원 : 해당 지역축협의 관련업무 담당자
- 공무원 : 도, 해당 시·군, 읍·면·동 관련업무 담당자

3) 교육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전반

4) 협조요청사항(해당 시·군)

- 교육참석 조치 : 읍·면·동 관련업무 공무원
 - 대상농가 선정 및 참석조치 : 축협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
- 사업홍보
 - 시·군보 및 지역신문
 - 유선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
 - 반상회(보) 및 마을방송 등 이용

5) 농가, 축협 관련직원 및 관련공무원 교육일정

일 시	내 용	강 사
<오전교육일시> ○ 09:30 ○ 10:00 ○ 10:00 ~ 10:10 ○ 10:10 ~ 11:30	- 등 록 - 개 회 - 시군 관계관 및 조합장인사 - 시범사업 설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단 - 단장 김진식(B조) - 팀장 황연근(A조)
<오후교육시> ○ 14:00 ○ 14:30 ○ 14:30 ~ 14:40 ○ 14:40 ~ 16:00	- 등 록 - 개 회 - 시군 관계관 및 조합장인사 - 시범사업 설명	

Ⅲ . 흥 보 및 보 도 자 료

여 백

보도자료

- 제공일 : 1998. 7. .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과 장 : 최형규
- 사무관 : 최이규
- 전 화 : 504-9436~9437

이 자료는 1998년 7월 13일 (조간, ~~삼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

< 보도요지 >

- 농림부는 한우사육기반유지와 최근 하락세에 있는 한우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해 '98. 7.16일부터 우선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임.
- 도별 시범사업 대상지역
 - 경기(안성시, 여주군), 강원(춘천시, 횡성군), 충북(청원군, 보은군), 충남(공주시, 홍성군), 전북(장수군, 임실군), 전남(순천시, 장흥군), 경북(영주시, 영천시), 경남(남해군, 하동군)
- 시범사업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적용될 안정기준가격은 70만원으로,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정하고,
 - '98.7.16~9.30까지 약3개월간 지역축협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계약시 계약두당 1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농림부는 쇠고기 공급과잉과 IMF 영향으로 예년에 비하여 쇠고기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소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그동안 축산경영 자금지원,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등 약 1조 1,100억원에 달하는 경영안정대책 자금을 지원하여 왔음
 - 지난해 1월부터 계속해온 산지 소 수매도 6월16일부터는 시가 수매와 중수소수매로 전환하여 실시해 오고 있음
- 최근에는 한우송아지가격이 하락세에 있어, 농림부는 한우 사육 기반유지와 한우송아지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8. 7월부터 우선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임.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송아지의 단순재생산을 보장하는 수준의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가입농가에게 그 차액중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번식농가에게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적정규모의 한우 번식 기반을 유지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농림부는 '98.7.16~'99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산운영프로그램, 제규정 운영, 개체확인 및 보전금 지급절차등 사업시행체제를 점검하고 사업평가 결과와 농가 호응도에 따라 전국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도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 경기(안성시, 여주군), 강원(춘천시, 횡성군), 충북(청원군, 보은군), 충남(공주시, 홍성군), 전북(장수군, 임실군), 전남(순천시, 장흥군), 경북(영주시, 영천시), 경남(남해군, 하동군)임

- 시범사업 실시 대상 시·군은 각 시·도에서 한우개량단지를 보유한 번식우 집산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많은 시·군, 지방비 확보 및 소 전산화사업 보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확정되었음
- 시범사업 실시 시·군에 한우암소 사육현황은 68천호의 294천두(전국 암소두수의 16.2%)로 이중 1세이상 암소두수 약220천두가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본 시범사업 추진절차는

- 시범사업 실시 대상 시·군의 한우번식우 농가가 안정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7.16~9.30 청약기간중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지역축협에 신청하게 되면 계약대상자 및 계약대상우의 자격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계약자 부담금을 수납한 후, 계약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게 됨
- 시범사업기간중 잠정적용될 안정기준가격은 경영비수준 및 최근 송아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70만원으로 책정되었음
- 농가 보전금 지급은 계약된 암소에서 송아지가 생산되면 축협이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하여 해당분기의 다음달에 통장에 자동입금하게 됨
 - 다만, 시범사업기간중에는 어려운 기금사정과 시범사업 제외 지역 농현지 확인하고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할 날이 속한 분기의 가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두당 보전금 지급상한액은 최대 10만원 이내로 책정되었음.
- 계약두당 농가부담금은 소요재원 부담비율(기금 80%, 지방비 10%, 농가자부담 10%)에 따라 마리당 1만원으로 책정되었음

송아지생산안정 시범사업 활기

하루 5백농가 신청...암소 1만5천마리 등록

정부가 2001년 축산물시장 완전 개방에 앞서 한우 사육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7월 16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중인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농가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와 축협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이후 하루평균 1백30여

편집 김은암 / 교정 정대성

농가가 신청, 15일만인 7월 30일까지 번식우 사육농가 2천 53가구가 번식용 암소 8천 5백 38마리를 등록, 시범사업 기간인 99년말까지 송아지 9천 4백 81마리를 생산키로 계약했다.

그러나 8월 들어서는 신청농가수가 하루 4백~5백농가로 크게 늘어 4일 현재 농가 4천 10호에 번식우 1만 5천 3백 51마리가 등록을 마쳤고 계약송아지수도 1만 6천 9백 91마리로 늘어나는 등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대한 농가의 호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축협 송아지생산안정 사업단 관계자는 "송아지 기준가격을 70만원으로 정하고 가격 보전액도 10만원 이내로 정해 농가의 사업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농가의 관심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99년말로 예정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이후부터 사업이 확대 시행되면 축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돼도 한우 생산기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동〉

(98.7.20)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 실시

農林部 8개도 16개시군, 두당 최대 보전 10만원

농림부는 한우사육기반유지와 최근 하락세에 있는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우선 8개도 16개시군을 대상으로 실시에 들어갔다. 이같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송아지의 단순재 생산을 보장하는 수준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가입농가에 차액중 일부를 보전해 주어 번식농가에 개방 충격을 덜어주

고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한 점이다. (관련기사 5면 참조) 시범사업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적용될 안정기준가격은 70만원으로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정하고 지난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역축협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다. 농림부는 가입을 원하는 농가를 계약두당 소요재원 부담비율(기금 80%, 지방비 10% 자부담

10%)에 따라 1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도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안성·여주) △강원(춘천·횡성) △충북(청원·보은) △충남(공주·홍성) △전북(장수·임실)

△전남(순천·장흥) △경북(영주·영천) △경남(남해·하동) 등이다. 농림부는 이 시범사업을 오는 99년 말까지 실시하여 전산운영 프로그램, 재규청 운영 개체확인 및 보전금 지급절차등 사업시행 체제를 점검하고 사업평가 결과와 농가 호응도에 따라 전국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사업 실시 시 군에 한우암소 사육은 6만8천头的 29만4천두(전국 암소두수의 16%)로 이중 1세이상 암소두수는 약 22만두가 송아지생산안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아지값 70만원 미만엔 差額 정부서 보장

정부는 축산농가가 키운 송아지가 4개월째 됐을 때 거래가격이 7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한우의 사육기반 유지와 한우 송아지의 가격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정부보전금도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며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를 키우는 농가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된 암소에서 송아지가 생산되어 만 4개월째 됐을 때 거래가격이 최소 사육비용인 70만원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 전체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최근 소값 폭락으로 도축이 증가하는 등 한우사육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송아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 7월 경기도 안성시 등 16개 지역에 한해 두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전금을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시범 실시했다.

<芮乘一기자·biyeh>

朝鮮日報
8月22日 22面



[농림부] 송아지 생산안정제 내달 시범실시

송아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실시되고, 200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부는 12일 지난해 말부터 소값이 크게 떨어져 양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함에 따라 소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송아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안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국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부작용을 보완해 오는 200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가축시장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가 미리 정한 안정기준가격을 밑돌 때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농가는 안정기준가격의 3% 이내의 가입비를 내고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농가 학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송아지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송아지 가격 및 사육동향을 고려해 안정기준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안성 여주 △강원:춘천 횡성 △충북:청원 보은 △충남:공주 홍성 △전북:장수 임실 △전남:순천 장흥 △경북:영주 영천 △경남:남해 하동

함석진 기자

☐ '인-터-넷-한-겨-레'가 무료 E-메일을 드립니다 ☐
☐ <http://www.hanimail.com> 또는 <http://www.hani.co.kr> ☐

기사등록시각 1998년06월12일16시03분 -한겨레- 제공

[전체기사] [사설/칼럼] [기획/연재] [정치] [경제] [국제] [사회] [지역]
[스포츠] [정보통신/과학] [증권/부동산] [문화/생활] [방송/연예]
[독자] [사람] [한겨레창] [지난기사보기]

● 편집자에게 ● 구독신청 ● HOME

copyright(c) 1995-1998 한겨레신문사
Mail To: webmast@news.hani.co.kr

정부는 지난해 7월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를 전차로 하는 한우산업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5개의 개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2001년 개방이후에도 송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사육비 절감을 통해 경영비 수준으로 맞바꿀 수 있도록 안전기준가격을 책정하고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중 일부를 농가에 보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축협중앙회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금년 7월 전국 실시 여부를 협의해 왔으나 여기

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 해 1월 25일부터 시작된 소 는데다 여러해 시현할 예정 수매사업에 2천6백90억원의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인 만큼 시행준비가 철저하지 못할 경우 재원 손실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도상연슈과 시범사업을 통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기금적립, 농가부담금, 지방비 보조금 확보 등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하나 지난

제 언



최상태
농림부 축산유통과장

자금이 투입됐고, IMF이후에 한우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축산경영자금 지원 등 한우산업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으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쇠고기 협상 타결직후

인 지난 90년부터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를 실시하던 중 당초 의도와는 달리 화우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미미하고 과도한 재원소요로 동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의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6월까지 도상연슈을 거쳐 7월부터는 각도별로 한우번식우 사육두수가 많은 2~3개군을 선정해 시범사업군을 실시하게되며 한우번식우두수는 30~40%가 가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시행착오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농가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제1256호

축산신문

중 환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적용될 안정기준가격은 70만원으로,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한우사육기반유지와 최근 하락세에 있는 한우송아지가격 안정을 위해 16일부터 우선 8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각 도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안성시, 여주군) 강원(춘천시, 횡성군) 충북(청원군, 보은군) 충남(공주시, 홍성군) 전북(장수군, 임실군) 전남(순천시, 장흥군) 경북(영주시, 영천시) 경남(남해군, 하동군)이다. 이같은 시범사업 실시 대상 시군은 각 시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8개도 16개 시·군서 실시

농림부 안정기준가 70만원 잠정 적용

도에서 한우개량단지를 보유한 번식우 집산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많은 시군, 지방비 확보 및 소 전산화사업 보급수준등을 감안, 확장된 것.

시범사업 실시 시군에 한우암소 사육현황

은 6만8천호의 29만4천두(전국 암소두수의 16.2%)로 이중 1세이상 암소두수 약 22만두가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범사업 실시 대상 시군의 한우번식우

농가가 인정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6일부터 9월 30 청약기간중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 사업주관기관인 지역축협에 신청하게 되면 계약대상자 및 계약대상우의 자격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계약자 부담금을 수납한 후 계약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농림부는 시범사업기간중 잠정적용될 안정기준가격을 경영비수준 및 최근 송아지가격등을 고려, 7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시범사업기간중에는 어려운 기금사정과 시범사업 제외지역 농가의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두당 보전금 지급상한액은 최대 10만원 이내로 책정하고, 계약두당 농가부담금은 소요재원 부담비율(기금 80%, 지방비 10%, 농가자부담 10%)에 따라 마리당 1만원으로 책정했다.

<김영란>

4. 마사회 및 농림부 환원 추진 동향

여 백

목 차

I. 환원 추진 실적	379
1. 추진실적	379
2. 추진일지	380
II. 마사회 농림부 환원 논리	382
1. 농림부 환원 당위성 및 시급성	382
2. 문화관광부 주장에 대한 반박	385
III. 건의서·성명서 및 보도자료	389
1. 건의서, 성명서	391
2. 언론보도자료	409

여 백

I. 환원 추진실적

1. 추진실적

- 농·축협등 62개 농업관련단체는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국회의원 및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98.10.20일 현재 국회의원 135명, 국민 110만명 서명
 - 마사회 환원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5회 개최

- 국회의원, 3당 및 국회전문위원 등에 대하여 마사회 농림부 환원의 당위성 설명
 - 농림부 각실·국장, 농·축협조합장 및 농민단체장 등이 국회의원에 대한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관심과 협력 유도
 - 3당전문위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및 행자위의원에 대한 접촉 설명

- 중앙 일간지에 기고를 통하여 마사회 농림부환원의 분위기 조성

- 4회에 걸쳐 마사회 농림부환원을 위한 설명자료집을 제작·배포
 - 국회·청와대, 시·도, 농·축협 강당 및 농민단체 등에 배포
 - 조합장 및 조합임직원에게 대한 교육실시

- 마사회 노조와 수차례 접촉하여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지지하는 광고게재 유도

2. 추진일지

일 자	추진내용
'97.11.23 4.8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대통령이 대선공약사항으로 채택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대통령께 특별보고
4.23	○ 농·축협등 54개 농업단체(추후 62개로 증가)가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를 결성, 정부·국회·각 정당 등에 건의서 발송등 활동
5.18	○ 당·정협의에서 마사회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년내에 완료키로 결정
5.21	○ 한나라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5.27	○ 마사회 환원추지위 주관으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실천 결의대회 및 국회의원 200명 및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개최
6.10	○ 마사회 환원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6.13	○ 문화·체육관련 단체가 농림부이관 반대대책위 구성
6.22	○ 5.18 당정협의 후속조치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7.14	○ 마추위 실무협의회 개최 - 마추위 실무위원과 마사회 환원을 위한 대응논리 개발
7.16	○ 마주협회 부회장 등을 접촉, 마주협회 회원들의 노력을 촉구
7.20	○ 마사회 직원노조 집행부와 접촉하여 노조의 지지 요청
7.23	○ 마사회 농림부환원을 위한 설명자료집 제작·배포 - 국회의원, 청와대, 농·축·임협(지역조합 포함) 등에 배포 (2,500부) - 마사회 환원의 배경, 당위성, 문화관광부 주장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

일 자	추진내용
8.1	○마추위 제4차 실무위원회 참석하여 국회의원 서명활동 촉구
8.4	○축산정책과장이 국회 행자위를 방문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에게 설명
8.7	○축산기업중앙회에 대도시지역 국회의원의 동의서 징구 요청
8.11	○3당 전문위원과 국회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마사회 환원의 당위성 설명
8.14	○자민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8.27	○『마사회 농림부환원추진위원회』 성명서 발표 - 마사회 이관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엄중 경고
9.3	○차관보, 축협조합장에게 적극 협조 요청
9.5	○축산국장, 길승흠의원 접촉·설득
9.12	○축산정책과장 마사회 노조집행부 설득
9.15	○전국농민단체연합회, 마사회환원 촉구 시위(과천)
9.18	○마추위 제5차 실무위원회 개최
9.21	○축산국장, 마사회 노조집행부 접촉
9.24	○한국마사회 노조 전국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합동으로 마사회 농림부환원 광고 게재(9.24일)
9.29	○마사회 농림부환원추진대책회의 개최
10.1	○행자위 소속의원 비서관들에게 설명
10.9	○국회 청원서 제출을 위한 활동 개시

Ⅱ. 마사회 농림부환원 논리

1. 농림부환원의 당위성 및 시급성

□ 마사회 농림부환원은 UR와 WTO, IMF 와 수해 등 연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야가 뜻을 함께하여 결정한 사항임.

⇒ 한국마사회 농림부환원은 여·야 3당간에 합의된 유일한 사항임.

-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동으로 제15대 대선공약으로 채택
 - 김대중 대통령은 농민, 국민과의 대화시 수차례 걸쳐 약속
- 5.18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동당정회의시 마사회 농림부환원을 년내에 완료키로 결정, 6.22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도 확인
- 그 후속조치로 각당은 마사회 농림부환원을 위한 법안을 국회 제출
 - 한나라당(5.21), 자민련(8.14), 국민회의(8.27)
- 8.26일 국무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마사회를 농림부로 조기 환원키로 하였음

□ 농업인들은 마사회 이관자체를 「국민의 정부」 상징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마사회 농림부환원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으로 인한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 IMF이후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줄 것임

□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사회를 본래의 관장부서인 농림부로 하루속히 환원시켜 정부기능의 혼선과 낭비를 막고 국민의 모든 역량을 현재의 난국극복에 모아 나가야 함.

마사회 업무는 그 본질이 고유의 축산관련 업무임.

□ 경마는 역사적으로 말의 경주성적을 기초로 한 혈통개량수단으로 발달

- 경마의 시행 목적은 경주마의 주행능력을 기초로 혈통을 개량해 나가는 것이며, 사육기술과 훈련 및 개체별 혈통관리가 우수한 경주마 생산의 핵심 관건임.
-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경마 시행국의 경우 우수마필의 선발과 다량 생산을 위하여 경마를 도입하였으며, 이것이 발전되어 현재의 경마제도로 정착

□ 따라서 한국마사회법상 경마의 시행 목적이 마사의 진흥과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임

- 경마는 말을 경주주체로 한 말의 경기로서 풍부한 우량마필의 생산과 개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인간의 신체적 능력과 기술에 의해 우열이 가려지는 레저용 스포츠인 경륜·경정과 본질적으로 상이함.
-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마사업무를 축산업무를 관장하는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임

□ 경마산업을 마권발매와 경주마간의 우열을 가리는 베틀만을 부각시켜 단순한 레저스포츠로 분류하는 것은 경마산업의 전체 모습을 모르기 때문임

- 경마산업은 말의 생산에서부터 사육 및 품종개량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산업이며 마권발매 등의 경마는 마사회 업무중 일부에 불과
- 축산업도 가축의 사육, 품종개량, 질병관리, 축산물가공·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소비단계만을 기준으로 한 산업을 분류할 수는 없는 것임

잘못된 역사(문화관광부 이관논리와 절차)는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함

□ 마사회는 본래 농림부에서 설립·발전시켜온 조직임

- 우량종마의 육성 등 축산발전과 마사진흥을 위하여 농림부가 1949년부터 「한국마사회」를 설립·육성하였으며, 국산경주마의 생산과 지속적인 혈통관리를 위하여 '91.12까지 농림부에서 계속 관장하여 왔음.
- 특히 독섬경마장의 과천이전과 제주도 말생산목장육성등을 통하여 오늘의 경마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
- '92.1 체육청소년부 이관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주마 생산농가의 마필생산을 지원하여 왔음('93~'98년간 18,368백만원 지원)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과거에 잘못을 사회정의차원에서 바로 잡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사항임

- '92.1월 마사회의 체육청소년부 이관은 역사적 배경, 농업인들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한채 당시 주관부서인 농림부와는 협의 없이 정부조직법의 부칙을 개정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며,
 - 강제이관 이래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는 것이 전국 축산농가의 숙원사항이 되었음
-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개혁차원에서 과거 밀실정치의 표본이었던 마사회 강제이관을 바로잡아야 함.

2. 문화관광부측 주장에 대한 반박

「한국마사회법」을 「경마법」으로 개정하여 경마업무는 문화관광부에 존치하되, 경마이익금은 전액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고 마필개량 등의 업무는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려는 것은, 과거에 주관부서인 농림부와 협의없이, 그리고 농민의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마사업무 관장부처를 2원화하겠다는 주장은 경마산업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며 마사행정의 혼선과 비효율성 증대로 경마산업의 발전을 저해
 - 경마산업은 개량에서부터 경마까지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축산이며, 경주 성적을 다시 마필개량에 활용함으로써 순환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양분시킬 수 없음.
 - 일본, 프랑스 등 경마선진국도 경마시행체와 마필생산주체를 일원화
- 단순히 경마이익금을 전액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떻게 운영해서 얼마의 이익금을 내느냐가 중요하며, 그 운용 여하에 따라 이익금액의 차이는 크게 나타남.
 - 농림부로 환원되면, 마필개량·사육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확장과 제도개선을 통해 이익금을 증대시켜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납입금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체육부문에 대한 지원도 늘려갈 것임.
- 마사회직원 대다수도 경마산업의 한단계 도약과 사회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환원을 바라고 있음.

말이 레저스포츠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므로 경륜과 경정의 경우처럼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경륜과 경정은 인간의 신체적인 운동능력에 따라 우열이 정해지는 인간이 경기주체인 레저스포츠이나, 경마는 경주마(동물)의 주행 능력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로서 우량 마필의 생산과 개량이 뒷바침 되어야 하는 점에서 스포츠와 다름

- 경마는 선발된 우수혈통의 마필개량 성과를 비교 평가하는 수단 (Blood Sports)으로 시작된 것이며 『말의 능력 검정과정』의 일환임
- 우리나라 1인당 일평균 경마 마권 구입액이 주요 경마시행국 가운데 홍콩 다음으로 높으며, 이를 건전한 스포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주요국가의 1인당 일평균 마권구입액 현황('95)

홍콩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호주
464천원	358	258	100	84	78

※ 일본에서의 부처소관을 보면 경륜은 자전거 개량목적 등을 위해 통상산업성에서, 경정은 선박기관의 개량목적을 위해 운수성에서 관장하고 있음

□ 경마 면허를 받은 기수를 운동선수라고 할 수 없고 운동선수가 아닌 기수가 말을 타는 행위를 체육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경마는 말의 능력에 의해 성적이 70% 이상 좌우되어 (馬七人三) 말에게 상금을 주는 말 혈통경기이며, 기수는 말의 경주능력 검정 보조역 임
- 경마장도 경주능력 검정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도록 말을 경주시키는 시설로서 사람이 경기주체가 되는 체육경기장이 아님.

국내산 경주마 생산비용(5,200만원)이 수입가격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육성목장 건설은 경쟁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논리에 대하여

- 농가에서 직접 경주마를 생산할 경우 24개월령 두당 생산비는 83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수입대체로 외화절약 및 경제성 증대가 가능함(마사회 자료)
 - 국산마의 두당생산비가 5,200만원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
 - 씨숫말의 내용년수를 축소(14년 → 3년)하여 600만원이 추가됐고
 - 경주마육성과 직접 관련없는 시설·장비의 감가상각비, 농가교육비, 외부인 견학비 등을 모두 생산비로 계상하여 2,100만원이 추가되었음
 - 마사회 육성목장에서 경주마를 생산할 경우 자급기반 조성에 필요한 infra 투자비를 포함하여도 두당생산비는 2,500만원 수준임
 - 국내산 : 2,530만원/두, 미국산 3,250만원

- 경마에 적합한 2세마는 세계적으로 2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의 고가 우량마가 거래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수입 가격은 두당 500~70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질이 낮은 말 수입을 반증
 - 수입경주마의 60%이상이 해외 현지에서 도태 또는 도태직전의 3세이상 마필로 경주마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자질이 부족한 수입마에 의한 경마는 마필개량과 육성이 결여된 경마로서 사행심만 유발시켜 마사업무의 일부분인 마권판매 분야만 기형적으로 비대해지는 불균형 초래
 - 경주능력이 우수한 경주마들로 경마조를 편성해야 도박성, 조작시비가 해소되고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이 가능해지며, 이는 외국 경주마 수입을 우량 국내산으로 수입대체할 때 가능해 짐.

농림부 관장시보다 매출 4.3배, 관람객 3.0배가 늘어나 건전한 국민 여가활동에 기여했다는 논리에 대하여

- '91까지 농림부 관장시 과천경마장을 건설하여 과천경마시대를 열므로써 매출액과 관람객이 증가하는 제2 도약기 경마시대 도래가 가능 했음.
 - '92~'98년간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관장시 과연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이라는 경마의 목적 함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반문이 가능함.
 - 과천경마장은 농림부가 마사회를 관장한 시기에 개장 되었음('89.9)
 - 마사회의 경주마 자금도 제고 계획('97.10)도 문화부의 승인이 없어 현재 담보 상태인 실정임.

- 매출규모 증대는 고객편의 시설확충, 장외발매소 확산외에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고도 대중소비 시대를 맞아 국민의 전반적 레저욕구 증대에 기인한 결과임
 - '92년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소비풍조에 힘입어서 경마매출액이 증가한 것이며, 현재는 경주마 개량 낙후, 인식부족에 따라 사행성 경기로 과잉확대 되었다는 일부 시각도 존재하고 있음
 - '98년 6월까지 1일 평균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하여 국민소득의 증감에 따라 경마매출액이 변화 한다는 것을 반증함

- 농림부가 지속적으로 관장할 경우 현재의 수입산 경주마 대신 혈통이 우수한 경주마의 국내자급을 확산시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경마문화 정착과 관중 추가 확보가 가능해 짐.
 - 경마는 우승예상마가 적중하면 마권을 산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 하는 제도로써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경주마를 다수 확보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때에 사행성이 적어지고 건전한 발전이 기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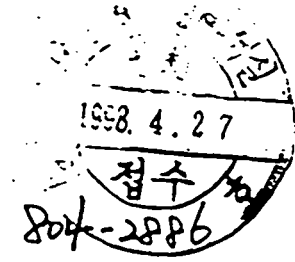
Ⅲ . 건의서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여 백

1. 건 의 서 , 성 명 서

여 백

김 대 중 대통령께



건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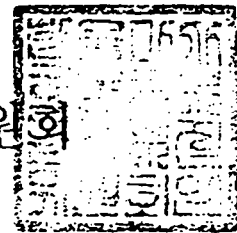
-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

1998. 4. 23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내

전화 521-7181, 팩스 584-5144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건의

1. 나라경제 안정과 국정 수행을 위한 크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농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반 안정을 위한 재원마련이 절박한 시점에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야말로 공약 실천과 축산업의 안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IMF 한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축산 농가들로서는 생산비 인상 부담으로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축산업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3.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대통령께서 제시한 대선공약일뿐더러 국민과의 대화 중에서도 수차례 걸쳐 공개 약속하셨고, 대선 당시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 한나라당 대표도 공개리에 약속한 사항이므로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부처 조직개편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도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이 누락된데 대해 우리 농민과 농민단체의 실망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였고, 다행이 이석현 의원이 수정법안을 제출하였기에 기대하였으나, 결국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5. 마사회법상 경마의 목적이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으로 되어있고 말의 증식·개량과 축산진흥은 농림부의 고유업무이거니와 문화체육부가 개편되어 체육기능은 민간에 이양된채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으므로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 존치시킬 명분이나 목적마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6. 새정부가 한국마사회법의 제정취지를 살리면서 농축산업의 안정재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6공당시 비민주적인 변칙절차로 잘못 이관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국마사회는 조속히 농림부로 환원조치되어야 합니다.
7. 이에 우리 농민단체 일동은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과 결단으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결정하여 차기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이의 실현을 기대하오니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전화 521-7181. 팩스 584-5144)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임협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시설채소생산자연합중앙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살림, 국제농업개발원,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정농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증축개량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양돈연구회, 양돈산학협동연구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흑염소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축산학회,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한국초지학회, 한국낙농학회, 한국영양사료학회, 한국가축번식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무순)

자유민주연합 총재 귀하

시급한 농정현안에 대한 건의

이름	408
성명	92-43
민원주	UKY

1998. 1. 13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화 521 7181, 팩스 584 5144)

시급한 농정현안에 대한 건의

우리농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하게 될 새정부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개혁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만이 장기적인 나라 경제의 안정과 직결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실천을 통해 확인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농정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IMF한파의 어려움속에서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정부의 충정과 애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농업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새정부의 위기국면 대처방안은 자칫 국면전환이라기 보다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퇴보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까 우려됩니다. 정권인수단계에서 국민의료보험통합을 백지화하려 하고, 사료에 대한 부가세 철폐방안이 제기되는가하면 대안없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 삭감이 논의되는 등으로 우리농민은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해 너무도 큰 실망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한 정책결정은 정권인수위나 비대위가 논의할 사안이라면 이러한 반 농업적 발상에 대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권인수단계에서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도록하여 중요한 농업관련사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농민들의 큰 분노를 유발시키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의 애정과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시키려면 일련의 농업포기를 강요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논의자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인내하고 있는 농민들이 처음부터 실망하지 않도록 제시된 공약만은 최소한 실천하는 의지를 보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료 등의 부과세 면세를 적용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폭등에 따른 배합사료·유류 가격폭등으로 축산업과 원예산업은 폐업과 도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에게 먹일 사료값이 무려 60% 가까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종전 외상거래에서 현금으로 사료 구입을 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가축의 시장 방매가 줄을 잇고 있는데다 경기부진으로 축산물의 소비는 위축되고 값은 폭락하여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상태로 간다면 대다수 축산농가와 시설채소 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나라 전체가 겪는 어려움으로 여겨 어디에도 호소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의 영세율은 면세로 전환하여 축산농가에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시키겠다는 재경원의 발상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축산을 포기토록 강요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과세부담은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라 축산업을 붕괴시키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타산업과 달리 축산업의 기반 붕괴는 재건이 불가능하여 장기적으로 더욱 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을 이해하셔서 세제관련 추가부담 발상 자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부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축산업은 농업중 그나마 경쟁가능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함에도 재원소탈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나마 축산발전기금도 곧 고갈될 처지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 한국마사회를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시켜 마사 수익금으로 축산기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공 정부의 대표적인 부당 행정기관의 표본이 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관장권 문제는 당초대로 농림부로 환원시켜 시급한 축산기금조성 재원이 되도록 조치하여 축산업의 도산을 막고, 안정대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제도 개혁 차원에서 한국마사회의 이관문제는 차질없이 농림부로 이관될 것임을 농민들이 확신하고 있음을 유의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입 축산물의 관세를 목적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와 갈수록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고 국제경쟁에서의 생존전략을 조속히 수립하는 길 뿐입니다. 그러자면 영세한 사육기반을 경쟁적 체제로 구조개선하기 위한 일정기간의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국내 축산업은 UR협상이후 수입 축산물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분야이므로 최소한의 생산 기반만이라도 조성되도록 한다면 경쟁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목적세로 전환시켜 국내 축산업에 환원 투자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오래전부터 수입 쇠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일본 화우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쌀 다음에 한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대책이 없음을 유의하여 수입 축산물 관세의 목적세 전환을 제도개혁 차원에서 조속히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998. 1. 13

전 국 농 민 단 체 협 의 회 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韓國馬事會의 農林部還元 早速 推進 要請

尊敬하는 國會議長님과 國會議員 여러분들의 議政活動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健勝을 빕니다.

國會에 提出된 政府組織法改正法律案에 韓國馬事會의 農林部로의 還元措置가 漏落된데 대해 100萬 畜産農家를 代表하여 失望과 衝擊을 느끼면서 政府組織法改正法律案이 修正通過되어 韓國馬事會가 農林部로 조속히 還元될 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실 것을 請願합니다.

1. 원래 競馬의 目的은 競走成績을 參考로 優良한 種馬를 選拔하여 增殖하는 것으로 우리의 韓國馬事會法에도 競馬施行의 目的은 馬事振興 및 畜産發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競馬가 정상적 으로 維持·發展하기 위하여는 망아지의 生産·育成등 增殖基盤과 馬의 競走能力 向上을 위한 改良 基盤이 構築되어야 하며 馬의 改良·增殖과 畜産振興은 農林部の 固有業務입니다. 農林部에서 馬事會를 管掌할 경우 競馬施行과 馬匹生産을 직접 連繫시킴으로써 農家所得 増大事業을 效果的으로 推進할 수 있으며 馬事會 存立 名分을 強化하게 되는 것은 當然한 理致입니다.
2. 馬事會 關聯 收益金은 畜産物 輸入自由化로 國際競爭力 向上이 時急한 畜産業 構造改善과 農民福祉增大등의 投資財源으로 活用되어야 합니다. 현재 畜産 發展基金의 主要 財源인 輸入쇠고기 販賣利益金이 最近 換率上昇으로 急激히 減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쇠고기 輸入이 完全自由化되는 2001년에는 없어지게 되므로 馬事會의 收入利益金이 今後 畜産業發展을 위한 主要 財源으로서의 役割을 擔當해 주어야 합니다.

3. 또한, 馬事會의 農林部 還元은 정부의 豫算없이 農民 및 關聯團體들의 宿願 事項을 解決해 줄 수 있는 絶好의 方案입니다. 馬事會의 農林部 還元이 實現될 경우 政府의 農業發展에 대한 강한 意志를 천명하는 效果를 얻게 되며 農民들의 士氣를 鼓吹시킬 수 있습니다.
4. 특히, IMF 寒波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畜産農家들로서는 生産費 引上 負擔에 못이겨 倒産과 廢業이 續出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畜産業 基盤自體가 根本적으로 崩壞될 위기에 처해 있는 實情입니다. 이러한 切迫한 狀況에서 이미 大統領 當選者가 누누히 強調하고 公約한 馬事會의 農林部 移管措置가 政府組織法 改正案에 들어 있지 않다는 點은 農畜産業의 現實 把握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5. 따라서, 이번 政府組織法 改正過程에서 지난 '90년 아무런 正當한 理由 없이 農林部가 관장해 왔던 馬事會를 體育靑少年部로 이관했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政府組織法附則을 다시 改正하여 馬事會를 農林部로 還元시킴으로써 馬事會의 存立 名分을 強化하고 畜産發展을 위한 財源을 確保함과 동시에 失意에 가득찬 畜産農家들의 士氣를 북돋아 줄 것을 간곡히 請願드립니다.

1998. 2. 10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長	宋 燦 源
韓國酪農育牛協會長	金 南 龍
大韓養豚協會長	全 東 龍
大韓養鷄協會長	崔 峻 玖

성명서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라 -

국회에 제출된 정부 조직법 개정 법률안에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조치가 누락된데 대해 우리는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과연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조직의 구조 조정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IMF 한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로서는 생산비 인상 부담에 못이겨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축산업 기반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축산업의 기반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미 대통령 당선자가 누누히 강조하고 공약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조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농축산업의 현실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한국마사회는 1922년 설립부터 농림부가 관장해 왔던 것을 그 혼한 공청회 한 번 없이 마사수익금을 노린 탈법적인 수단으로 정부조직법 부칙을 개정하여 체육청소년부로 이관시켜 6공당시 대표적인 비민주적 행정조치의 예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에는 경마시행의 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농림부의 고유 업무임을 확인시키고 있거니와 다른 나라의 경우 역시 농림부 관장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마사회를 농림부에 존치시킴으로써 수입 쇠고기 판매 수익금의 감소로 바닥나게 될 축산발전기금의 대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반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에 정치권이 더이상 외면해서는 아니 됨을 밝힌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반드시 환원 할 것을 요청한다.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마사회 관장권을 반드시 농림부로 이관시켜야 됨을 강력히 밝힌다.

1998. 2. 9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화 521 - 7181, 팩스 584 - 5144)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성명서

한국마사회를 즉각 농림부로 환원 조치하라

IMF한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에 있어 할로모색과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시급하고 따라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축산농가들의 생산비 인상 부담으로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축산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위기 국면이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국민과의 대화중에서 김대통령이 수차례 걸쳐 약속한 바 있거나 대선당시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한나라당 이한동 대표의 공약사항이므로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공개리에 제시한 합의사항이다.

마사회법상 경마의 목적이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으로 되어 있고, 말의 증식 개량과 축산진흥은 농림부의 고유업무이거니와 문화체육부가 개편되어 체육기능은 민간에 이양되어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으므로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 존치시킬 명분이나 목적이 상실된 상태이다. 또 90년 6공 당시 마사회가 농림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될 때 비민주적인 변칙절차로 잘못되었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누락시킨 데 대해 우리의 실망이 이를 데 없음을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6. 4 지방선거를 계기로 각 정당과 국회의원은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시키는데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마사회 환원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할 것임을 밝힌다. 유권자의 서명운동과 지역국회의원의 입법추진 서명 받아내기 등을 전개하여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실현시킬 것이다.

마사회 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이해하여 정회권이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축산업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국민에게 제시한 공약을 실천한다면 한국마사회를 즉각 농림부로 환원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1998. 5. 13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전화 521-7181. 팩스 584-5144)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임협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시설채소생산자연합중앙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살림, 국제농업개발원,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정농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종축개발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한국양륙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양돈연구회, 양돈산학협동연구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축염소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축산학회,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한국초지학회, 한국낙농학회, 한국영양사료학회, 한국가축번식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한국가축분뇨자원화협회(무순)

성명서
농정현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

국민회의·자민련과 농림부와외의 5월 18일 당정 협의결과를 환영하며 농민의 뜻을 적극 수용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18일 정오에 19개 농민단체 대표들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인 오후 3시 동잠소에서 가진 당정협의 결과가 농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적극 수용코자 한 점은 여당의 농정의지를 새롭게 확인 시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인 한나라당이 농민단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특히,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불가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농가부채조사협의회 설치, 3년내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약속, 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 농업회의소에 대한 지원 및 생협법 제정 등은 농업계의 최대 현안을 수용한 것으로 정부 농정의치를 높이 평가하게 한다.

다만 농특세를 존치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은 농업발전을 위한 2단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특세는 지난 UR/WTO 협상에서 쌀까지 개방한 농정 실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동시에 전국민의 합의 사항인 점을 거듭 지적하고자 한다.

당정협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하며, 농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함을 밝힌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즉각 실시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 번 환영을 표시 한다.

1998년 5월 18일
농민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 참가 19개 농민단체
(전화 : 521-7181, 팩스 : 588-7855)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영농법인중앙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포도회 (가나다 순)

성 명 서

한나라당의 마사회 농림부 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환영한다.

한나라당 소속 강현욱 의원등 34인이 공동으로 지난 21일 제출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관련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것에 대해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농민의 숙원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나라당에 감사드린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약사항이었으나 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외되어 전국의 양축가를 비롯 농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이에 농축산 관련 60개 단체가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국회의원 200명 서약 받기」운동을 추진하는 중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지난 당정회의를 통해 농림부 환원 절차를 연내에 마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절차만 마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모두 나서서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으로 농가부채 해결의 재원 마련과 편법으로 잘못 이관된 관할권을 제자리에 옮겨놓는 일에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제출을 환영한다.

1998. 5. 22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전화 : 02-588-7055, 팩스 : 584-5144)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임협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시설채소생산자연협중앙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살림, 국제농업개발원,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정농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유기농협회, 한국유류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한국양류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양돈연구회, 양돈산과협동연구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복염소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축산학회, 한국유가공기술파협회, 한국초지학회, 한국낙농학회, 한국영양사료학회, 한국가축번식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한국가축분뇨자원화협회,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대한수의학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무순)

성 명 서

정부와 여·야 3당의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와 여야 3당의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관 결정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26일 국무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 의장이 함께한 오찬회동에서 한국마사회 농림부 이관을 결정하고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추진토록한 것은 IMF위기와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회생을 위한 정부와 여·야의 합의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와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발전을 위해 나선 것은 향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뜻깊은 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500만 농업인의 숙원과제였던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활동은 지난 4월 23일 이후 전국 농·축산 62개 단체가 한국마사회농림부환원추진위원회의 결성과 함께 환원운동을 본격 전개하면서 백만인 서명운동과 국회의원 동의서 받아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백만인 서명운동 목표달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과반수 국회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내었다.

국회에서도 지난 5월 21일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46인의 발의에 의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8월 18일은 자민련이 소속의원 26명의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민회의에서는 8월 19일 당무회의의 결정으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결의하는 등 농·축산업의 숙원과제를 적극 수용해왔다.

이번 정부와 여·야 결정이 한국농업 회생에 큰 보탬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정부와 여·야 3당의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또한 오찬 회동의 합의와 같이 한국마사회의 이관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종 결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1998년 8월 27일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임협중앙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시설채소생산자연합중앙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살림, 국제농업개발원,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정농회, 우리농민살리기운동본부, 한국영농법인중앙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위생

2. 언론 보도자료

여 백

마사회 농림부로 이관될까

현재 문화체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마사회(회장 김봉조)의 농림부 이관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농업분야의 선거공약으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경마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후 내년 봄쯤 한국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마산업 중심은 경주마 생산 육성” 새정부 정책 주목

김대중 당선자는 유세기간 수차례 농업분야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경마는 경주마를 생산하고 키우는 1차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재 문화체육부가 한국마사회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동안 경마를 주관하는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경마가 실시된 이래 줄곧 농업정책 정부기구가 맡았다. 1923년부터 1941년까지는 경마구락부

에서 경마를 관장했으며 1942년 조선마사회가 설립되자 조선총독부 농림국이 관리 했다.

그러다가 해방후 조선마사회는 관장부서 없이 운용돼 오다가 1962년1월20일 국회에서 법률 제1012호로 한국마사회법이 제정되며 농수산부의 산하기관이 됐다. 이후 90년 12월27일 법률 제4268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자 마사회는 92년 1월1일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됐다. 93년3월6일 법률 제4541호로 다시 정부조직법이 바뀌며 문화체육부 산하단체로 이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마관계자들은 한국마사회의 상급기관이 농림부로 바뀔 경우 경마문화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마사회의 한 간부는 “그동안 한국경마는 경주마 생산 토양이 빈약해 사행심을 유발시키는 마권판매 분야만 비대해졌다”고 비판하며 “농림부가 경마정책을 관장하게 되면 경주마 생산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 농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마문화의 선진화도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감독부처의 농림부 이관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여름에 열린 아간경마모습.

서울마주협회의 권동섭 상근부회장은 “선거공약이 하루 속히 실현돼 안정된 정책 속에서 경마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마 관장 부서의 농림부 이관은 경주마 생산, 육성 농민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병현 경주마 생산자협회장은 “현재 한국마사회가 출연하고 있는 축산진흥기금이 경주마생산에 직접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경마장 동식건설, 육성목장 확대 등의 사업도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金文永기자>

축산업 구조조정 전기마련

여권과 농림부가 18일 당정회의를 열고 마사회를 농림부로 연내 환원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마사회 이관을 둘러싼 농림부와 문화관광부간의 마찰은 일단락됐다.

마사회는 지난 49년 설립 이래 농림부 소관이었으나 92년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됐었다. 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신정부 들어선 이후 농업단체를 앞세운 농림부의 강공이 먹혀든 것.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경주마 자급률 제고 ▲축산발전기금 출연금 증액 ▲마사회 운영 효율화 등이다.

말의 개량 증식에 따른 우량종마의 공급이 늘어나 경주마 자급률이 현재 22%에서 오는 2005년에는 75%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마의 수입대체로 인해 연간 192만달러(27억원)의 외화가 절약되고 말 사육농가의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마사회 농림부 환원

발전기금 출연 2배증액

경주마자급률 높여

말사육농가 소득 향상도

농림부가 마사회의 방만한 경영에 메스를 가할 경우 연간 2,000억 원에 달하는 경비를 대폭 줄이는 대신 축산발전기금 출연을 2배로 늘릴수 있어 국제

통화기금(IMF)사태와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축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00억~400억원인 축산발전기금 납입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에 큰힘이 된다.

마사회는 지난해 3조3,408억원의 매출액에 1,319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초우량 공기업이다.

[연성주 기자]

논쟁

'마사회' 농림부 재이관



서성배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지난 18일 당정회의에서 한국마사회 관장부처를 농림부로 환원키로 한 것은 마사진흥이나 축산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경마는 말을 달리게 해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승부의 70% 이상이 말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주로 사람의 능력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경륜·경정 등의 레저스포츠와는 구별

된다. 이런 연유로 마사회법은 경마의 목적을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도 농림부의 고유한 업무대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49년 마사회가 설립된 이후 92년 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농림부가 관장해왔다. 현재 일본·영국·캐나다·

馬匹개량·증식 병행 축산발전 도모 바람직

프랑스·독일 등 주요 경마시행국도 농림부에서 마사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경마시행과 국내 마필 생산을 직접 연계시켜 경주마 자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경주마 국내자급도가 20%밖에 안돼 연간 3백만달러의 외화를 경주마 수입에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마들은 최고시가가 1억원 이상에 달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60% 이상의 경주퇴역마를 평균 5백만~7백만원에 수입, 경주마로 활용하는 등 마필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인정 경주는 전무한 실정이다.

경마의 핵심자원인 경주마를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국적없는 '식민지 경마'이며, 사행심만 유발시켜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도 큰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수한 혈통의 자국 마필 개량증식이 경마시행과 병행될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경마문화 정착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축산인·관련단체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전반적인 농업의 어려움으로 상실감과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IMF 한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기고

“마사회 농림부이관 마땅”

한국마사회의 지도·감독업무를 원래 소관부처인 농림부로 이관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가 도입된 지난 49년이래 농림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경마, 경주마 개량 및 번식·증식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지난 90년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전격 이관됐다.

뒤늦게나마 당정이 지난 5월 마사회를 종래대로 농림부로 환원키로 결정한 것은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마가 단순히 사행심을 조장하는 오



張原碩

단국대 농업정책학과교수

락으로 끝나지 않고 본래 목적인 경주마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반대하는 측은 경마는 레저 스포츠이며 경주마는 경마를 위한 운동용 도구로 축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마의 본질과 목적을 모른 채 승마와 경마를 혼동하는데서 나오는 발상으로 저질의 수입경주마에 의존한 경마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경마는 말(馬)의 능력에 의해 70% 이상 좌우되어 마칠인삼(馬七人三)의 가축혈통 경기이다. 고객은 스타선수인 경주마와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명마를 기대하며 경마에 참여한다. 즉 우수혈통의 경주마를 경마에 연결함으로써 고객은 경마를 하나의 건전한 문화활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만큼 우수한 경주마의 육종번식을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마땅하다. 마사회 이익금의 체육문화계 지원보다는 경마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 경마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마는 축산업이 아니다’에 대한 반론 경마는 말이 주체...농림부서 관장해야

■ 경향신문을 읽고

지난 20일자 9면에 실린 「경마는 축산업이 아니다」를 읽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경마에서 말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오히려 경륜이나 경정과는 달리 경마에서는 말이 주체이다. 반면 경륜과 경정의 성적은 자전거나 배의 능력에 좌우되기보다는 사람의 지구력이나 기능 등 인간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미국이나 호주 등 경마선진국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주마가 거액에 거래되고 있고 은퇴 후에는 우량한 후대 생

산을 위해 활용되는 등 축산분야와 연계돼 있다. 1949년 설치 이후 1991년까지 농림부에서 관장하던 마사회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게 된 경위나 한국마사회법상의 설치 목적을 언급하지 않아도 경마가 농림부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을 알 수 있다. 농림부에서는 전량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경주마의 국내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경주마 자금 증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경주마 생산지원사업을 통해 경주마의 자금도를 22%까지 향상시켜 놓고 있다.

이상수 / 국립농산물검사소 사무관

마사회 농림부이관 당연

‘마사회 농림부 이관 안될 말’ 논단(23일치)을 읽고 반론한다. 첫째 경마는 승마와 달리 레저스포츠보다 사행성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한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았고,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자금사용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위해 내무부·주정부·농업관련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둘째 도시국가인 홍콩을 빼고 거의 모든 나라가 경주마 자금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마산업에 외국산 말을 계속 쓸 경우 외화유출이 크고 산업발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농림부가 마사회를 관장하던

시기는 국민소득이 5000달러대였던 시대로 경마산업이 확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뒤 크게 발전했다기보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수준을 초과해 과잉확대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승마는 문화체육부에서 레저스포츠로 발전시켜나가되, 마사회는 농림부로 원상복귀해 국민경제와 축산업 발전과 조화를 꾀해야 하므로 해야 한다고 본다.

김형재/농림부 직원

찬 정부여당은 마사
회의 소관부를 본래
의 목적에 맞게 연내
에 농림부로 환원하기로 결정
했다. 지난 49년 농림부가 설
립 인가해 관장해오다 92년
당시 체육청소년부(현재 문화
관광부)로 이관된 마사회를
제자리로 환원하는 것은 마사
회 발전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경마는 단순한 경기용 소모
품이 아닌 생명체인 말을 달
리게 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
기로 우수혈통의 마필을 개량

마사회 농림부 이관

게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말이
레저스포츠의 도구
에 불과하므로 경륜
처럼 문화관광부에
서 계속 관장해야 한
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경마는 마사진흥 및 축산발
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말의 개량증식에 의한
경마행위는 축산정책 대상이

마필육성도 축산정책대상 “당연”

하는 수단으로 발달해 왔다.
또 경마는 면허를 받은 기수
만 기승할 수 있어 기수가 말
을 타는 행위는 체육활동이라
고 보기도 어렵다.

흔히 경마를 가리켜 마칠인
상(馬七人三)이라 하는데, 이
는 그만큼 말의 혈통이 중요
하다는 얘기다.

경주마를 운동용 소모품으
로 격하하는 것은 카지노 기
계를 설치하여 도박업을 차리

다. 경마시행과 마필생산을
연계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
편 경주마 수입대체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사회 소속문제
는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순
수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합
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돼야 한
다.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
착실한 경주마 육성이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육완방(건국대 축산대 교수)

社 説

축산업계의 숙원중 하나인 마사회문제가 계속 원점을 맴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마사회문제는 지난 대선때 김대중대통령이 농림부로의 환원을 공약함으로써 축산인들은 한때나마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지난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이문제는 유아무야되는 바람에 축산인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이 김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장해아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문제는 마사회의 설립목적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마사회의 설립목적은 마필개량과 마사(馬事)진흥. 그리고 축산진흥은 누가 봐도 농림부가 수행해야할 영역이다. 마사회문제를 축산인들이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마사회운영수익금이 축산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이기 때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두고 혹자는 순수성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한마디로 넌센스가 아닐수 없다

마사회이관 늦출이유 없다

원인이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내지는 비협조때문이란 점에서 축산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여당에 몰담고 있으면서 마사회의 체육부이관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한 일부인사들이 현여권에 몰담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것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마사회문제는 92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정부내 실세들과 함께 정부조직법부칙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변칙 처리한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마사회를 체육부소관으로 넘길 당시 그럴싸한 명분이 있었던것도 아니다. 오직 있었다면 실세들의 입김과 밀어붙이기를 능사로 알던 다수의 힘뿐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마사회는 문화관광부가 관

일본의 경우에도 경마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축산발전에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경마는 농림수산성이 관장하고 있다. 또 관장부처가 어디든 축발기금만 제대로 출연하면 되지않는나는 논리도 넌센스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논리가 아무런 공중이속이 없는 진실에서 비롯된것이라면 편법까지 동원해 마사회를 농림부에서 빼간 이유는 무슨 논리로 설명할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경마는 체육이 아닌 사행성 오락으로서 이로 인한 수익은 원래목적대로 축산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사회이관문제에 관한한 원죄(原罪)를 지고 있는 정치권은 이를 바로 알기부터 촉구한다

한국농어민신문 5월 18일(월)

마사회 농림부환원 강력 추진

한농연 서명운동 전개, 6·4선거 출마자 공약 유도도

54개 농업관련단체 추진위 구성, 결의대회 개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를 비롯 관련단체들이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운동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농연은 지난 3월31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뒤, 전국 도·시·군연합회 등 조직을 이용해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현재 10만명의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은 이미 해남군, 하동군, 충주시, 남해군 연합회 등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농연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농업경영인후보 3백여명의 공약사항으로 마사회 농림

부 환원을 위한 적극활동을 공통되게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여론조성을 위한 가두행진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 한농연은 마사회 환원문제를 올해의 최대 중점사업으로 가닥을 잡고, 올 8월에 개최될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서도 대형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또 지난달 54개 농업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목적달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서 추진위는 대내외 여론조성, 언론홍보, 서명운동,

청원입법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현재 추진위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장, 3당총재, 국무총리, 국회농림해양위원 등 관계요인에 건의문 발송작업을 끝냈고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소속단체 지역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한농연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완료된 후 청와대와 국회, 정부 유관부서 등 각계에 서명운동 사본을 발송하는 등 농림부 이관작업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각오"라며 "늦어도 가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한겨레

98. 9. 24(수) 4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한국마사회 감독부처의 농림부이관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감독부처를 문화관광부(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한 것은 정치적 의도였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을 통한 우리나라의 마사(馬事) 진흥과 축산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6공 시절이었던 '92년 1월, 정치적 의도로 한국마사회는 농림부에서 문화관광부(당시 체육청소년부)로 감독부처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후 국내 마필생산 능가 및 축산 능가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시행을 통해 얻는 이익금의 일부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축산발전기금 및 각종 공익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된 이후 마필생산 능가 및 축산 능가의 건설한 경영기반을 닦기위한 지원방안은 수립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고향인 농촌은 시장개방과 IMF 한파로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2005년까지 국산마 경주 자급률 75%를 목표로 국내 마필생산 능가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百年大計 사업으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규모 육성목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마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농촌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의 감독부처는 농림부가 되어야 합니다.

경마산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 건전한 산업으로의 육성정책 견여, 농·축산 지원의지 부족 등으로 농림부로 감독부처를 환원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차치하고서라도 시대적 요청입니다.

경마와 경주마 생산을 분리하여 문화관광부와 농림부가 한국마사회를 나누어 갖겠다는 문화관광부의 최근 움직임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이미 감독부처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국마사회 농림부 이관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연맹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공정한 경마시행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자랑스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연맹,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참고>

마사회 농림부환원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 | | |
|--------------|----------------|
| 농협중앙회 | 축협중앙회 |
| 임협중앙회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 전업농중앙연합회 |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 한국낙농육우협회 | 대한양돈협회 |
| 대한양계협회 | 한국기독교농민회 |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유기농업협회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생활개선중앙회 |
| 한국포도회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 시설채소생산자연합중앙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 한살림 | 국제농업개발원 |
|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 정농회 |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 한국영농법인중앙회 |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한국단미사료협회 |
| 한국사료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 |
| 한국유가공협회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
| 한국육가공협회 |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
| 한국대용유사료협회 | 한국양봉협회 |
|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 한국양록협회 |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 한국양돈연구회 |
| 양돈산학협동연구회 | 한국오리협회 |
| 한국흑염소협회 | 대한수의사회 |
| 한국동물약품협회 | 한국축산학회 |
|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 한국초지학회 |
| 한국낙농학회 | 한국영양사료학회 |
| 한국가축번식학회 | 한국가금학회 |
|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축산분뇨자원화협회 |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 한국수의공중보건협회 |
| 대한수의학회 |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한국진도견보존협회 |